

峴山文化

제22호



襄陽文化院

양양에너지월드

“물로 만드는 빛 이야기”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 관 시 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견학신청 방법 : www.komipo.co.kr (20인이상부터 신청가능)
- 휴관 및 휴무 : 매주 월요일(명절연휴, 회사사정에 의한 지정일)
- 문 의 전 화 : 070-4034-2348 Fax : 033)670-1439

 한국수력원자력 |주| 양양양수발전소



2011 신년인사회 시루떡 절단식



문화학교개강식



문화원 임시총회(임원선출)



어르신문화학교 개강식



물치만세운동 91주년 기념식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체험



현산문화제 위원회 개최



경료효친문예작품 입상자 시상식



문화학교 학생 유적지탐방



전국한시백일장(현장백일장)입상
(가작: 양양문화원장 양동청)



문화원회원 유적지탐방



청소년과 38선길 따라걷기 해설 및 체험



설악문화연합 에너지월드 견학



양양군지 출판기념회

목차 Contents

발간사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8
신년사 양양군수 이진호	10
신년사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	14
신년사 국회의원 송훈석	16

특별기고

- 신민요 양양팔경가의 연원과 내용고찰 | 장정룡(강릉원주대 국문과 교수)
- 18

향토사료

- 동해신묘 ----- 32
- 한시이야기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 42

문화사업

- 양양군지발간 ----- 50
- 어르신문화학교 (38선해설사과정) ----- 53

설화

- 탁장사 ----- 56
- 장사 구납 ----- 58

민속예술자료

- 수동골상여소리 ----- 62
- 상복골농요 ----- 80



관광지

- 현장학습이 가능한 관광지 86
- 레저 91

문화학교운영

- 2010년도 문화학교 학생 수상 및 공연내역 96
- 2010 입선작 98

경로효친문예작품

- 심사평 107
- 입상현황 109
- 시부문 최우수상-양보 / 정희원(손양초등학교 3학년) 110
- 산문부문 최우수상
 - 외할아버지의 생신 / 오종현(송포초등학교 5학년) 111
 - 행동하는 효 / 최리라(현남중학교 1학년) 113
- 포스터부문 최우수상
 - 어른공경 아빠마음 제가 본받습니다 / 진채린(손양초등학교 4학년) 115

건강상식

- 통풍 116
- 당뇨병 122

양양문화원 이모저모

127

향토문화일꾼

- 양양문화원 임직원 135

발간사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이제 경인년을 보내고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과 문화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지난해 보살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우리 문화원이 괄목할만한 많은 업적을 남긴 한해였습니다.

1990년에 발간된 우리 고장의 향토지인 “양주지”가 20년 만에 “양양군지”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양양군지 편찬과정에 군민 여러분께서 지난날 전쟁과 재난으로 피난을 하고 재산과 인명을 잃는 등 시련과 고통을 겪는 와중에서도 많은 자료들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간직하셨다가 흔쾌히 기증하여 주신 애향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없다면 훌륭한 군지가 탄생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명승고적을 소재로 한 “양양의 한시”를 번역 발간하였습니다.

어르신 문화학교운영에 있어서는 4년차로서 6·25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민족의 아픔과 시련을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38선길 해설사를 양성하였으며 국내 문화 탐방으로는 철원의 전적지와 안동의 하회 마을과 봉정사, 도산서원을 답사함으로써 우리고장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32회 현산문화제는 민간 주도 2년 차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더욱



알차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생님과 수강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셔서 개인의 실력 향상은 물론 각종대회에서 많은 분들이 입상하시어 우리 고장의 명예를 빛내셨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2010년 10월 11일 충남 공주에서 개최된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전에서 양양의 “수동골 상여소리”가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상복골 농요”가 영상 평가 최우수상인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여 양양의 명예는 물론 강원도의 명예를 드높인 일입니다.

금년에는 지역의 발전은 물론 우리 문화도 크게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중점사업을 말씀드리면 양양군지 편찬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와 앞으로 폭 넓게 각종 사료를 더 수집하여 “향토 사료관”을 건립하여 보존 관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국내 문화탐방에도 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견문을 넓혀 지역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동구리 농가경창대회를 많은 분들이 폭넓게 참여토록 하기위하여 그 내용과 규모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수시책으로 1937년 일제에 의해 강제 이주되어 이역만리 중국 길림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양양촌의 실태를 조사하여 이주민의 애환을 위로함은 물론 역사자료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문화학교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군민이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전통문화의 고장으로서 자랑스러운 문화를 다 같이 향유 할 수 있도록 회원의 영입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묘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신년사



양 양 군 수
이 진 호

존경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2011년 신묘년(辛卯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각 가정마다 만복(萬福)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모쪼록 올 한해도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건승·번창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새해 벽두의 연단에서 여러분께 새해인사를 드린지가 벌써 아홉 번이 되겠습니다만, 올 신묘년만큼 군정에 대한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앞에 가슴을 여민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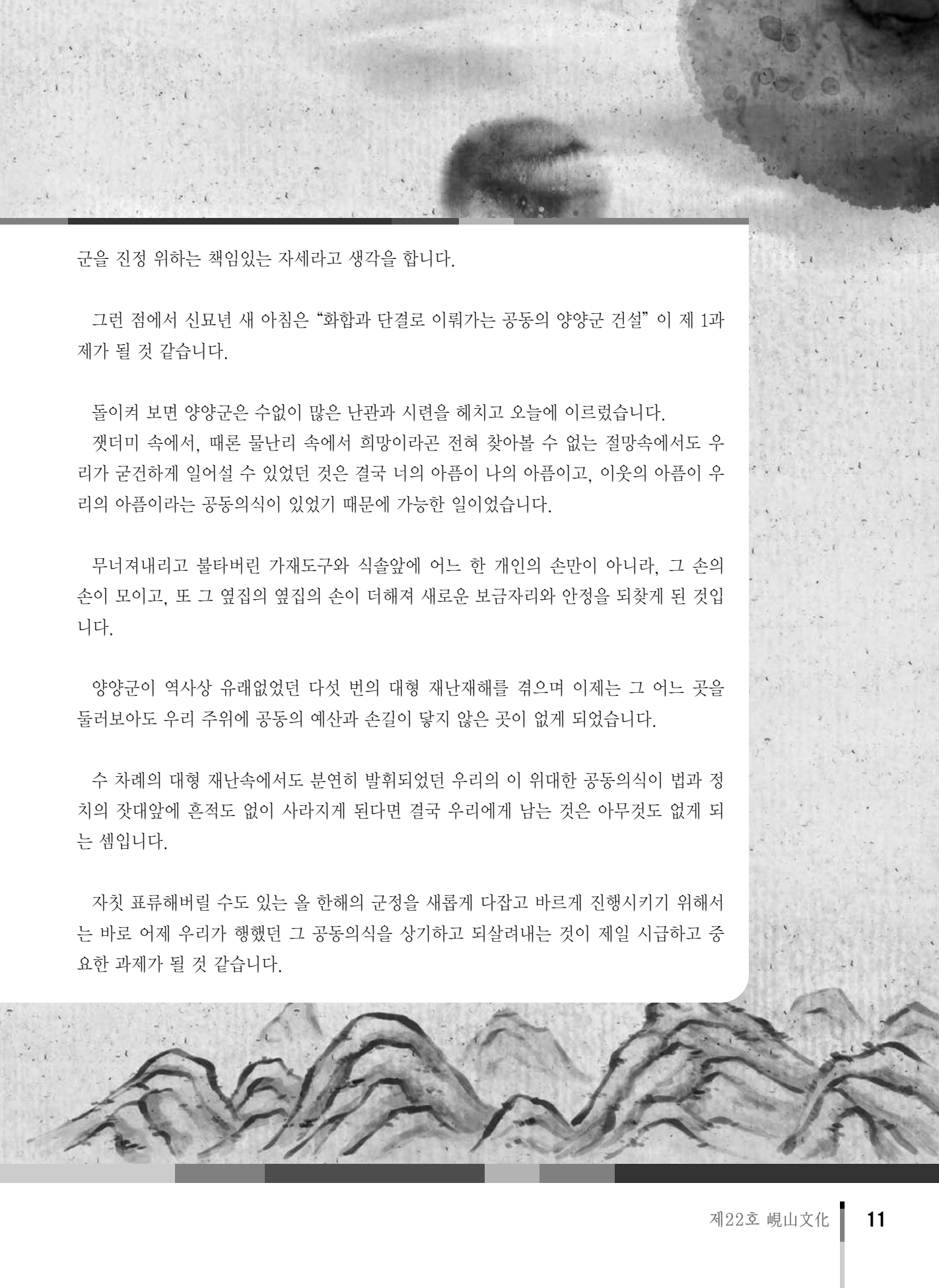
먼저 지난해 군민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저는 지역사회에 끼친 큰 충격과 누(累)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고개를 떨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올리는 이 지극한 사죄의 마음이 추후도 군정의 추진에는 전이됨이 없도록 냉정에 냉정을 거듭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이자 양양





군을 진정 위하는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묘년 새 아침은 “화합과 단결로 이뤄가는 공동의 양양군 건설” 이 제 1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양양군은 수없이 많은 난관과 시련을 헤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젓터미 속에서, 때론 물난리 속에서 희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이웃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라는 공동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너져내리고 불타버린 가재도구와 식솔앞에 어느 한 개인의 손만이 아니라, 그 손의 손이 모이고, 또 그 옆집의 옆집의 손이 더해져 새로운 보금자리와 안정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양양군이 역사상 유래없었던 다섯 번의 대형 재난재해를 겪으며 이제는 그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우리 주위에 공동의 예산과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수 차례의 대형 재난속에서도 분연히 발휘되었던 우리의 이 위대한 공동의식이 법과 정치의 잣대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셈입니다.

자칫 표류해버릴 수도 있는 올 한해의 군정을 새롭게 다잡고 바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어제 우리가 행했던 그 공동의식을 상기하고 되살려내는 것이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반목하고 갈등하기보다는 화합하고 단결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인화(人和)된 한해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게 달렸다는 이 명제를 앞으로도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올 한해는 이 공동 의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군정 주요시책과 핵심사업들을 변함없이 이어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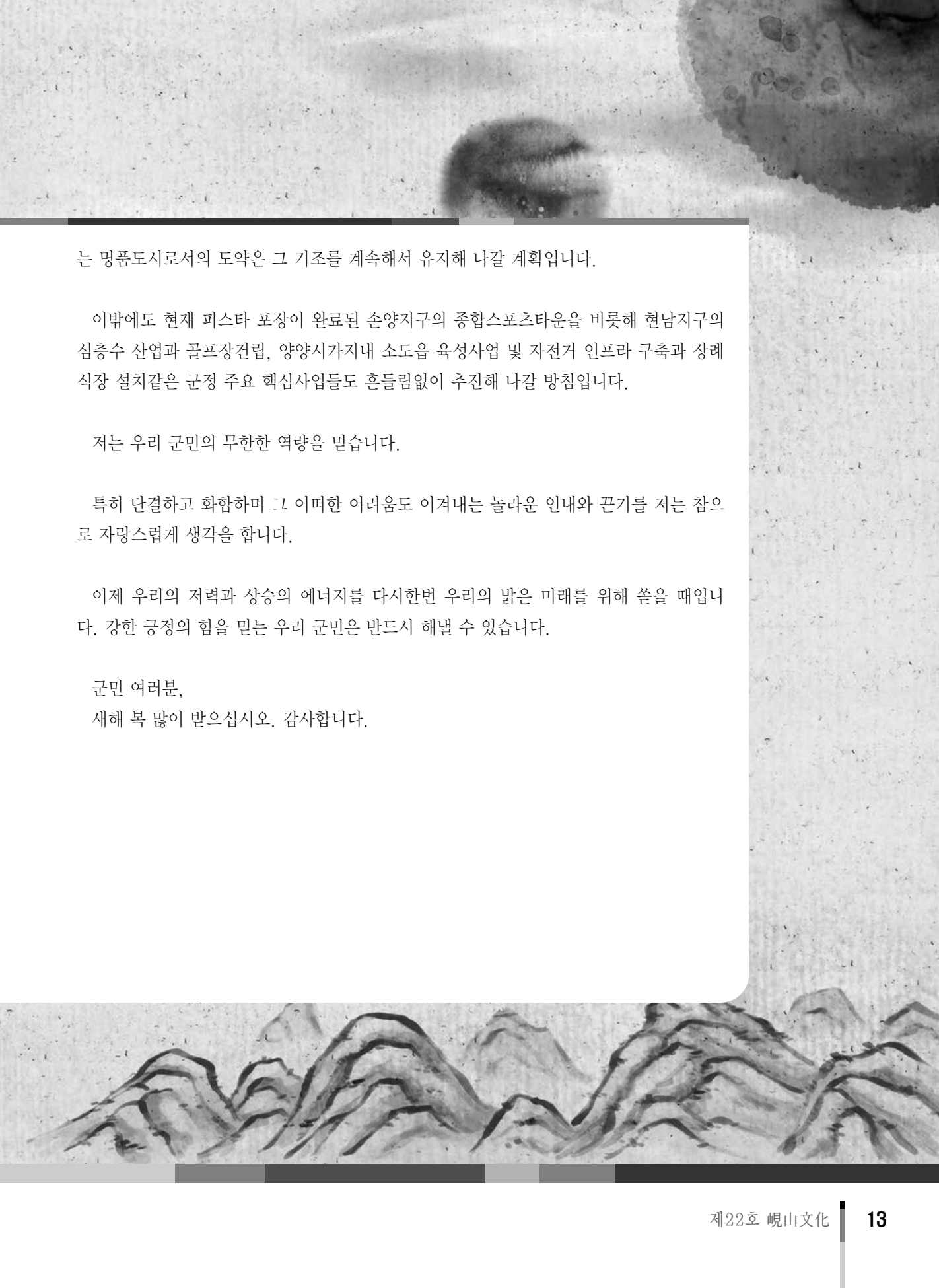
특히 금년도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주력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함으로써 교부금이 삭감되는 등 재정 압박으로 인해 신규사업 발주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책사업인 동서·동해고속도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설악산 관광의 교두보가 될 오색로프웨이 사업도 2012년 착공을 내다보고 있는 만큼, 우리군의 미래전망은 대단히 긍정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강원도 유일의 국제공항인 우리 양양국제공항도 도지사 직속 기구의 TF팀 설립과 함께 각종 국비지원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반으로한 살아숨쉬



The background features a traditional Korean ink wash painting. At the top, a portion of a face is visible, looking downwards. To the right, a large, dark, circular shape, possibly representing the moon or a celestial body, is partially shown. The overall style is minimalist and expressive, with varying shades of gray and black ink on a light background.

는 명품도시로서의 도약은 그 기초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현재 피스타 포장이 완료된 손양지구의 종합스포츠타운을 비롯해 현남지구의 심층수 산업과 골프장건립, 양양시가지내 소도읍 육성사업 및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장례식장 설치같은 군정 주요 핵심사업들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저는 우리 군민의 무한한 역량을 믿습니다.

특히 단결하고 화합하며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놀라운 인내와 끈기를 저는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저력과 상승의 에너지를 다시한번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쏟을 때입니다. 강한 긍정의 힘을 믿는 우리 군민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년사



양양군의회의장
오 세 만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희망의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군민 모두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향각지에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출향군민 여러분과 우리 군의 자매도시로서 희로애락을 함께 해 주신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힘이 되어주신 지역의 부대장님을 비롯한 주둔 장병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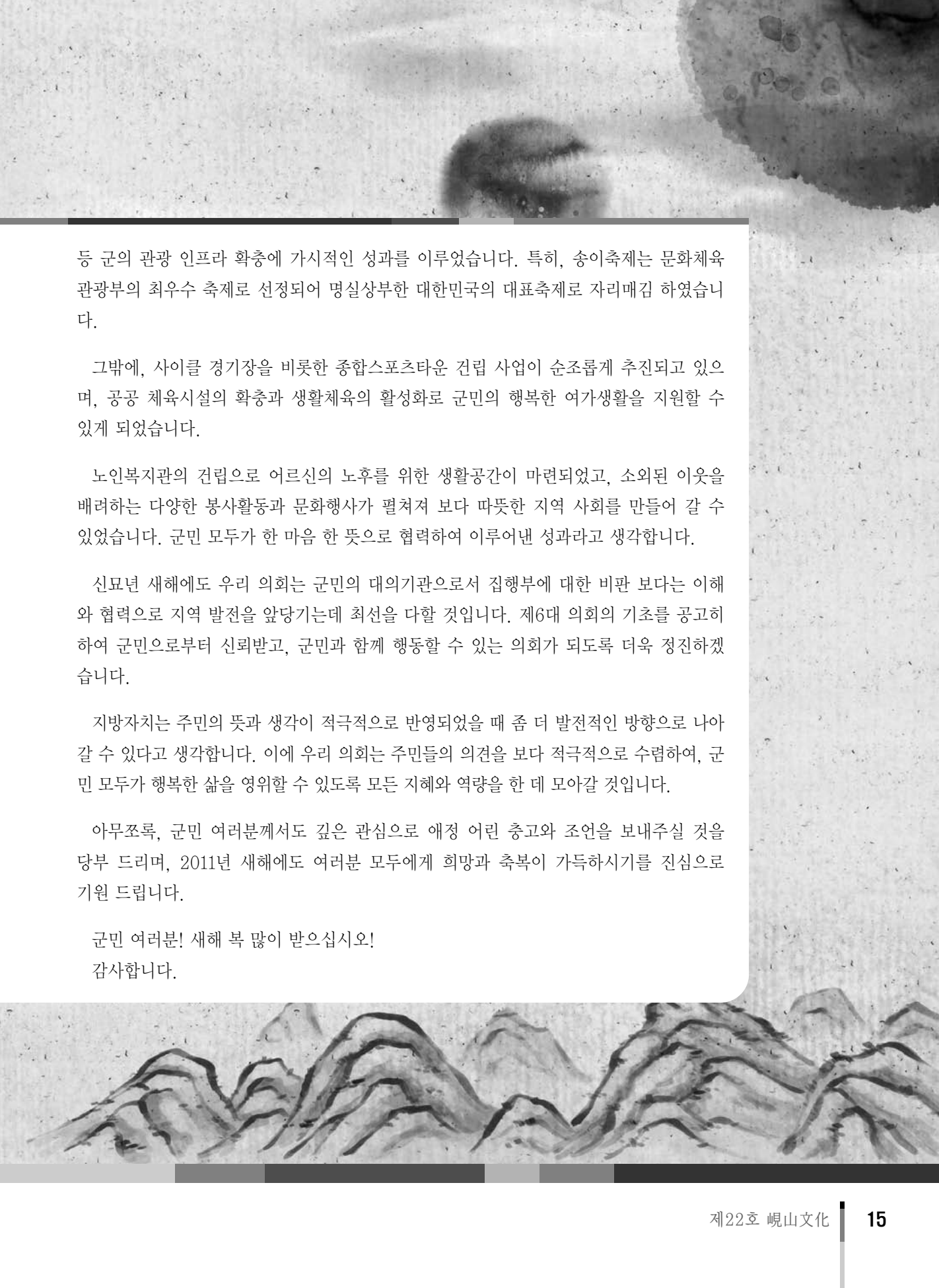
군민 여러분!

지난 한해는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인 동해·동서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군민의 오랜 염원이던 오색 로프웨이 사업의 추진을 본격화하여 착공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군 대표축제인 송이·연어 축제에는 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경기 부양에 일조하였으며,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행사를 주제로 한 각종 마을행사가 성황을 이루는





등 군의 관광 인프라 확충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송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밖에, 사이클 경기장을 비롯한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 체육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군민의 행복한 여가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건립으로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생활공간이 마련되었고,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문화행사가 펼쳐져 보다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군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비판 보다는 이해와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6대 의회의 기초를 공고히 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군민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뜻과 생각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을 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 데 모아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으로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1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년사



국 회 의 원
송 훈 석

희망찬 신묘년(辛卯年)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양양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랜 전통의 숨결이 깃든 양양군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그동안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현산문화」의 22번째 발간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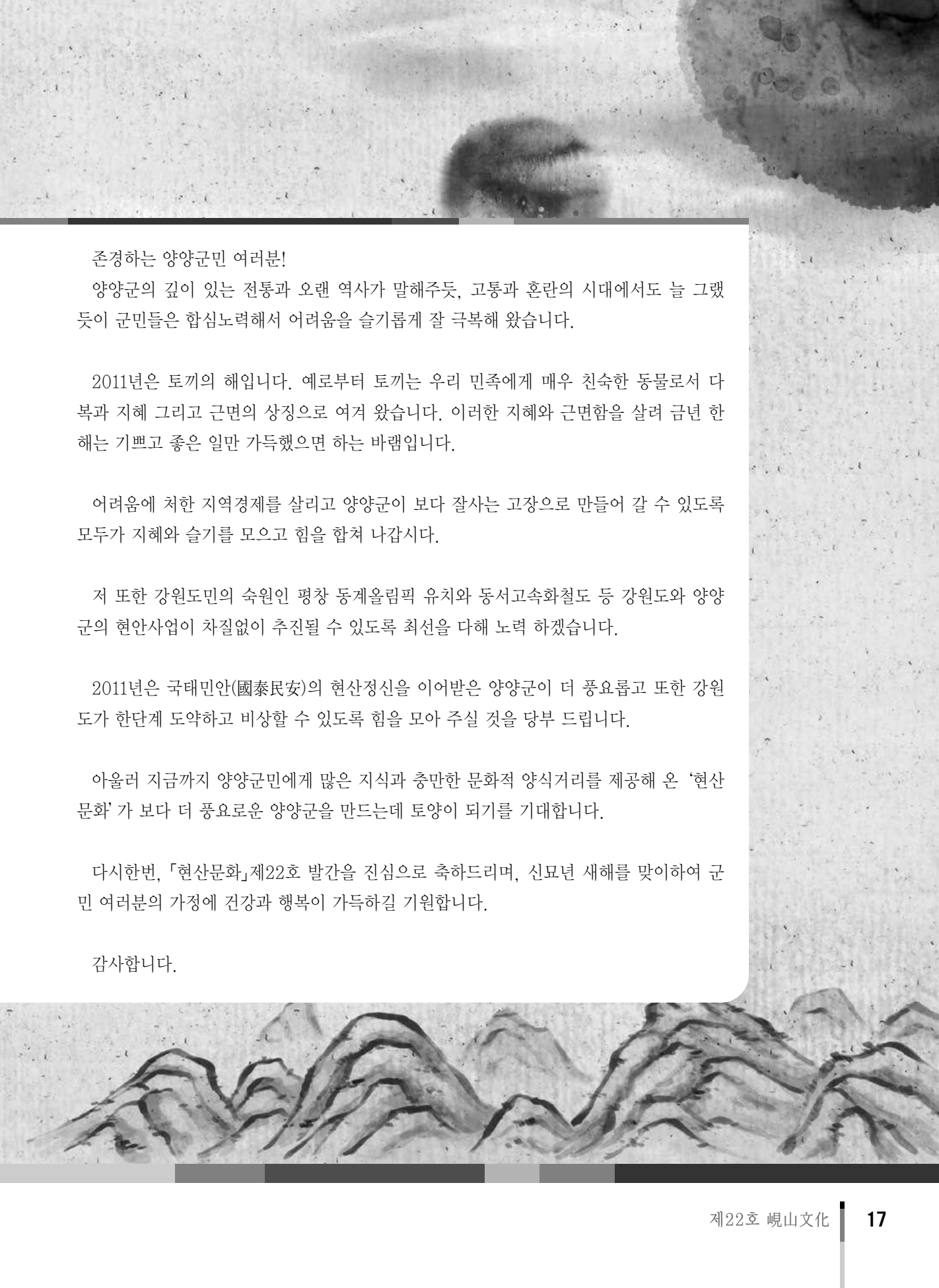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현산문화’의 발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양양문화원 양동창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경인년은 한편으로는 기쁜 일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를 가슴아프게 했던 사건사건도 많았던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천안함 침몰 사건’의 아픔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연평도 포격으로 다시한번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의 지속으로 서민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농민과 서민 모두를 울린 채소 값 파동 등으로 참으로 힘든 한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존경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양양군의 깊이 있는 전통과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고통과 혼란의 시대에서도 늘 그랬듯이 군민들은 합심노력해서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왔습니다.

2011년은 토끼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토끼는 우리 민족에게 매우 친숙한 동물로서 다복과 지혜 그리고 근면의 상징으로 여겨 왔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근면함을 살려 금년 한 해는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양양군이 보다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와 슬기를 모으고 힘을 합쳐 나갑시다.

저 또한 강원도민의 숙원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동서고속화철도 등 강원도와 양양군의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2011년은 국태민안(國泰民安)의 현산정신을 이어받은 양양군이 더 풍요롭고 또한 강원도가 한단계 도약하고 비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양양군민에게 많은 지식과 충만한 문화적 양식거리를 제공해 온 '현산문화'가 보다 더 풍요로운 양양군을 만드는데 토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현산문화」제22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요 양양팔경가의 연원과 내용 고찰

장정룡 (강릉원주대 국문과 교수)

1. 머리말

발없는 말, 흔적없는 소리는 국경도 넘고 사상이나 이념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다. 1930년대 양양에서 불린 양양팔경가는 1980년대 중국조선족 구전문요집과 근래 카자흐스탄 구전문요집에까지 수록되어 있다. 나아가 중국조선족 음악교과서에 실려 있을 정도로 조선족사회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양양팔경가는 어떤 노래인가? 사실 중국 동북지역 뿐만 아니라 러시아 연해주와 중앙아시아까지 어떻게 퍼졌을까하는 궁금증이 남는다. 또한 이 노래는 북한에서 불리다가 1970년대 가사만 개사되고, 곡조는 여전히 북녘땅에 남아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가 만난 연변조선족작곡가에 의하면 “양양팔경가는 곡조가 아름답고 가사가 단순하여 부르기 쉬워 연변조선족까지 전파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하였다. 양양팔경가의 존재성이나 강인한 전파력은 그것이 단순히 부르기 쉽다는 이유만이 아닐 것이다. 본고는 양양팔경가 연원을 파악하고 그 내용분석을 통해서 양양팔경가의 전승양상과 내재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양양팔경가의 내용과 전파양상

팔경(八景)은 이른바 아름다운 8가지의 경치를 칭하는 것이나, 그 상징성은 우주의 삼라만상인 삼원(三元)과 오행(五行)을 합친 도교적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방팔방(四方八方)의 용례와 같이 팔경문화는 시적(詩的) 자아를 중심으로 천지수(天地水) 삼원사상과 동서남북·중앙의 오행에 산재한 경관들을 노래한 것이다. 한국의 팔경문화를 중국 소상팔경에서 유입된 것으로도 해석하기도 하지만, 우리 나름의 경관문화에 입각하여 관찰자적 시점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원도에는 관동팔경이 전해오고 있는데 그것은 여덟 가지의 대상만을 한정하여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정한 시점이나 관찰자의 해석과 관점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다. 양양팔경가에는 관동팔경 중에서 양양 의상대와 고성 청간정이 들어 있는데, 속초 청초호도 한때는 관동팔경에 들었다.

한편으로 지역에서는 여덟 가지의 빼어난 경관을 설정함으로써 지역민의 자긍심과 유구한 역사성, 토착적 향토성을 널리 알리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므로 팔경은 단지 지역에 산재한 여덟 가지 정태적(靜態的) 대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과된 시적자아의 동태적, 정서적, 감흥적 상황을 오감(五感)으로 수용하여 풀이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실제로 귀로 듣는 빗소리나 종소리, 눈으로 보는 저녁노을 등의 자연현상이나 고깃배의 불빛이나 저녁 밥짓는 연기 등 생활풍습, 아침 해와 저녁 달 등 천제우주관이 들어간 것이 이를 방증한다.

양양팔경가는 양양지역의 빼어난 경관가운데 그 우수성을 담보하고 향토성을 선양할 대상을 선정한 것이다. 팔경에는 과거 고성지역까지 양양지역에 속하였던 관계로 낙산사, 설악산 뿐 아니라 동해안, 하조대, 의상대, 청간정, 운봉산이 고루 가사에 적용되고 있음이 그러하다. 현지점에서 지역선양의 필수적 과제로서 양양팔경가의 역사성과 가창성을 계승하고 그것이 지닌 향토애를 선양하여 누구나 이를 구가함으로써 자연사랑과 향토애를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조사에 의하면 양양팔경가는 1937년에 작사와 작곡이 되었고 노래로 불렸다. 민요조로 만들어진 1930년대의 이 노래는 이른바 신민요의 범주에 드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중국, 러시아, 북한에 전승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추정하건대, 일제강점기의 강압을 피하고 항일독립운동을 추진한 분들이나 일제의 강제집단이주정책으로 인해 중국연변지구나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양양사람들에 의해 1930년대 후반부터 불렸고, 1973년에는 월북작사가인 조명암에 의해 개작되었다. 그러므로 양양팔경가의 전파시기는 1930년대 후반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노래는 1937년 스탈린에 의해 17만명의 연해주 거주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면서 카자흐스탄 등지에도 양양팔경가

가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조선족의 이주역사를 보면 제1기(1846~1909)는 생계목적의 농민이주가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으로 한반도에서 쪽박을 차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와 맨손이나 호미, 뿔도끼로 풀뿌리를 캐면서 헐벗은 땅을 개간하던 시기다. 2기(1910~1931)는 항일목적의 애국지사들이 이주한 시기로 학교를 건립하고 반일교육을 하는 등 무려 6만 여명이 중국으로 집단이주하였다.

제3기(1931~1945)는 일제에 의한 강제이주기로 집단부락을 형성하고 강제노동을 하는 등 200만 명의 한국인들이 중국땅으로 월경하여 조선족 사회를 형성하였다. 양양출신들 가운데 대부분이 3기 무렵에 연변지구로 집단이주하여 양양마을 뿐 아니라 강원도 마을, 원주촌, 고성촌 등을 형성했다고 분석된다. 러시아에 거주한 한인들은 1870년대부터 이주하기 시작하여 1930년대까지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 이른바 고려인(카레이스키) 집단촌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양양팔경가의 중국, 러시아 지역 집중적 전파시기도 1930년대 후반기부터 본격화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현재 양양지역에서 이 노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실제로 가창을 하실 수 있는 이종우(남.77세) 교장선생님을 찾았다. 이 교장선생님은 1947년 당시 양양초급중학교 2학년 때 학교 합창부 클럽 활동에 참여하면서 작사자 최용대 교장과 작곡자 김태선 선생님에게 이 노래를 직접 배우고 '양양팔경가'를 보급하는 일에 참여했었다고 증언하였다. 지난 2009년 10월 양양문화원에서 이 교장선생님의 양양팔경가를 필자가 직접 듣고 녹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료1]양양팔경가 (최용대 작사, 김태선 작곡)

1절 :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라네.

우리- 자랑은 팔경이로다.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

해안을 끼고 도는 낙산사로다

에헤-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2절 : 놀기 좋고 물색(物色) 맑은 양양이라네.

우리- 자랑은 팔경이로다.

남으로 하조대, 북으로 운봉산

청간정을 바라보는 의상대로다.

에헤-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최근 양양지역에서는 ‘양양팔경가’에 대한 각계의 논의가 있는바 이는 의미있는 향토사 발굴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자가 수집한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엄경선 기사는《설악신문》(2009년 4월 27일, 제904호) ‘80년 전 우리지역의 풍류와 풍광’에서 양양팔경가는 북한과 연변조선족, 러시아를 거쳐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이에서도 불렸다고 언급하였다.

북한측 자료에 의하면 양양팔경가는 1973년 월북작가 조명암(趙鳴岩, 일명 趙靈出, 1913~1993)에 의해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가사로 개사되고 제목도 ‘명승가’로 바꾸었다고 한다. 조명암은 고성 건봉사 봉명학교 출신 시인으로 1948년에 월북하였으며 ‘꿈꾸는 백마강’ ‘신라의 달밤’ ‘목포는 항구’ 등 일제강점기에 많은 대중가요를 작사했다.

2004년 북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기관지인《조선예술》 8월호는 이와 관련된 기사가 실렸는데 “민요 명승가는 신민요 양양팔경가를 개작해 만든 노래”라고 언급하면서 “광복 전에 창작된 양양팔경가는 1970년대 초까지 원전 그대로 불리다가 1973년 작가 조명출이 가사를 개작하고 제목도 명승가로 고쳤다”고 밝혔다.

또한 “양양팔경가는 협소한 울타리를 뛰어 넘어 우리 조국은 어디 가나 살기 좋은 명승지라는 사상을 확고히 세운 데 기초해 그것을 구체적인 대상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사회주의 조국의 현실을 예찬한 명승가로 개작됐다”고 언급하고 “명승가는 시대적 미감에 맞게 재창조돼 우리 조국의 아름다움을 긍지 높게 노래한 것으로 해 우리 인민들의 사상 속에 널리 불리고 있는 귀중한 민요유산”이라고 덧붙였다. 2009년 북한노래방에서 불리는 계몽기 가요 인기순위에도 조명암 개작의 명승가가 9위에 올랐다고 한다. 1위는 김영춘이 부른 흥도야 울지마라, 2위는 김정구의 눈물젖은 두만강이 차지했고, 10위는 고복수의 타향살이였다. 따라서 지난 1973년 개작된 명승가의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양팔경가가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전파된 시기는 1930년대 후반기다. 전파경로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집단이주로 중국 연변과 러시아 연해주에 정착한 양양주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불렸을 것이다. 한편으로 북한에서도 1970년대 전반기까지 양양팔경가 원본대로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전파경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조명암이 고성 건봉사에 있을 당시 양양팔경가를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1948년 월북이후 양양팔경가를 명승가로 개작하게 된 것은 이러한 인연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북한과 왕래가 자유롭던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에 의해 역수출된 것으로도 보인다. 중국 연변조선족자치구에는 양양주민 집단이주촌인 조양촌이 있었는데, 이곳에 모여살던 주민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면서 노래 부른 것이 연변지구 전체에 작사자, 작곡자 미상의 신민요로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양팔경가는 1981년에 출간된《중국조선족민요집》과 동시기에 출간된 중국조선족 민요집에 수록되었으며, 2009년 중국조선족 5학년 음악교과서에 ‘조선민요’로 수록되기에 이르렀다.

1937년부터 불린 양양팔경가는 그동안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현산문화》제1집(양양문화원, 1989, 144쪽)에는 최용대 작사, 김범소 작곡, 최만섭 노래로 소개되었는데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자료2]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라네,
살기 좋고 물색 좋은 양양이라네
우리 자라는 팔경이로다
우리 자라는 팔경이로다

앞에는 동해안 뒤에는 설악산
남에는 하조대 북에는 운봉산
해안을 끼고 도는 낙산사로다
청간정 바라보는 의상대로다
(후렴) 에헤에 좋구좋다 팔경이로구나

《양주지》(양양군, 1990, 577쪽)에 수록된 양양팔경가 가사는 작사 최용대, 작곡 김범소로 되어 있으며 가사는 위의 《현산문화》에 소개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고 그 순서도 바뀌었다. 작사자 최용대는 1925년 양양신청년동맹을 시작으로 양양청년동맹과 신간회 양양지회를 이끈 대중운동가였다고 한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삼척에서 영동기자단이 주최하는 시사강연 연사로 나서기도 했으며 1937년부터 2년 동안 동아일보 양양지국장을 맡았으며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이종우 전 교장선생님이 전하는 이야기로는 당시 이 학교에 평교사로 근무하던 속초출신 시인 황금찬 선생이 양양팔경가를 작사했으나, 당시 교장이었던 최용대 선생 이름으로 대신 소개되었다고도 하는데, 정확한 것인지는 황금찬 시인에게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

작사자는 최용대로 동일하나 [자료1]과 [자료2]에는 작곡자가 김태선과 김범소로 달리 나오고 있으며 [자료2]에는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최만섭으로 기록되어 있다. 작사자는 동일하나 작곡자가 다르



게 기재된 이유나 가수 최만섭에 대한 별도의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3]에서 보듯이 1981년 중국조선족 사회에서 가창된 양양팔경가는 후렴과 일부내용의 순서만 바뀌고 아래와 같이 동일한 내용으로 불렸다.

[자료3]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라네
 우리 자랑은 팔경이라네
 앞에는 동해안 뒤에는 설악산
 해안을 끼고 도는 낙산사로다
 (후렴) 에헤에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살기 좋고 물색 좋은 양양이라네
 우리 자랑은 팔경이라네
 남에는 하조대 북에는 운봉산
 청간정 바라보는 의상대로다

상기 [자료3]은《중국조선족민요집》(1981년 출간)에 수록된 양양팔경가 가사로서, 이 민요집에 수록된 자료는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중국 조선족이 살던 연변일대, 길림, 요령, 흑룡강 등 동북3성의 조선족 집거마을에서 수집한 것들이라고 한다. 따라서 양양팔경가는 양양이주민들이 모여 살던 조양촌에서 불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의 [자료4]는 김태갑·조성일의 《민요연구》(연변인민출판사, 1981, 146쪽)에 수록된 것이고, [자료5]는 중국음악가협회 연변분회《민요곡집》(연변인민출판사, 1982, 404쪽)에 수록되어 있으며, 양양팔경가 악보가 들어 있다. ()안은 필자가 바른 표기로 고친 것이다.

[자료4]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
 해안을 끼고도는 약(낙)산사로다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남으로 화주대(하조대) 북으로 운봉산
청가(간)정 바라보니 의상대로다
에헤야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자료5]

산 좋고 물 좋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
해안물 찌고(끼고) 드는(도는) 락산사로다
에헤야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위의 가사에 나오는 하조대, 운봉산은 1930년대 당시 양양군 행정구역이 속초시와 고성군 토성면까지 포함되어 양양 하조대, 고성 청간정과 운봉산 지명이 수록되었다. 1930년대 북한에서 불렀던 개작전의 양양팔경가 가사는 중국 연변지구에서 전승된 가사와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자료6]

산 좋고 물 좋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
해안을 끼고도는 락산사로다(1절)
에헤야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후렴)
산 좋고 물 좋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남으로 화주대 북으로 운보산
청간정 바라보니 의상대로다(2절)

이상의 양양팔경가에는 반드시 후렴이 들어가 있는데 “에헤야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라고 하였



다. 1973년 북한에서 ‘명승가’를 참고로 보면 1절에는 동해안, 백사장 해당화가 들어가 있으며 2절에는 서해안이 지상낙원임을 강조하고 3절에는 “산천이 좋아서 명승이라더냐, 살기 좋으니 낙원이다”라고 개작하였다. 따라서 명승가는 1절을 빼면 사회주의 조국의 현실을 예찬한 명승가로 개작, 체제 선정용으로 바뀌었다. 북한에서 양양팔경가를 개작한 ‘명승가’ 전체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명승가]

산 좋고 물 맑은 이 강산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동해안이로다
 앞에는 백사장 해당화 피구요
 뒤에는 푸른 숲에 백학이 난다네
 에헤야 좋구 좋다 명승이로구나(1절)

산 좋고 물 좋은 이 강산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서해안이로다
 봄이면 과수원 사과꽃 피구요
 가을엔 황금과도 출렁인다네
 에헤야 좋구 좋다 지상낙원일세(2절)

산천이 좋아서 명승이라더냐
 살기 좋으니 낙원이로다
 하늘은 사시절 맑기도 하구요
 밤에는 달과 별이 보석을 뿌린 듯
 에헤야 좋구 좋다 금수강산일세(3절)

중국에 사는 조선족 아동들도 ‘양양팔경가’를 따라 부르고 있는데 설악산을 배경으로 양양팔경가 악보가 실렸다. 의무교육 조선족학교교과서 음악 5학년 하권(연변교육출판사, 2006, 39쪽)에는 작사자, 작곡자, 가수가 밝혀지지 않은 채 조선민요로 수록되었다.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강원도 이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강원촌, 조양촌(조선 양양),

고성촌 등이 있는데 이들에 의해 강원도 민속과 민요가 전승되고 있다.

양양팔경가는 북한이나 중국조선족뿐 아니라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고려인들에 의해서도 불렸다. 김병학 채록편저,《재소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화남, 2007, 258쪽)에는 카자흐스탄 거주 고려인(카레이스키, 재소한인동포)들이 부른 양양팔경가가 수록되어 있다. 가창은 1~2절이 수록되었고, 필사본은 1~3절로 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의 양양팔경가는 북한개작의 명승가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8]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지역에 전파된 양양팔경가로서 1절은 원래의 양양팔경가이며 2절과 3절은 북한에서 개작한 명승가를 부른 것이다.

[자료7]

1절) 산 좋고 물 좋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
해안을 끼고도는 낙산사로다
(후렴) 에헤야 좋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2절) 산 좋고 물 좋은 이 강산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동해안이로다
앞에는 백사장 해당화 피구요
뒤에는 푸른 숲에 백학이 난다네

3절) 산 좋고 물 좋은 서해안이로다
우리자랑인 서해안이로다
봄이면 과수원 사과꽃 피구요
가을엔 황금파도 출렁인다네

(* 낙산사로다 : 필사본과 녹음테이프에는 '약산사로다' 로 나와 있다, 채록자 주)

상기의 고려인들이 부른 양양팔경가는 원래 내용에 개작된 명승가를 더 보탠 것이다. 본고에서는



원본과 구전자료들의 차이점을 살피기 위해서 양양팔경가 가사가운데 각 자료에 수록된 2절을 차례로 예시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자료4]에는 2절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양양과 관련된 팔경가는 아래와 같이 전체 5편이다.

앞에는 동해안 뒤에는 설악산
 남에는 하조대 북에는 운봉산
 해안을 끼고 도는 낙산사로다
 청간정 바라보는 의상대로다
 (후렴) 예헤에 좋구좋다 팔경이로구나(자료1)

살기 좋고 물색 좋은 양양이라네
 우리 자랑은 팔경이라네
 남에는 하조대 북에는 운봉산
 청간정 바라보는 의상대로다(자료2)

산 좋고 물 맑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남으로 화주대(하조대) 북으로 운봉산
 청가(간)정 바라보니 의상대로다
 예헤야 좋구좋다 팔경이로구나(자료3)

산 좋고 물 좋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남으로 화주대 북으로 운보산
 청간정 바라보니 의상대로다(자료5)

산 좋고 물 좋은 이 강산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동해안이로다
 앞에는 백사장 해당화 피구요
 뒤에는 푸른 숲에 백학이 난다네(자료6)

상기 5편의 민요 각편에서 볼 수 있듯이 2절 가사는 남쪽 양양의 하조대와 의상대, 북쪽 고성의 운봉산과 청간정이 팔경에 들어 있다. 그러나 [자료6]은 백사장, 해당화, 푸른 숲, 백학 등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어 러시아 한인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창작과 개작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산 좋고 물 좋은’이라는 구절이 [자료]에서처럼 ‘살기 좋고 물색 좋은’으로 바뀐 것은 비슷한 음가로 바뀐 것임을 알 수 있다. ‘산 좋고’가 ‘살기 좋고’로 ‘물 좋고’가 ‘물색 좋고’로 바뀐 것은 자연적 대상을 생활적 환경으로 의미변화시킨 것이다.

1973년 북한에서 양양팔경가를 ‘명당가’로 개작했듯이 민요의 특성상 다양한 각 편이 나올 수 있다고 볼 때, 양양팔경가의 본래적 원형은 북한, 연변조선족, 연해주 고려인들에 의해 지속되었다고 하겠다. 끝으로 조선족 초등학교에 실린 양양팔경가 내용을 전재하고자 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민요곡집》에 실린 가사와 동일하므로 그 내용을 전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7]

산 좋고 물-맑은 양-양이로구나
우리 자랑인 팔-경이로구나
앞뜰엔 동해안 뒤뜰엔 설-악-산
해안물- 찌고도는 락-산-사로다
에헤야-종구 좋다
팔경이로구-나

3. 맺음말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에는 이른바 양양마을로 전하고 있는 안도현 영경향 조양촌이 있다. 조선 양양출신들이 많다하여 조양촌이라 불린 이 마을은 민족의 영산 백두산으로 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는데 용기종기 모여 있던 초가집들이 지난해 수해로 거의 떠내려가 버렸다. 도로가 끊겨 임시로 길을 내어 다니고 있지만, 그나마 남아 있던 조선족들조차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가난을 피해서 오로지 살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찾아온 중국의 연변지구와 러시아 연해주는 이른바 재중동포인 조선족과 재소동포인 고려인의 고향과도 같았다. 이



들은 고향 양양을 그리워하며 양양팔경가를 부르고, 이를 따라 부르면서 언젠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렸다.

중국땅이나 러시아, 중앙아시아 어디든지 강원도 사람이 많이 살던 곳에서는 아라리가 늘 불렸고, 특히 양양출신들은 양양팔경가를 즐겨 불렀다고 전한다. 1931년부터 45년까지 일제의 강제이주정책으로 중국땅에 옮겨 앉은 조선족들은 험벗고 굶주림 속에서도 고향땅을 그리워하면서 한가닥 희망을 잃지 않고 씩씩이 개간하여 문전옥답에는 벼농사를 짓고 산비탈에는 사과배를 심으면서 강인한 민족성을 발휘하였다.

또한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로 인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떠난 17여만명의 고려인들도 가난과 추위의 고통에서 푸른 바다 동해안과 산자수명한 양양땅을 그리워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고통과 통한의 역사적 희생자이지만 그들은 기적과 감동의 역사를 창조하였다. 중국조선족들은 1966년 5월부터 1976년 10월까지 중국에 붙어 닦친 문화대혁명 10년 동안 양양팔경가를 제대로 부를 수 없다가 1970년 후반기에 들어와 비로소 중국조선족 민요집에 수록되어 우리들에게 알려지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양양팔경가는 1937년에 창작된 민요조 노래였으며 한민족이주사와 맞물려 북한땅, 중국땅, 러시아땅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갔다. 일제강점기의 중국연변지구로 집단이주한 양양사람들에 의해 중국 조선족사회에서 불렸으며, 북한에서는 청년기 강원도 고성 건봉사에 머물렀던 월북작사가 조명암에 의해 북한체제선정용 노래로 1973년에 개작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양양팔경가는 중국 조선족, 러시아 연해주의 고려인들에게도 집단이주와 함께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며 스탈린에 의해 17만명의 연해주 한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면서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고려인과 함께 전파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1930년대 소리의 고향 양양에서 창작된 신민요 양양팔경가는 일제강점기 동안 중국으로 건너간 양양출신들에 의해 중국조선족 사회에 구전되었으며, 이 시기 러시아로 이주한 고려인들도 부르다가 중앙아시아까지 퍼져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양양팔경가는 팔경의 경관을 노래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고향을 그리워한 해외동포들의 망향가로 불리고, 신민요조의 애향가로 그 국제적 변경을 넘어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나간 것은 문화전파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으로 80여년이 넘는 양양팔경가의 역사성과 국경을 넘어 간단(間斷)없이 이어진 가창성을 계승하여,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지속화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하겠다.

음악

5학년 하권



양양팔경가

보통속도로 조선민요 V

산 좋 고 물-맑 은 양- 양이로구 나 -
우 리 자 랑인 팔-경이로구 나
앞 돌연 동 해안 뒤 돌연 설-악-산
해 안 물- 끼고도 는 락-산-사로 다
에 해 야 - 좋 구름 다
팔 경 이 로구 - 나 -

39

[참고문헌]

-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 향토지, 양양군교육청, 1968
- 임동권, 한국민요집 II, 집문당, 1974
- 김종극, 향토지, 양양문화원, 1976
- 민요곡집, 중국음악가협회연변분회, 연변인민출판사, 1980
- 김태갑·조성일, 민요집성, 연변인민출판사, 1981
- 양양의 열전, 양양문화원,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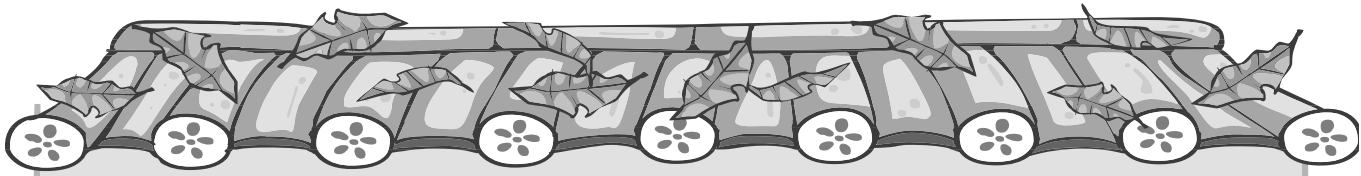
- 김선풍, 한국구비문학대계 2-4,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연변인민출판사, 1984
- 朝鮮族簡史, 연변인민출판사, 1986
- 현산문화 창간호, 양양문화원, 1989
- 양주지, 양양군, 1990
- 村山智順 編, 朴銓烈 譯, 朝鮮의 鄕土娛樂, 集文堂, 1992
- 강원도, 강원도의 전통민속예술, 1994
- 양양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박물관, 1994
- 강원어촌지역전설민속지, 강원도, 1995
- 한국민요대전, 강원도민요해설집, (주)문화방송, 1996
- 장정룡, 민속의 고향 강원도세상, 동녘출판기획, 1999
- 장정룡 · 양언석, 양양군민속지, 양양군 양양문화원, 2001
- 장정룡, 강원도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 장정룡, 양양군 마을제당조사, 양양문화원, 2002
- 장정룡 · 이한길, 양양의 민속예술, 양양문화원, 2002
- 강등학, 양양군의 민요자료와 분석, 민속원, 2002
- 강원도의 민요Ⅱ, 강원도, 2002
- 강원도의 설화Ⅲ, 강원도, 2006
- 장정룡 외, 재증강원인 생활사조사연구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강원발전연구원, 2006
- 의무교육 조선족학교 교과서 음악 5학년 하권, 연변교육출판사, 2006
- 김병학, 재소고려인의 노래를 찾아서 I, 화남, 2007
- 장정룡 외, 양양군 입암민요전승실태조사보고서, 양양군, 2010
- 양양군지, 양양군, 2010



동해신묘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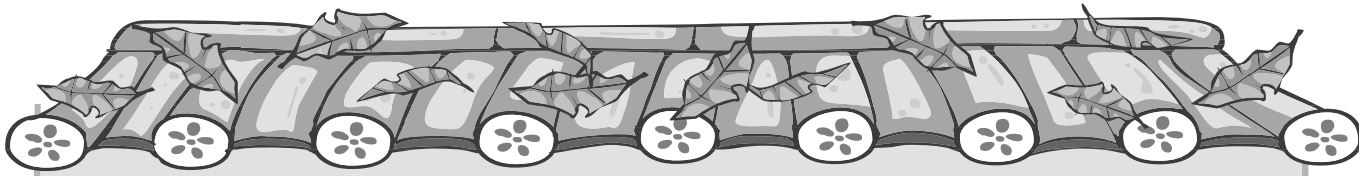
1. 동해신묘(東海神廟)

1) 역사적 배경

동해의 문화적 상징물 1호는 양양의 '동해신묘(東海神廟)'이다.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는 동해신묘(東海神廟)는 양주(襄州:현재의 강원도 양양)에 있으며 고려시대부터 세워졌다고 한다. 신라시대부터 종묘사직(宗廟社稷), 악·해·독(岳·海·瀆):산·바다·강]에 나라에서 제의(祭儀)를 베풀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명산 설악(雪嶽)에 소사(小祀)의 제(祭)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세종 지리지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편 기사에 동해신사당(東海神祠堂)은 부(府) 동쪽에 있는데, 봄·가을에 향축(香祝)을 내려 중사(中祀)로 제사지낸다라 하였다. 세종실록 오래 길러서레 번사편 기사에 대사(大祀)는 사직(社稷)과 종묘(宗廟)이고 중사(中祀)에 동해는 강원도 양주의 동쪽에 있다. 무릇 제사(祭祀)의 예(禮)는 천신(天神)에게 '사(祀)'라 하고, 지기(地祇)에게는 '제(祭)'라 하고, 인귀(人鬼)에게는 '향(享)'이라 하고, 문선왕(文宣王)에게는 '석전(釋奠)'이라 한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의 기록에는 동해를 지키고 다스리는 동해묘를 강원도 양양땅에, 서해를 지키고 다스리는 서해단(西海壇)을 황해도 풍천에, 남해를 다스리고 지키는 남해신사(南海神祠)를 전라남도 나주에 각각 모셨다. 그리고 북쪽에는 바다가 없어 해신을 모시는 대신 강(江)의 신을 모셨으니 강신을 봉사한 사당으로는 북동편은 함경북도 경원에 두만강신사(豆滿江神祠)를, 북서편에는 평안북도 의주에 압록강사(鴨綠江祠)를 모셨음을 알 수 있다.

동해신묘(東海神廟)는 그 건립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사』3 권3세가권3에는 고려 제6대 성종 10년(991년) 윤 2월 3일 왕은 처음으로 사직단(社稷壇)을 설치하도록 하교하시고, 마침 이를 창립하려하니 공들은 땅을 가려 설치하도록 하라 명하였다.[閏月癸酉始立社稷教日方將創立其令群公擇地置壇(윤월계유시립사직교왈방장창립기령군공택지치단)]또 『고려사』7 권11세가권11에는 고려 제15대 숙종 3년(1098년) 4월 21일 다섯 해신에 기우제를 지냈다.[己亥祈雨于五海神(기해기우우오해신)] 『고려사』33 권54지권8에는 고려 제15대 숙종 7년(1102년) 6월 20일 재상에게 명하여 오방의 산과 세 곳의 해신(海神)에게 제사하게 하였다.[六月丙戌命宰相分祀五方山海神君於三所(육월병술명재상분사오방산해신군어삼소)]라는 기록으로 볼 때 고려 제6대 성종 10년(991년)~고려 제15대 숙종 7년(1102년) 사이에 동해신묘를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36 권58지권12의 동계 익령현(東界翼嶺縣)기록에는 "원종(元宗) 원년(1260년)에 다시 승격하여 양주(襄州)로 읍호하고 지양주사(知襄州事)를 두었는데





별호(別號)는 양산(襄山)이라고도 부른다. 여기에는 ‘동해신사(東海神祠)’가 있다[元宗元年陸知襄州事別號襄山有東海神祠(원종원년승지양주사별호양산유동해신사)].” 라는 기록으로 볼 때 고려시대부터 이미 양양에 동해신묘가 존속(存續)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지도서』 강원도 양양군 단묘(壇廟)편에 동해묘는 양양읍 동쪽 10리 바닷가에 있다. 정전 6칸, 신문 3칸, 전사청 2칸, 동·서재 각 2칸, 백천문 1칸이다. 삼해(三海)의 해신(海神)에게는 국태민안(國泰民安)과 풍농·풍어를 기원했으며 매년 치제(致祭)시기는 세수(歲首)에 별제(別祭) 그리고 춘추(2월, 8월)로 상제(常祭)를 올렸는데 왕이 친히 향과 축문을 보냈다고 한다. 『대동지지(大東地志)』의 기록에는 “강원도 양양군 단유(壇遺)편에 양양군 동쪽 13리에 있는 동해신묘에서 고려(高麗) 때부터 중사(中祀)로 받들어 왔으며 그 전고(典故:전례와 고사를 아울러 이르는 말)에 의하여 조선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는 기록으로 보아 동해신묘의 중사(中祀)는 고려시대대로 올라간다.

2) 동해신묘의 중수(重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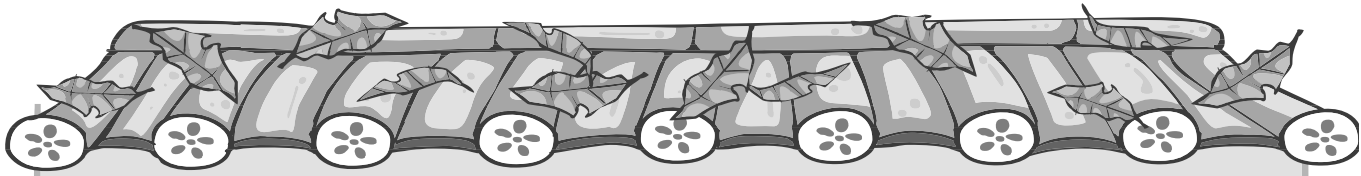
조선 경종 2년(1727년)과 영조 28년(1752년)에 양양 부사 채팽윤(蔡彭胤)과 이성억(李聖億)에 의하여 각각 중수되었으며, 정조 24년(1800년) 4월 7일(기축) 1번째 기사에 양양(襄陽)의 낙산진(洛山津)에 있는 동해신묘(東海神廟)는 제향을 드리는 예법이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으니 이곳을 어느 정도로 중시했던가를 알 수 있다. 어사 권준의 상소(上疏)에 대해 전교(傳敎 : 임금의 명령)를 내리니 강원관찰사 남공철(南公轍)의 주장으로 동해신묘를 중수(重修)하고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를 세웠다. 그 후 철종 원년(1850년) 부사 홍운모(洪運謨), 광무 4년(1900년) 부사 이구영(李龜榮)에 의하여 중수(重修)했다고 양양읍지에 기록 되었다.

3) 동해신묘의 훼손(毀撤)과 복원(復元)

순종 2년(1908년)에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정책에 의하여 일제 통감부 훈령으로 1908년 12월 26일 양양군수 최종낙(崔鍾洛)이 동해신묘를 훼손(毀撤)하였다. 구전에 의하면 최종낙 군수는 동해신묘 훼손(毀撤) : 헐어서 치워버림] 후 3일 만에 급사하였다고 한다. 1993년부터 복원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정전1동이 건립 되었으며 정전의 북·서쪽에 두 토막이 남았던 동해신묘중수기사비(東海神廟重修記事碑)를 복원(復元)하여 세워 놓았다. 2000년 1월 22일 동해신묘지(東海神廟址)와 남공철의 중수비는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73호로 지정되어 양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4) 동해신묘의 제례(祭禮)

동해신묘 찬실도 조선 태종 14년(1414년) 8월 21일(신유) 2번째 기사에 악·해·독은 중사(中祀)로 하는



常祭祝文[香祝幣自禮曹奉]

[御諱前期下來而謹遣臣]

東海之神伏以百谷之王德著廣利享祀是宜永介多祉謹以牲幣醴齊梁盛庶品式陳明薦尚饗

별제축문[향축폐자례조봉]

[어휘전기하래이친행양]

동해지신복이기축연심오행이시공홍관개만물이성서량기고지성비수풍양지경무임근주지지

상제축문[향축폐자례조봉]

[어휘전기하래이근견신]

동해지신복이백곡지왕덕저광리향사시의영개다지근이생폐예제량성서품식진명천상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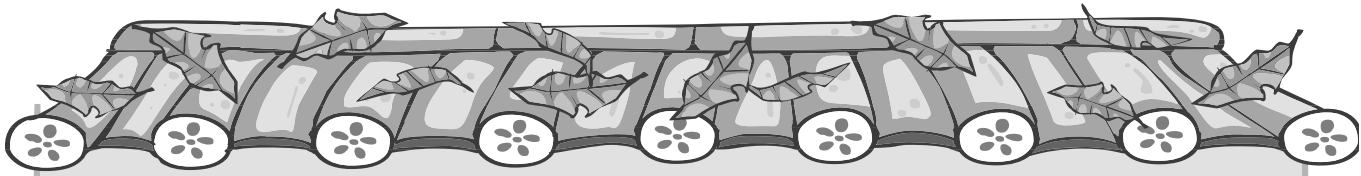
◎ 行禮

東海神廟笏記[〈〉안은 읽지 않는다.]

掌饌者入, 實饌具畢, 執事者服其服升, 設神位版於座.

贊禮者引獻官升自南陛, 點視陳設訖. 還出. 諸祭官各服其服. 贊唱者贊禮者入自東門, 先就壇南拜位, 北向西上四拜訖, 各就位. 贊禮者引祭官以下, 俱就東門外位. 贊禮者引祝及執事者, 入就壇南拜位, 重行北向西上. 立定, 祝以下皆四拜, 詣盥洗位盥洗訖, 各就位. 執事者詣爵洗位, 洗爵拭爵, 置於尊所坫上. 贊禮者引獻官入就位, 獻官四拜. 贊禮者進獻官之左白: “有司謹具, 請行事.” 在位者皆再拜.

- 行奠幣禮. 贊禮者引獻官詣盥洗位北向立, 贊搯笏盥手帨手, 〈盥手帨手不贊〉贊執笏, 引詣壇升自南陛, 詣神位前北向立, 贊禮者贊跪晉笏, 執事者一人捧香合, 執事者一人捧香爐, 贊禮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神位前. 祝以幣授獻官, 獻官執幣獻幣, 以幣授祝, 奠于神位前. 〈捧香授幣, 皆在獻官之右; 奠爐奠幣, 皆在獻官之左. 授爵奠爵, 準此〉贊禮者贊執笏俛伏興, 引降復位.
- 行初獻禮. 贊禮者引獻官升自南陛, 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罍酌醴齊, 執事者以爵受酒. 贊禮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 贊盥晉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贊禮者贊執笏, 俛伏興少退北向盥. 祝進神位之右, 東向盥讀祝文訖, 贊禮者贊俛伏興, 引降復位.
- 行亞獻禮. 贊禮者引獻官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罍酌醴齊, 執事者以爵受酒. 贊禮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 贊盥晉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贊禮者贊執笏俛伏興, 引降復位.
- 行終獻禮. 贊禮者引獻官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罍酌醴齊, 執事者以爵受酒. 贊禮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 贊盥晉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贊禮者贊執笏俛伏興, 引降復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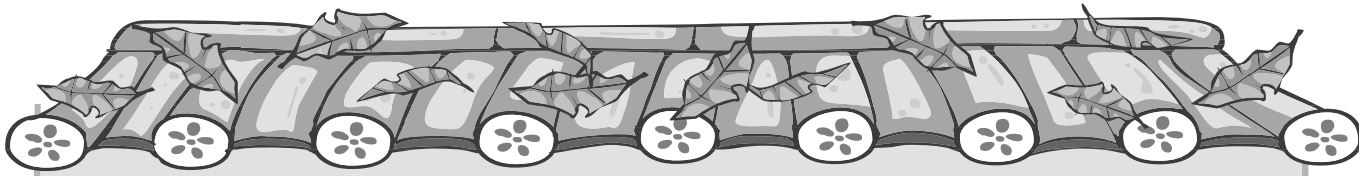
- 徹籩豆. 祝進徹籩豆. 〈徹者, 籩豆各一, 少移於故處〉獻官四拜.
- 望座. 獻官拜訖, 祝以幣沈於海濱. 贊禮者進獻官之左白禮畢, 遂引獻官出. 贊唱者還本位, 贊禮者引祝以下就壇南拜位. 立定, 祝以下皆四拜, 贊禮者以次引出. 贊唱者贊禮者就壇南拜位, 四拜而出. 執事者藏神位版, 徹禮饌以降乃退.

◎ 행례

동해신묘홀기[<>안은 읽지 않는다.]

장찬자입, 실찬구필, 집사자복기복승, 설신위관어좌. 찬례자인헌관승자남패, 점시진설홀, 환출. 제제관각복기복. 찬창자찬례자입자동문, 선취단남배위, 북향서상사배홀, 각취위. 찬례자인제관이하, 구취동문외위. 찬례자인축급집사자, 입취단남배위, 중행북향서상. 립정, 축이하개사배, 예관세위관세홀, 각취위. 집사자에작세위, 세작식작, 치어존소점상. 찬례자인헌관입취위, 헌관사배. 찬례자진헌관지좌백: “유사근구, 청행사.” 재위자개재배.

- 행전폐례. 찬례자인헌관예관세위북향립, 찬진홀관수세수, <관수세수불찬> 찬집홀, 인예단승자남패, 예신위전북향립, 찬례자찬귀진홀, 집사자일인봉향합, 집사자일인봉향로, 찬례자찬삼상향, 집사자전로우신위전. 축이폐수헌관, 헌관집폐헌폐, 이폐수축, 전우신위전. <봉향수폐, 개재헌관지우; 전로전폐, 개재헌관지좌. 수작전작, 준차>찬례자찬집홀면복홍, 인강부위.
- 행초헌례. 찬례자인헌관승자남패, 예존소서향립, 집존자거먹작례제, 집사자이작수주. 찬례자인헌관예신위전북향립, 찬례자찬귀진홀, 집사자이작수헌관, 헌관집작헌작, 이작수집사자, 전우신위전, 찬례자찬집홀, 면복홍소퇴북향례. 축진신위지우, 동향귀독축문홀, 찬례자찬면복홍, 인강부위.
- 행야헌례. 찬례자인헌관예존소서향립, 집존자거먹작양제, 집사자이작수주. 찬례자인헌관예신위전북향립, 찬례자찬귀진홀, 집사자이작수헌관, 헌관집작헌작, 이작수집사자, 전우신위전, 찬례자찬집홀면복홍, 인강부위.
- 행종헌례. 찬례자인헌관예존소서향립, 집존자거먹작양제, 집사자이작수주. 찬례자인헌관예신위전북향립, 찬례자찬귀진홀, 집사자이작수헌관, 헌관집작헌작, 이작수집사자, 전우신위전, 찬례자찬집홀면복홍, 인강부위.
- 철변두. 축진철변두. <철자, 변두각일, 소이어고쳐> 헌관사배.
- 망예. 헌관배홀, 축이폐침어해독 찬례자진헌관지좌백례필, 수인헌관출. 찬창자환본위, 찬례자인축이하취단남배위. 립정, 축이하개사배, 찬례자이차인출. 찬창자찬례자취단남배위, 사배이출. 집사자장신위판, 철례찬이강내퇴.



5) 동해신묘중수기사비 국역

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

양양 동해신묘중수기사비

江原道觀察使 南公轍 撰

강원도 관찰사 남공철 찬

海與王公同位望沈之祭報其德也易說卦曰潤萬物者莫盛於水水之爲言演也故其立字兩人交一以中出者爲水一者
해여 왕공동위망침지제보기덕야역설괘왈윤만물자막성어수수지위언연야고기립자량인교일이중출자위수일자

數之始兩人譬男女言陰陽交物以一起也周祭四坎驚蟄因郊而祭立夏因迎氣而祭白蠶因雩而祭大寒因蜡而祭歲凡
수지시량인비남녀언음양교물이일기야주제사감경침인교이제립하인영기이제백로인우이제대한인사이제세법

四祭玉兩珪有邸五寸牲用少牢幣視方色王及尸皆服毛冕樂奏蕤賓歌函鍾舞大夏用五獻盎齊是朝踐之獻也清酒是
사제옥량규유저오촌생용소리폐시방색왕급시개복취면악주유빈가함종무대하용오현양제시조천지현야청주시

饋食之獻也後世又加王爵東海曰廣德王西海曰廣潤王南海曰廣利王北海曰廣澤王禮諸侯得祀方內嶽瀆我國亦有
饋식지현야후세우가왕작동해왈광덕왕서해왈광윤왕남해왈광리왕북해왈광택왕례후득사방내악독야국역유

東海神廟在襄陽府治東十里 聖上二十四年御使權峻言臣行郡縣見東海神廟齋舍牆垣多頽廢宜修治民家之入居
동해신묘재양양부치동십리 聖상이십사년어사권준언신행군현견동해신묘재사장원다퇴폐의수치민가지입거

近廟者一並撤去毋使雞犬相聞孰嚴於嶽瀆之祀而四方之以水旱疾苦祈禱者聚焉甚非所以致崇極之道請著爲式以
근묘자일병철거무사계견상문숙엄어악독지사이사방지이수한질고기도사취언심비소이치충금지도청저위식이

禁 教曰可 命觀察使主其事臣公轍適按關東謹依禮部知委舉行事訖驛 聞香祝自京師至以峻差獻官)而祀之噫
금 敎왈가 명관찰사주기사신공철적안관동근의례부지위거행사홀역 문향축자경사지이준차현관이사지희

疾痛必呼人之情也民之視海神如父母不獲者祈禱焉固宜然祀有其常祀彼愚夫愚婦之執金帛而來者將以求媚于神
질통필호인지정야민지시해신어부모불획자기도언고의연사유기상사피우부우부지집금백이래자장이구미우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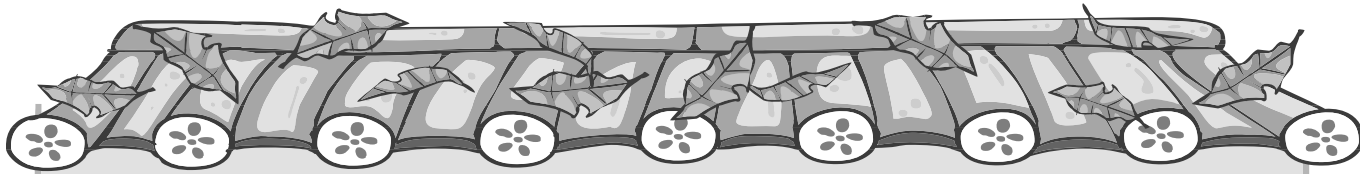
而徼福禮滋益慢則屑孰甚焉 朝廷之禁之乃尊神之至而導民於正也一舉而兩得矣遂述其事刻石俾解其惑至於廟
이요복례자익만칙설숙심언 조정지금지내존신지지도민어정야일거이량득의수술기사각석비해기혹지어묘

字之隨時修補者有有司存 銘曰

우지수시수보자유유사존 명왈

有宮奕奕有牆翼翼籩豆靜嘉維珪及帛於粲灑掃肆筵設几神具醉飽神既安止御史自東歸奏于王嶽瀆有祀曰沈曰望
유궁혁혁유장익익빈두정가유규급백어찬쇄소사연설괘신구취포신기안지어사자동귀주우왕악독유사왈침왈말

蚩蚩者氓凡有攸求握粟擲錢久爲神羞禮滋益慢神顧不歎王命方伯其始自今敕其府吏祇存常祀迺宣祝册迺命御史
치치자맹범유유구악속척전구위신수례자의만신고불흠왕명방백기시자금칙기부리기존상사내선축책내명어사



不顯我王以禮事神導率之正爰及衆民皆稽首神宜酬惠酬之維何惠茲東裔衆有魚矣多黍多稻既富而庶黃髮壽考
비현아왕이례사신도솔지정원급중민민개계수신의수혜수지유하혜자동에중유어의다사다도기부이서황발수고

維萬億年海晏河清維萬有衆偕我太平
유만억년해안하청유만유중해아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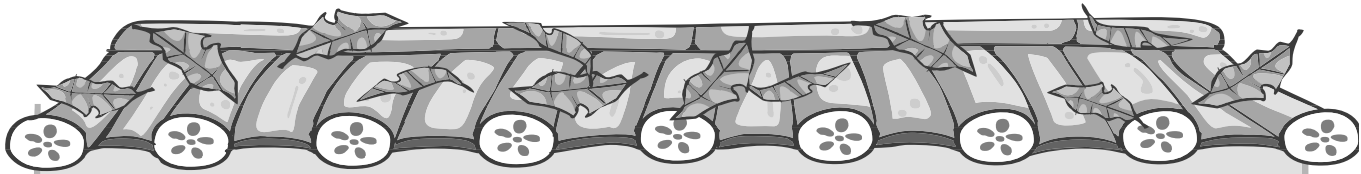
崇禎紀元後庚申閏四月 日立
승정기원후경신윤사월 일립

양양동해신묘중수기사비(襄陽東海神廟重修紀事碑)
강원도관찰사 남공철 지음

바다는 왕과 같이 귀한 자리에 모시고, 그 덕을 알리고자 안정을 바라면서 제사를 올린다. 주역의 괘에 이르기를 ‘만물이 은혜 입어 운택하여지는 것은 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성하여지며 물에 의해 운택하여 진다’고 말한다. 옛것을 글자로서 후세에 전하고자,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 잠시 사귀고 물을 위하자는 가운데 비로소 한사람의 피로서 남녀 두 사람을 비유하니 음양의 교합으로 모든 것이 생겨난다. 옛 주나라 제도 사감(四坎)에는 경칩절에 들제사, 입하절에 기를 맞는 제사, 백로절에 하늘에 제사, 대한절에 선달 납제라. 한해에 보통 사제(四祭)를 지내니 옥으로 된 두 쪽의 오촌(五寸)의 병풍을 두르고 소뢰(少牢=어린 소, 양, 돼지)의 희생을 쓰고, 오방색 폐백에 위폐는 왕에 미치며 모두 관복을 입고, 유빈(藜賓=12울의 하나)의 주악을 연주하며 대하(大夏=하나라 우왕이 제정한 무악)의 노래와 춤으로 오헌(五獻)을 드린다. 물동이를 정결히 아침에 차려놓고 청주와 제물을 올린다.

후세에 또 왕의 작위를 더하니, 동해는 광덕왕, 서해는 광윤왕, 남해는 광리왕, 북해는 광택왕이라 예우하고 경의를 표하고, 제후로 하여금 나라 안 큰 산 큰 강에 제를 올린다. 우리나라의 동해신묘는 양양부 동쪽 십리에 설치하고 다스리는데, 정조 24년(1800년) 어사 권준(權峻)이 군과 현을 순찰하고 이르되 동해신묘를 보니 사당과 담장이 많이 퇴폐하여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 민가가 사당 가까이 들어 와 있으니 한꺼번에 철거하고 닭 개소리 들리지 않게 하고 엄숙한 산과 강의 제사에 사망에서 수재 한재 고통으로 기도하러 모인 것을 심히 나무라고 극진한 예로서 치제하게 하는 금령(禁令)으로써 법식을 내려주시기를 청하니 관찰사가 그 일을 주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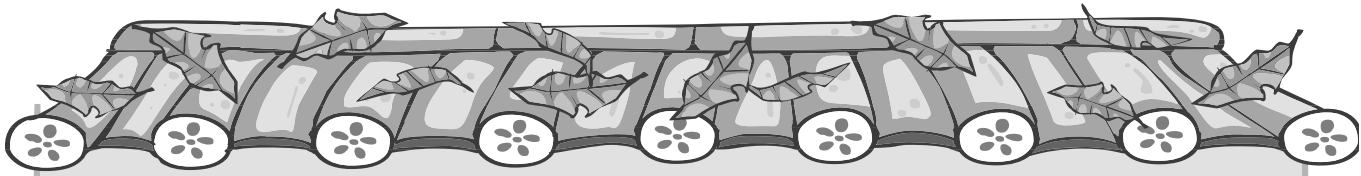
라 가히 교령을 내려 명하심에 신 남공철(南公轍)이 관동을 살피고서 삼가 예부에 일할 것을 자세히 알리고 나서 거행했으며 일을 다 마친 다음 역관(驛館)에 알렸다.

향축은 궁성에서 보내오고, 권준(權駿)을 차출하여 헌관으로 제사했다. 아! 질병으로 말미암았으니 슬프다 함은 사람으로서의 정이로다. 백성이 바다의 신을 보기를 부모와 같이 본다. 기도를 윤택하지 않았으나 항상 옳다하며 제사한다. 상사(常祀=정하여진 제사)로서 제사를 올리니, 저 어리석은 남녀는 황금과 비단을 가지고 와 장차 신으로부터 복을 구하고 아름다움을 구하고자하니 예는 더욱 불어 넘치며 누군들 심히 퍼지 않으리. 조정에서 금하게 하는 것은 이에 신(神)을 지극히 존중하고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니 일거양득이다. 드디어 그 일들을 돌에 새기어 기술(記述)하니 그 미혹한 것을 해명하게 되었다. 지극히 사당을 수시 수보(修補)하게하고 관리를 두어 보존하게 하고서 글을 새겨 이르노라.

사당은 크고 아름답고 담장은 곱게 꾸며졌네.
제기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규홀은 비단같은 옥이로다.
먼지 씻어내어 환하게 되었으니 드디어 자리에 안석을 설치했네.
신께선 흐뭇하게 드시고 신께선 이미 편안하시네.
어사는 동해를 순시하고 임금께 돌아와 아뢰었네.
산과 강에 제사하니 소망 데로 조용하네.

어리석은 백성들 넉넉하게 구하네.
버린 돈과 곡식을 거두고 오랜 세월 신에게 드리네.
예가 지나치게 불어 넘치면 신은 돌보고 흠향하지 않네.
국왕이 방백에게 명하여 지금부터 일을 시작했네.
칙서를 부사에 내리니 크게 상사를 이어가네.
이에 축첩을 알리고 이에 어사에 명했네.

국왕이 크게 밝히니 예로서 신을 섬기네.
이끌고 거느림이 바르니 이로서 백성에게 미치네.
백성 모두 큰절 올리니 신은 응당 은혜 베푸네.
무엇으로 보답 하오리까 우리들 백성의 은혜로다.
물고기 무리지고 곡식이 넉넉하네.
넉넉하고 풍성하니 늙은이들 장수하네.
오로지 억만년 이어서 바다와 물이 청안하네.



수많은 백성들은 모두가 태평하리.

정조 24년(1800년) 윤 4월 일 세움

〈2010年 4月 12日 又泉 李鍾禹 삼가 번역하다.〉

6) 양양향토지기록 중 동해신묘와 관련된 오해(誤解)와 해소(解消)

〈양주지[1990년발행] 잘못된 기록〉

40. 東海神廟

海廟의 확실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사기를 참고하면, 1360년(고려 恭愍王代)로 추정한다. 본래는 江陵 安仁浦에 있었는데, 1490년(成宗 21년 庚戌)에 水軍萬戶營이 현 襄陽邑 造山里에 移建하였다는 說이 전해지고 있으며 매년 2월과 8월에 제사를 지내는데, 關羽(관雲長)의 神位에 분향을 하고, 모든 山川에 제사를 지내며, 一切의 禮法이 중국 明나라 廣德王 예법을 따라 행하였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해소〉

- ▶ 고려사에 동해신묘의 창건 년대는 고려 숙종 7년(1102년)이전으로 추정함.
- ▶ 동해신묘의 창건된 땅은 양양이며 옮겨가거나 옮겨온 사실이 없다.
- ▶ 수군만호영을 따라 다니지 않으며 양양의 동해신묘는 나라의 단묘(壇廟)이다.
- ▶ 동해신묘의 신위는 동해의 신으로 봉하고 나라의 사전(祀典)을 준행(遵行)한다.
- ▶ 관운장에 분향하거나 중국 명나라 광덕왕 예법을 따르지 않는다.
- ▶ 제례에 관하여는 문헌비고(文獻備考) 등 오례의(五禮儀)를 상고하여 전통을 살려 이어가야 한다.

思親의 한시이야기

양양문화원장 양동창

어머니하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면 어머니를 찾거나 부릅니다.
자식을 위하여 사랑과 헌신으로 일평생을 어떤 희생도 감내하시는 어머니
여기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읊은 시 몇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1. 申師任堂의 思親

申師任堂(1504년 燕山君 10년 ~ 1551년 明宗 6년)은 조선 중기의 藝術家로 강릉이 친정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詩, 글씨, 그림에 모두 뛰어났으며 李珣의 어머니로 사대부 부녀에게 요구되는 덕행과 재능을 겸비한 賢母良妻로 칭송된다.

본관은 평산, 아버지는 己卯名賢의 한사람인 申名和, 어머니는 용인 李 씨로 思溫의 딸이다
효성이 지극하고 지조가 높았으며 어려서부터 經文을 익히고 자수에 능통했으며, 詩文과 그림 여러 편의 유명한 작품이 전하여 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漢詩는 思親, 踰大關嶺望親庭이 있고, 그림으로는 山水圖, 草蟲圖, 蘆雁圖 등이 전하여오고 있다.

특히 아들 울곡과 더불어 “세계최초의 모자 화폐 인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思 親 (어머니를 생각하며)

千里家山萬疊峰
천리가산만첩봉

천리라 먼 고향 만 겹 봉우리

歸心長在夢魂中
귀심장재몽혼중

꿈에도 안 잊히는 가고픈 마음

寒松亭畔孤輪月
한송정반고운월

한송정 가에는 외로이 뜬 달

鏡浦臺前一陣風
경포대전일진풍

경포대 앞을 부는 한 줄기의 바람

沙上白鷗恒聚散
사상백구항취산

갈매기는 모래톱에 모였다 흩어지고

海門漁艇每西東
해문어정매서동

고깃배들 바다위로 오고 가리니

何時重踏臨瀛路
하시중답임영로

언제나 강릉길 다시 밟아가

綵服斑衣膝下縫
채복반의슬하봉

색동옷 입고 어머니 슬하에서 바느질 할꼬

이 시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정을 읊은 시이다.

서울 시택에서 멀리 떨어진 고향에 대한 회상과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들어 나고 있으며 옛날 초나라의 老萊子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

초나라의 老萊子는 연로하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칠십이 넘었으면서도 색동저고리를 입고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재롱을 부렸다고 한다.

老萊子의 孝行記를 소개한다.



老萊子 孝行記

在人情理 必感衰年
재인정리 필감쇠년

사람은 정리가 있어 나이 많음을 탓하지

兒已老矣 親豈安然
아이노의 친기안연

자식도 이미 늙었거늘 부모마음 어찌 편할까

故昔萊子 思悅其親
고석래자 사열기친

그러기 옛적 노래자는 어버이를 기쁘게 하려 했지

顏俱百年 已且七旬
안구백년 기차칠순

부모나이 백 살이고 자신도 칠십인데

綵服爛斑 兒啼兒戲
채복란반 아제아희

색동옷 입고 아이처럼 울고 재롱부리니

白髮朱顏 春風和氣
백발주안 춘풍화기

흰머리 붉은 얼굴엔 춘풍처럼 화기가도네

다음의 踰大關嶺望親庭 시는 대관령 옛길 정상에 시비가 세워져있어 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머니 생각에 마음을 숙연케 한다.

踰大關嶺望親庭

慈親鶴髮在臨瀛
자친학발재임영

늙으신 어머니를 고향에 두고

身向長安獨去情
신향장안독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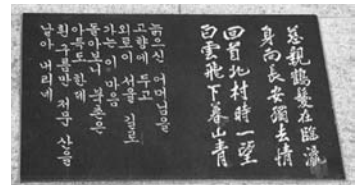
외로이 서울 길로 가는 이 마음

回首北村時一望
회수북촌시일망

돌아보니 북촌(고향마을)은 아득도 한데

白雲飛下暮山青
백운비하모산청

흰 구름만 저문 산을 날아 내리네





2. 김만중의 思親詩

西浦 金萬重(1637년 仁祖 15년 ~ 1692년 肅宗 18년)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광산, 자는 重叔, 호는 西浦, 예학의 대가인 金長生의 증손자로 아버지 益謙은 병자호란 당시 김상용을 따라 강화도에서 순절하여 유복자로 태어났으며 불행한 일생을 살다 가셨다고 한다.

1665년(현종 6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대제학 대사헌에 이르렀으나 유배 길에 자주 올라 남해의 절도에서 쇠여섯에 일생을 마쳤다. 유배 길에 자주 오른 것은 그의 집안이 서인의 기반위에 있었기에 치열한 당쟁이 있을 때마다 그 영향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이다.

서포 김만중은 송강 정철 고산 윤선도와 함께 한국 3 대 고전 문학가이다.

구운몽 사씨남정기 등 국문학사상 최고의 금자탑을 이루셨다.

우리나라 최고의 효자로 칭송받았으며 어머니 생신이면 시를 지어 바치셨다고 전한다.

다음의 시는 남해로 귀양 온 해에 어머니 생신 일에 지은 시로 어머니를 향한 애절한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려 붓을 던지고 말았다고 읊고 있다.

어머니 해평 윤씨는 “집안이 어려워도 낙담해서는 안 되며 공부를 그만두어도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고 한다. 김만중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하여 어머니를 향한 思親之念은 그의 무의식의 심연에 신비스러운 모성상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석 달 전이라고 하니 살아생전 마지막 생신날 쓰신 시로 마치 어머니와의 이별을 예감이라도 한 듯하다.



思 親 (어머니를 생각함)

今朝欲寫思親語
금조욕사사친어

오늘아침 어머니 그리는 말 쓰려하니

字未成時淚已滋
자미성시루기자

글자도 쓰기 전에 눈물이 넘쳐나네

幾度濡毫還復擲
기도유호환부적

몇 번이고 붓을 적셨다가 다시 던져 버렸으니

集中應缺海南詩
집중응결해남시

문집가운데 해남 시는 응당 빠지게 되네

어머니 해평 윤 씨는 명문 사대부 집안의 무남독녀 외동딸로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영특하여 여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열네 살에 시집을 갔으며 혼인한지 육년 만에 홀로 되셨다 이때 다섯 살 난 형이 있었고 만중을 잉태하시고 있었다.

어머니는 남편 따라 죽지 못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검은 옷 흰 옷만을 입으셨다.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몸에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잔치에 참석하거나 음악을 듣는 일도 없었다고 한다. 자식들에겐 공부를 안 하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며 학문을 독려했고 가세가 기울어 빈궁한 가운데서도 곡식이며 벼며 집안에 마지막 남은 것 까지 내다 팔아 책을 사주셨다고 전한다.

다음은 평안도 선천의 변방에서 어머니 편지를 받아보고 그리움을 노래한 5언 율시이다.

近 得 (근래에 받음)

近得慈親信
근득자친신

근래에 어머니 편지를 받아보고

衰年病疾嬰
쇠년병질영

노쇠한 나이에 병까지 들었다네.

極知難我送
극지난아송

나를 보내기 어려움을 아노니

何以慰傷心
하이위상심

무엇으로 어머니의 상심을 위로할까.

日暮城鴉亂
일모성아난

해 저물자 성에 까마귀 날아들고

天寒歷馬鳴
천한력마명

날씨가 차가워지니 마구간 말들이 운다.

浮雲無意緒
부운무의서

떠도는 구름은 아무 뜻도 없이

杳杳只東征
묘묘지동정

아득히 다만 동으로 떠나간다.

다음은 멀리 타향에서 꽃피고 새우는 새봄을 맞이하여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읊은 오언율시를 한수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雨 色 (비의 색)

雨色映林薄
우색영림박
花枝似故園
화지사고원
遙憐北堂下
요련북당하
新長幾叢萱
신장기충충
景炭山禽喚
경촉산금환
春陰野水昏
춘陰野水昏
摐音야수혼
瓊歌各自樂
경가각자락
遠客易消魂
원객이소혼

비색이 얇게 숲에 비치고
꽃가지는 고향의 꽃가지 같구나.
멀리 어머니 계신 집이 그리운데
원추리는 몇 포기나 새로 자랐을 까.
기우니 산새가 부르고
봄 그늘지니 들판의 물이 어두워진다.
밭가는 노래 제각기 즐겁고
고향 떠난 나그네는 쉬이 근심을 삭이노라.



3. 尹集의 除夜

尹集(1606년 宣祖 39년 ~ 1637년 仁祖 15년)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청나라와의 화의를 반대한 吳達濟, 洪翼漢과 같이 三學士의 한사람이다.

자는 成伯 호는 林溪 1631년(仁祖 9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설서 吏曹正郎 부교리를 지냈고 1636년 교리가 되었으나 斥和論者로 청나라에 잡혀가 1637년 瀋陽 西門 밖에서 吳達濟와 함께 處刑당했다 그의 나이 31세였다.

광주 節顯詞, 강화 忠烈詞 고령 雲川書院에 祭享되었다.

후에 領議政에 追贈되었으며 시호는 忠貞이다.

이시는 萬里 他鄉에서 어머니를 그리며 悽絶한 心情을 읊은 것으로 推定된다.

除 夜 (섣달 그믐날 밤)

半壁殘燈照不眠
반벽잔등조불면

깜박이는 등잔불에 잠은 안 오고

深夜虛館思悽然
심야허관사치연

깊은 밤 텅 빈집에 마음이 슬퍼지네.

萱堂定省今安否
훤당정성금안부

어머니는 지금 안녕하신지

鶴髮明朝又一年
학발명조우일년

늙으신 몸 내일 아침이면 한 살 더 드시겠네.

4. 吳達濟의 思親詩

吳達濟(1609년 光海君 원년 ~ 1637년 仁祖 15년)는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海州 자는 季輝 호는 秋潭으로 景閑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希文이고 아버지는 允諧이며 어머니는 崔亨綠의 딸이다.

尹集과 더불어 三學士의 한사람으로 1627년 司馬試에 합격하고 1634년(仁祖12년) 26세에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병조좌랑 등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으나 斥和論者로 尹集과 함께 청나라에 잡혀가 처형되었다.

思 親 (어머니를 생각함)

風塵南北各浮評
풍진남북각부평

남북풍진에 떠도는 부평초 신세

誰謂相分有此行
수위상분유차행

이번길이 헤어지는 길이라 누가 말 했소

別日兩兒同拜母
별일양아동배모

떠나던 날 두 아들이 어머님께 함께 절했는데

來時一子獨趨庭
내시일자독추정

돌아올 땐 한 자식만 마당을 서성이겠네.

絕去已負三遷教
절거이부삼천교

어머님 가르침 뿌리치고 떠난 자식

泣線空巷寸草情
읍선공항촌초정

혼자남아 바느질하며 자식걱정에 눈물짓는 어머니

關塞道修西景暮
관새도수서경모

이 몸 떠나는 변방 길은 새로 바뀌고 서산에 해 지는데

此生何路再歸寧
차생하로재귀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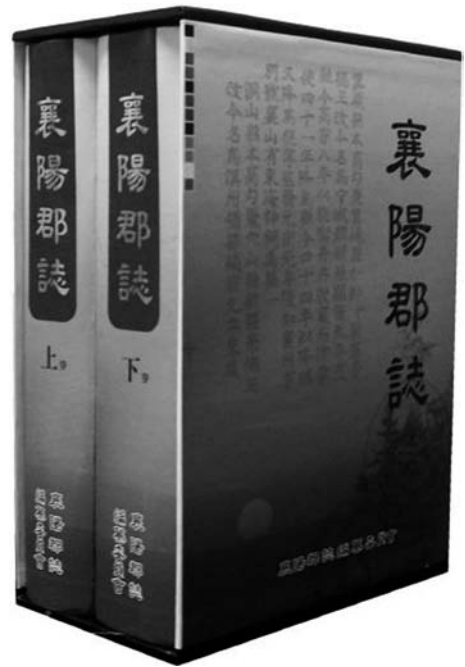
어느 길로 무사히 돌아와 어머님 뵈 수 있을까.

청나라에 잡혀가 돌아올 수 없는 몸으로서 작가 자신 때문에 어머니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혼자 남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읊은 시로서 다시 어머니 품에 안길 꿈도 꾸어보는 것이 절실하게 표현되어있다.

이상으로 어머니에 얽힌 한시이야기를 읽으면서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보고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은 생전에 못 다한 효도를 안타까워 하기도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은 좀 더 잘 모시겠다고 다짐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樹欲靜而風不止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子欲養而親不待 子息이 奉養하려하나 아버지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風樹之嘆(父母에게 孝道를 다하려고 생각할 때에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의 古事를 소개하면서 마치고자합니다.

양양군지 발간



1. 발간 목적

- 1990년 발간한 양주지(襄州誌)가 양양군지의 역할을 해왔으나 사회전반의 급변과 여러 차례 수해와 산불 등 많은 변화로 새롭게 증, 보 해야 할 시점에 이룸.
- 양양군의 역사, 문화, 행정, 경제, 예술 등 전반적인 분야를 집대성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며 군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양양군지 발간의 필요성 인식.

2. 양양군지 변천

먼저 양양군지를 대신할 이전 자료를 살펴보면,

가. 향토지라는 명칭으로

-1968년 처음으로 당시 양양군교육청에서 224쪽으로 발간.

-이어서 두 번째로 1976년 양양문화원에서 315쪽으로 발간.

나. 양주지라는 명칭으로 1990년 양양문화원에서 935쪽으로 발간.

다. 양양군지는 상, 하권 11편 부록 등 2,300쪽으로 구성 발간하였습니다.

3. 양양군지 발간 진행과정

가. 발간배경

○ 2008년 10월 양양문화원에서 양양군지 편찬 사업계획을 보고하여 2009년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시작

나. 사업추진 과정

- 2009년 2월 13일 양양군지 발간을 위한 전문가와 각계 인사 10명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첫 회의를 개최하여,
 - 양양문화원 양동창원장을 편찬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 연구소 이종우 소장을, 감사에는 전 강원도관광협회 김양식 부회장을, 위원으로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강릉원주대학교 장정룡교수, 강원도의회의원, 양양군의회의장, 최종덕 예총회장, 양양군청 기획감사실장, 양양군청 문화관광 과장등 10명을 위촉하여,
- 2009년 2월 13일부터 2010년 12월까지 10차례의 편찬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찬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숙의 하였으며,
- 2009년 12월 11일 양양군지 원고의 수정과 가,감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하여,
 - 위원장에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이종우 소장을 위원에는 강릉원주대학교 장정룡교수, 이규환 전 양양군청 기획감사실장, 김재환 전 양양도서관 디지털 자료실장, 김진하 현남면장(당시 문화관광과장), 김광영 문화원 사무국장 등 6명으로 구성.
 - 44명의 집필위원이 1년간 집필한 내용을 1년여에 걸쳐 편집 수정을 거쳐 발간하게 됨.
- 총 3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0년 11월말 발간을 목표로 하여, 문화원의 1층 창고를 임시 편집위원 사무실로 준비하여 각종 집기와 자료를 모아 편집위원 세분이 상시 출근하여(4월-11월) 편집 활동을 시작 하였습니다.
- 2010. 8. 26인쇄용역 계약 후 2010.11.25까지 5차례의 원고와 화보 수정을 거쳐 2010. 12. 1 양양군지를 발간하여 2010.12.20 출판기념회 개최.

4. 양양군지의 모습

가. 양양군지 표지

- 표지의 전면은

양양을 대표할 수 있는 일출의 고장임을 강조하여 의상대 일출을 배경으로, 양양군지 가로 글씨는 검정색 돌출 글씨와 세로 글씨는 은박의 돌출글씨로 돋보이게 하였으며, 앞면의 바탕에 깔린 글씨는 양양관련 역사를 처음으로 기록한 고려사의 양양 관련 내용을,

- 뒷면에는

선사문화의 꽃인 석기시대 토기류를 넣어 조화를 이루는 동시 8천년 양양의 역사를 상징하였으며 전체를 연고동색으로 바탕색을 깔아 고풍스럽게 구성 하였습니다.

나. 양양군지 상권

양양군지는 상, 하 2권으로 나누었으며

상권에는 발간사, 축간사, 양양의 상징, 고지도, 유적, 유물, 특산물, 청사, 사회기반시설 등의 화보와 함께 1,100여 쪽으로,

제1편 역사

제2편 자연 인문 환경

제3편 정치 행정

제4편 교육 종교

제5편 산업 경제

제6편 관광 체육으로 구성 하였으며,

다. 양양군지 하권

하권에는 역시 양양의 자연경관, 산지식물, 향, 포구, 천연기념물, 축제, 옛 생활상 등 화보와 함께 1,200여 쪽으로

제7편 민속 문화 예술

제8편 문화재 지명유래

제9편 건설 교통 재난 재해

제10편 보건 복지

제11편 성씨 인물.

부록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강원도지, 읍지 등에서 양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5. 양양군지의 기대

양주지를 증, 보한 20년만의 양양군의 역사,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양양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어 주는 종합 역사서로서 모든 군민과 늘 함께하며 사랑 받는 책으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르신문화학교 (38선길해설사과정)

1. 사업명 : 양양의 6.25와 38선 이야기

2. 사업추진방향

잊혀져가는 6.25전쟁의 아픔을 교훈으로 삼고 6.25당시 38선을 최초로 국군이 돌파 북진한 날을 국군의 날로 제정한 사실 등을 후세에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함.

- 양양군에서 6.25전쟁을 교훈삼아 38선길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38선 숨길 약38km를 조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 38선길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 해설을 함으로 국내 최적의 성공적인 숨길 조성에 공헌함.

- 38선길 탐방객을 대상으로 6.25당시 전쟁체험 세대로부터 체험담 전수

- 탐방로 주변 휴식 공간에서 6.25당시 음식문화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8.15광복이후 북괴 공산치하에 염증을 느껴 월남하던 피난길(디모테오길 포함) 을 현지체험

3. 사업 개요

· 기 간 : 2010.5 ~ 2010.11

· 장 소 : 양양문화원, 38선길, 38선 주변마을 등

· 내 용 :

1) 사업 주요 내용

- 8.15광복과 미국과 소련등의 열강에 의해 38선이 생기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당시 국내 상황
- 6.25전쟁과 관련한 당시 상황을 전쟁전 세대로부터 직접 전해듣고 6.25 당시 음식체험
- 6.25당시 동해안 38선을 우리 국군이 처음 돌파하여 복진한 날을 국군의 날로 정한 사실을 널리 전파
- 6.25를 전후하여 공산괴뢰 정권에 실증을 느낀 주민들이 인민군 초소를 피해 38선을 넘어 이남으로 다니던 길을 회상하고 체험
- 38선길 관련 6.25 또는 국군의 날 기념 행사시(또는 개최주관) 해설 및 안내

2) 단계별 진행 프로그램 세부 내용

- 1단계 : 문화예술교육내용, 강의계획 내용

- ① 38선이 생기게 된 역사적 배경에 관한 당시 사실부터 습득.
- ② 8.15광복이후 38선 이남과 이북의 당시 접경지로서의 상황을 지역 주민들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주민대상 교육
- ③ 6.25전쟁당시 국군이 동해안 38선을 처음 돌파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군의 날로 지정하게 된 역사적 배경
- ④ 6.25전쟁당시 음식인 보리개떡, 강냉이 죽, 막걸리등과 옥수수, 감자, 고구마, 콩 등을 현지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음식체험
- ⑤ 38선길에서 6.25또는 국군의날 기념행사 개최시 관광객에 대한 해설 및 안내 활동

- 2단계 : 지역(단체), 세대간 연계 활동 및 사회참여 계획

구 분	활동(연계) 계획
지역(단체)	· 양양군청 미래전략과의 38선 숨길 조성 사업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38선길과 관련한 각종 행사시 관련단체와 협조 체제 유지 · 38선길에서 6.25또는 국군의 날 행사 참여(또는 주관)
세대간	· 6.25전쟁과 관련하여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교육 · 38선길 방문자에 대한 해설로 38선길의 활성화는 물론 다시 찾고 싶은 길로 각인 시키는 기회로 삼음
사회참여	· 38선길 관련 행사 적극 참여(6.25또는 국군의 날 행사) · 38선길 출발장소 인근에 해설 활동을 위한 상설 안내소 운용 · 38선길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길의 대명사화

4. 기대 효과

1) 수강생

- 어르신 세대로서 사회 활동을 함으로 건강과 긍지를 만끽
- 지역의 특수성을 전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부여 받음으로 자긍심 고취
- 자기 계발의 좋은 기회

2) 지방문화원

- 어르신들의 체험담을 가미하여 지역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전세계 유일한 분단으로 국내 유일의 38선을 통해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
- 자치단체의 새로운 사업에 적극 협조하므로 성공적인 분위기 조성
- 어르신과 문화원간 교류 강화로 위상 강화

3) 지역사회

- 위와 같은 활동의 여파로 38선 기념관(가칭) 건립의 기초를 다지며 38선이 통과하는 인접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
- 지방자치 단체에 문화원의 기여도가 확대 되므로 자치단체와 유대 강화

탁장사



양양군 서면 송천리에는 전설적인 장사로 탁구삼이라는 인물의 일화가 전승된다. 이 마을에는 그 분의 후손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데, 현재 이 마을에는 탁구삼 장사의 8대후손인 탁원기씨를 비롯하여 10촌 내외의 친척들이 집성촌을 형성하고 있다. 해마다 현산문화제 때 관심을 끄는 탁장사뽑기는 조선후기로 그 유래가 올라간다. 홍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전국에서 쓸 만한 목재

를 모았는데, 당시 양양군 현북면 여성전2리 개자니골과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가마골 사이의 언덕 위에는 국유림으로 황장목이 있었다.

이곳이 양양과 강릉의 접경으로 양쪽에서는 나라에 바칠 나무를 베기 위해 이곳에서 부역을 하였는데, 공교롭게 제일 큰 나무가 경계선에 서 있었으므로 서로 차지하기 위해 내기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강릉에서는 연곡에 사는 힘세기로 유명한 권장사가 먼저 지고 일어서다가 그냥 주저앉자 양양 서면 소래[송천리]에 사는 탁구삼 씨가 이 나무를 지고 서림까지 내려오자 소래마을에서는 탁구삼 씨를 위해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탁구삼 장사의 이름이 알려졌으며, 매년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서 탁장사의 후계자를 뽑는 놀이가 이어져 왔다고 한다. 이때 장사가 난 마을에는 그 해 풍년이 들고 경사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1984년 제2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우수상을 수상하면서 현재는 현산문화제 때 탁장사뽑기를 개최하고 있다. 당시 이 장사놀이의 고증은 탁상호외 4명, 지도는 최종덕, 인원은 120명

이 참가하였는데, 해설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말엽 이곳에는 천하장사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여러 가지 힘내기에서 이겨 양양 제1의 역사(力士)로 널리 알려졌다. 그가 죽은 후 양양 서면 마을에서는 탁장사의 님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탁장사의 후계자를 뽑는 놀이를 하였는데, 큰 원목을 지게에 올려놓고 제일 멀리까지 지고 가는 사람을 제2의 탁장사로 칭하여 주는 동시, 양양 제1의 장사로 칭호, 지게로 만든 가마에 태워 축하해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마을이 축제분위기였다고 한다. 이렇게 할 때마다 매년 풍년이 약속되었고, 마을의 영화와 국태민안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사라졌다가 송천리 마을 노인들의 고증과 이 지방 사람들의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발굴 출연하였다.

이와 같이 발굴되어 양양에서는 탁장사의 후계자를 뽑는 탁장사 놀이가 지역의 민속놀이로 전한다. 탁구삼 장사의 일족은 본래 오색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탁장사 후손들이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와 양양군 서면 송천리 등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현재 탁구삼 장사의 묘소는 토성면 성천리에 있다. 지역에 전하는 유래에 의하면 탁장사의 출생 비밀로 당시 오색 장군바위 맞은 편에 묘를 쓰면 장사가 탄생한다는 설을 믿고 묘자리를 그곳으로 옮긴 후에 탁구삼 장사가 태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가 계속 장사가 날 것을 두려워하여 장군바위를 깨뜨렸다고 한다.

탁씨 후손들은 오색2리 관토마을 뒤에 위치한 탁씨 시조산소에 매년 시제를 드리고 있으며, 탁구삼 장사의 묘소가 있는 토성면 성천리에서도 탁장사 기일에 제를 올리고 있다. 양양지역에서는 탁장사의 구전설화를 바탕으로 탁장사 뽑기대회를 하는데, 무거운 통나무를 지게에 싣고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을 탁장사 후예로 선발하고 있다.

양양 탁장사 설화는 인물전설에 관한 연구에 해당된다. 전설은 일정한 민족 혹은 지방에서 민간에 의해 내려오는 설화인데, 신화가 신격중심이라면, 이것은 인간과 그 행위를 주제로 한 이야기다. 인





물전설은 ‘구비상의 전(傳)’ 이므로, 전기적(傳記的) 유형 또는 일대기적(一代記的) 유형을 띠고 있다. 일대기적 유형은 한 인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요한 행적을 다루는 것으로 통시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명문거족이 있으므로 인물전설은 자기 선조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야기되거나, 자기 고장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므로 전설은 역사적 성격과 역사구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르라는 점에 주목하여 구술역사와 개인사 또는 생활사를 드러내는 기능의 측면에서 탁장사 전설의 개인사적인 측면과 지역생활사를 연계시켜 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설과 민담을 구별지을 수 있는 것은 화자나 청자가 그 이야기의 사실을 신빙하며, 증거물이나 기념물이 있다든가, 역사에서 전설화하거나 역사상 가능성이 있고, 일정한 정형이 없는 이야기 방식이다. 탁장사 설화는 이른바 힘자랑유형, 힘겨루기형의 ‘이기고 지는’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전설적인 인물로 형상화되어 태생에서 명당과 관련된 비범한 탄생이라는 ‘영웅의 일생’ 유형구조를 지니고 있다.



장사 구납(具納)


양양의 열전에는 다음과 같은 장사이야기가 전한다. 임거정이 해면에서 날뛰어 관원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양양 땅에서는 이경래라는 자가 떼를 지어 관민을 괴롭혀 약탈을 일삼고 있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임거정 일당을 잡기에도 동분서주를 해야 할 참인데 이경래가 또 날뛰고 있다하는 엇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더욱

이 임거정이나 이경래는 다같이 천하의 장사여서 웬만한 힘으로는 이를 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 인재난을 겪고 있을 때였다. 이 시기에 힘이 센 구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힘도 세려니와 담도 컸으며 풍채도 좋아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호걸이라고 일컫었다.

한때는 무과로 주부벼슬을 지낸 일도 있으나 상사와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퇴관하여 야인으로 있었다. 나라의 형편이 이렇게 어지럽게 된데다가 도적들의 세가 워낙 크니 “내가 그들 도적의 무리를 잡아 오겠소”하고 선뜻 나오는 사람이 없어 조정에서는 중신회의를 열어 장사를 천거하라고 하였다. 그 회의에서 이경래를 토벌하기에는 구납이 좋겠다하여 그가 지목받게 되었다. 상감은 그를 친히 불러보고 그 자리에서 선전관을 제수하고 암행어사를 겸하게 하였다. 구납은 오랫동안의 야인생활을 청산하고 관선에 오르게 되니 즐겁기는 하나 한편 대명을 맡고 있어 그 수행에 근심이 없지도 아니 하였다. 그는 이경래 토벌에 관하여 이 궁리 저 궁리하다가 우선 자기를 도와 자기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부하장사가 있어야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인물을 물색하였다. 그때 장안 포교 중에 힘센 장사인데다 도적 잘잡기로 유명한 변시진이라는 사람이 우선 머리에 떠올랐다. 변은 서울의 도적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의 인물이었다. 그는 변교리를 찾아가 이번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동행하기를 승낙을 받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장안의 건달두목이던 임완석을 찾아 협력을 구했다. 그도 “동행하겠다.”하기에 든든한 수족을 얻어 날짜를 정하여 양양으로 향해 떠났다. 이때 조정에서는 이들이 양양에 가서 활동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구납의 삼촌을 양양부사로 발령시켜 주었다. 일행이 같이 길을 떠나기는 했으나 양양부사의 행차는 정장을 했고 구납 일행은 광대차림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경래 토벌의 선전관임을 알아차릴 수 없는 행색으로 길을 떠났다. 그들 일행은 임지인 양양에 도착하여 산정에서 연회를 베풀고 그 고을에서 유지행세를 하는 모모한 인사들을 다 초청하였다. 그 모임 중에 풍채 좋고 말 잘하는 사람이 유독 눈에 띄었다.

구납은 그 사람에게 눈독을 들이고, 그 옆에 가서 술을 은근히 권하였다. 밤새도록 연회를 하다보니 다른 사람들은 다 술이 취하여 인사불성의 처지에 이르렀다. 구납이 풍채좋은 그 사람의 손을 비틀고 칼을 뽑아 가슴에 들이대면서 “너 이놈, 네 놈이 이경래지”하고 호통을 쳤다. 이 돌연한 행동에 놀란 그는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했다. 그러자 “이놈 나는 어명으로 너 경래를 잡으러 온 사람이니 내 칼을 받아라”하고 대들었더니 자기는 이경래가 아니고 이경래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구납은 그 “도적놈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일전 이곳에 와서 신관사또가 부임한다는 소리를 듣고 탐지하러 왔다가 금강산으로 들어간다고 여기를 떠났다”는 것이다. 구납은 이 말을 듣고 “네가 이경래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행적도 알고 있으니 너도 그와 내통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경래를 잡는데 협조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너는 삼족을 멸할 것이니 그리 알고 협조하라”고 그의 협조를 다졌다.

다음날 구납은 삼인의 동행자를 데리고 금강산 일대를 다니면서 장구와 북을 울리고 좋은 목청으로 노래까지 부르며 “우리는 서울서 금강산 구경 온 광대들로 이곳에서 며칠 공연을 할 것이니 노래를 들으러 오라”고 선전하며 다녔다. 금강산에 유람 온 사람들은 장안명창이 왔다는 말에 모두 모여들었으나 그 중에도 이경래는 보이지 않았다. 일행은 외금강에서 내금강 장안사까지 거쳤으나 끝내 찾는 이경래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근심에 잠긴 구납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장안사 앞마당을 거닐었다. 한밤중에 나와 이 궁리 저 궁리를 하다가 장안사 앞산을 바라보니 산중턱에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이상히 여겨 한걸음 두 걸음 그 불을 찾아가 보았다. 조그마한 움막 한 채가 있기에 문을 열어보니 중 한 사람이 당황해하며 무릎 밑에 무엇인가를 감춘다. “당신은 누구길래 이 밤중에 이곳에 왔소?” 하고 묻기에 “나는 서울서 온 광대하고 잠이 안 와 절 마당을 서성거리다가 이곳에 불이 있기에 찾아 왔소”라고 대답했다. 중의 무릎을 살며보니 보통 사람은 신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가죽신 한 짝이 보였다. 구납은 저렇게 큰 신을 신을 사람은 이경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놈, 그 신은 이경래의 신이지. 나를 숨길 수 없다. 나는 서울서 임금의 명을 받아 이경래를 잡으러 온 사람이다. 네가 이경래를 잡는데 협조하면 나라에 알려 상을 줄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네 놈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어서 바른대로 대어라”하고 으박 질렀다. 중도 할 수 없다는 듯 단념하고 자기에게 도적을 잡을 대책이 있다면서 “이경래는 본시 노래를 좋아하며 장안사에 장안명창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저에게 신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신을 찾으러 모레 이리로 오게 약속을 하였소. 그때 나리께서 이곳에 와서 노래를 불러 흥을 돋구어주면 술을 좋아하는 성미에 더욱 술을 많이

먹을 것이요. 대취한 뒤에 결박을 지으면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다. 구납도 호쾌한 장부로서 이경래의 일대일 대결을 하고 싶었으나 만약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저지르까 두려웠다.

그는 데리고 온 사람을 양양부사에게 급히 보내 날썬 군졸 50명만 얻어 오라하여 거사 전에 이들을 번복시켜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놓았다. 약속한 이경래는 산에서 내려와 신을 찾으러 왔다. 중은 “신이 좀 덜되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그동안 심심하면 마침 준비된 술도 있고 하니 명창을 불러 노래나 듣자”하였다. “이경래도 승낙하기에 중은 장안사에서 올라오는 길을 보고 일행이 많으면 수상하게 여겨 도망칠 터이니 나으리하고 저하고 단 두 사람만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자고 하고 두 사람만이 장안사를 떠나 산사 움막으로 올라갔다.

잠시 후 주안상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서로 대좌하였다. “그대가 장안명창이라지?”, “네, 명창이랄 것은 없어도 소리마디나 합니다. 노래 중에서 무슨 노래를 잘하는가?”, “네, 권주가가 특기이니 권주가부터 하겠습니까.”하고는 소리를 뽑았다. 워낙 목청도 좋은 데다가 이 자리가 특별한 계략이 있는 자리라 평소보다 더욱 잘하였다. 술맛 좋은 데가 노래마저 좋으니 흥에 겨워 이경래는 연거푸 잔을 비웠다. 주거니 받거니 하다보니 이경래는 도연히 취하여 갔고 구납은 긴장한 탓으로 취기가 없었으나 일부러 취한 척하였다. 이러한 동안에 이경래는 취기에 못 이겨 옆으로 넘어지자 구납은 소매속에 감추었던 철퇴를 뽑아 내리쳤다. 이경래는 술이 취하기는 하였으나 철퇴 한 대를 맞고 벌떡 일어나더니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 나갔다.

구납은 그 뒤를 따르며 “이놈, 네 놈이 힘깨나 쓴다고 그 힘을 믿고 농사짓는 시골 백성을 괴롭히며 나라의 명을 어겨 왔으니 네 놈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를 따랐다. 취중이기는 했지만 힘이 장사인데다가 사세가 급하게 된 이경래는 산으로 도망치다가 근처에 매복하고 있던 양양군졸들에게 잡히고 말았다. 다음날 구납은 이경래를 결박하여 서울로 압송하여 금부옥에 가두고 “상감의 명이 아니었던들 이경래와 힘내기를 한번 해보는 건데 잡기는 잡았으나 힘으로 못 잡고 계교로 잡은 것이니 천추의 한”이라고 말했다.



강원 양양 수동골 상여소리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연 대통령상 수상]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

- 일시 : 2010. 10. 11
- 장소 :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 출전 : 2008년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으로 강원도 대표로 출전



1. 발굴 재현

양양군 남단부에 위치한 현남면 입암리를 중심으로 화상천이 흐르고 화상천을 발상지로 한 유역에는 들판이 펼쳐져 상하 좌우로 예부터 예닐곱 촌락이 형성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수동골은 서로 인접하여 마을이 형성된 관계로 예부터 늘 왕래하며 농경과 관혼상제 등을 함께하는 이웃 생활권으로 오늘날까지도 유지 이어 오고 있다.

이 수동골은 보수적이고 전형적인 농촌 전통마을로 지형적인 고립과 영농의 기계화로 인한 영농 방법의 변화, 행정구역의 변동, 교통 불편 등으로 유동인구와 외지인구의 유입이 적었고 영농방법의 변화, 관혼상제, 생활풍속 등의 현대화가 아주 늦었던 관계로 전통 민속의 희석이나 변질, 변형 없이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온 마을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고유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어 온 마을이다.

수동골 상여소리는 입암리 지역에 밀양두라고 하는 상두계(상여를 매는 사람)에 의하여 전통장례 방법으로 장사를 지내는 과정을 재현하였으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입암리 지역에서는 밀양두의 상두계가 운영되었다.

호상과 악상을 고려하여 선드래 놀이를 하는 아량도 있으며 절차마다 불리지는 수동골 상여소리는 망자를 애도하고 명복과 내세를 기원해 줌은 물론 상두꾼들이 상여를 메고 소리로 망자가 집을 떠나게 하고 산과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좁은 다리, 끊어진 다리를 건너고 봉분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다.

수동골 상여소리는 상여가 집을 떠나 봉분을 완성할 때까지 절차마다 부르는 초초소리, 이초소리, 삼초소리, 하직소리, 상여가는 소리, 달회소리, 달구소리로 구성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죽음에 초연했던 것은 극락왕생의 내세관을 믿었기에 상두꾼들의 애절한 만가는 망자의 애도와 명복을 비는 것은 물론 상주와 가족을 위로하고 망자의 왕생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고증해 주었다.

그러나 근래에 장례문화의 변화로 전통 장례 방법으로 장사를 지내는 집은 없어 매장 전통 장사의 절차나 상여 이동 방법, 봉분을 만드는 방법, 상여소리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되었으며 사라져갈 위기에 처해 있어 수동골 입암리 지역 상여소리의 보존 전승을 위해 발굴·재현 하였다.

가. 출연현황

- 1) 발굴 자료 재현 연출지도 : 최 종 덕 (양양군 전통민속 보존회장·양양군 예총회장)
- 2) 고증 : 김진탁 (91세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입암리)
윤병수 (91세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입암리)
윤형진 (73세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입암리)

3) 선소리 : 김진탁 (91세)

김용우 (65세)

초초소리, 이초소리, 삼초소리, 하직소리, 상여가는소리 (행상소리), 달회소리, 달구소리

4) 출연인원 : 64명

- 상두꾼 : 21명 (선소리꾼 요요 포함)
- 명 정 : 1명
- 수 건 : 1명
- 만 장 : 20명
- 상 주 : 8명
- 복 인 : 3명
- 지계꾼 : 3명
- 지 관 : 1명
- 음식제수준비 : 5명

2. 구성 및 연출

수동골 상여소리의 구성 및 연출 과정은 수동골 입암리 지역의 전통장례에서 장사를 치르는 과정 중 상두꾼들이 절차마다 부르는 소리를 중심으로 상두꾼들의 소리와 함께 장사를 지내며 치르는 과정으로 구성 연출하였다.

수동골 상여소리는 드장날 밤 상두꾼들의 선드래 놀이를 시작으로 상여가 장지까지 여러 형태의 다양한 길을 소리를 하며 가는 과정과 장례 절차에 따라 상두꾼들이 여러 가지 만가를 부르며 장사를 지내는 과정을 재현 하였다.

수동골 상여소리는 드장날 저녁 선드래 놀이가 끝나고 이 밤이 지나면 망자의 떠남을 예고하는 초초소리 (초초 아뢰), 장사날 아침에 부르는 이초소리, 상두꾼들이 상여를 주위에 상주와 둥그렇게 서서 상여가 곧 떠남을 알리는 삼초소리, 상두꾼들이 상여를 메고 상여가 상주와 집을 향해 절하며 부르는 하직소리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집을 떠난 상여가 장지까지 이동하며 부르는 거리소리인 상여가는 소리 (행상소리)로 산이나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넘어가야 하고 좁은 외나무다리를 건너고 끊어진 다리를 건너는 과정을 상여가는 소리와 함께 연

출 하였다.

그리고 헛가루와 마사토를 섞어 다지는 달회소리와 봉분을 쌓아 올리며 부르는 달구소리로 이어진다.

특히 수동골 상여소리에서 상여가 산이나 언덕길을 오르고 내리며 외나무다리를 건너 끊어진 다리를 건너는 과정은 상두꾼들의 상여소리로 협동심, 일체감, 균형감을 유지하게 하여 건너게 하고 많은 경험과 숙달이 필요한 상두꾼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아슬아슬하고 멋지고 보기 좋은 묘기에 가까운 과정이다.

끝으로 장사의 마지막 절차인 상두꾼들이 건을 벗고 손을 씻어 복을 벗는 다는 의미의 복 벗기를 한다.

그리고 감사하고 위로하는 의미로 상두꾼은 장사를 모두 끝냈으므로 상주와 상두꾼이 맞절을 하는 복 벗기 과정을 연출 하였다

3. 수동골 상여소리 연출과정

가. 초초소리

초초소리는 수동골 전통장례 절차에서 가장 먼저 부르는 상여소리로서 드장날 저녁 저녁식사 후 선드래 놀이가 끝나고 상두꾼 및 장사꾼들에게 떡국으로 밤참을 대접하는 떡국 적기를 마치고 음식을 봉지에 넣어 상두꾼들에게 나눠주는 봉개를 배포한 후 하는 소리이다.

초초소리는 선소리꾼이 “초초아됩니다.”하고 큰소리로 삼세번 고한 후 선소리꾼의 긴소리를 받아 상두꾼들은 뒷소리를 받아 부르게 된다.

이렇게 세 마디의 초초소리가 시작되면 상주들은 곡을 멈추었다 소리가 끝나면 더욱 슬프고 애달프게 곡을 하며 상두꾼들과 절을 한다.

상주들은 큰절로 상두꾼들은 두 손을 포개는 공수한 자세의 반절로 맞절을 한다.

나. 선드래 놀이

수동골 지역의 전통장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선드래 놀이는 상두꾼들이 벌이는 특이한 놀이로서 장사 전날 저녁인 드장날 밤에 저녁 제사가 끝나고 저녁식사 후 밀양두인 상두계로 상두꾼을 조직구성한 후 하는 놀이이다.

상두꾼들은 사위나 복인들은 매달며 웃음을 이끌어 내는 오락적인 요소가 내포된 상주와 장사집의 슬픔을 달래 주는 과정으로 펼쳐졌던 놀이이다.

선드래 놀이는 상두꾼들이 상여를 메는 연초대 세 개를 삼발로 묶고 그 위에 가로대를 설치 마당 명석자리

에 세우고 복인들을 십자가 형태의 가로대에 양팔을 묶어 상하전후로 흔들며 고통을 주는 아리랑 달기를 한다.

아리랑 달기는 연초대에 매단 복인의 양팔을 상하전후로 흔들어 마치 아리랑에 맞춰 춤을 추는 형태로 고통을 준다고 붙여진 이름이라고한다.

선드래 놀이에서는 주로 사위를 많이 달며 상주는 절대로 매달지 않는다.

“선드래”는 선소리꾼이 상두꾼을 부르는 호칭으로 선소리꾼인 계수가 “선드래”하고 호령하면 상두꾼들은 “예예”하고 대답하고 상두꾼 계수가 지명하는 복인을 데리고 와 매달며 담배, 음식 등의 물품을 받아내는 놀이이다.

이렇게 벌이는 선드래 놀이는 복인들로부터 받아 낸 담배, 음식을 되도록 많이 상두꾼들에게 배분·대접하도록 한다.

다. 이초소리

이초소리는 장사날 아침 빈소 앞이나 가매장 해놓은 앞에서 상주의 곡과 함께 상두꾼들이 부르는 소리고 곧 상여를 타야 한다는 망자에 예고하는 절차의 소리이다.

상두꾼들은 상여가 가는 거리와 하관 시간에 맞춰 아침식사를 하고 상여를 꾸미게 된다.

이초소리는 장사날 아침 빈소 앞이나 가매장으로 모셔놓은 장소 앞에서 짐을 싣기 전 상주는 곡을 하고 선소리꾼의 긴소리로 앞소리를 메기면 상두꾼들은 뒷소리를 받아 부른다.

이렇게 이초소리도 삼세번 세 마디만 부르게 되며 상두꾼들은 소리가 끝나면 반절로 망자에 대한 예를 올린다.

라. 삼초소리

상두꾼들은 이초소리가 끝난 후 관을 옮겨 상여틀 위에 올려놓는다.

이러한 과정을 수동골 지역 상두꾼들은 짐(관)을 신는다고 표현한다.

마당가에 설치해 놓은 상여틀에 짐을 싣고 묶은 후 단경을 덮고 청천을 친 후 줄로 단단히 묶는다.

모든 장식을 설치 그 위에 광목을 띄우고 상여가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렇게 상여가 하관 시간에 맞춰 떠날 준비가 되면 상주와 상두꾼들은 상여를 향해 둥그렇게 마주보고 서서 삼초소리를 하게 된다.

선소리꾼이 “삼초아웁니다.”하고 세 번 고한 뒤 “한번 가는 우리 인생 설위마라 설위마라 미리미리타불”하고 긴소리인 선소리꾼의 메김 소리를 받아 상두꾼들의 뒷소리로 이어진다.

이렇게 삼세번 세 마디의 소리가 끝나면 상여를 들어 어깨에 멘다.

이 삼초소리는 상여가 생시 살던 집을 곧 떠나게 된다고 망자에게 알리는 과정의 절차이다.

마. 하직소리

하직소리는 망자를 실은 상여인 행상이 평생을 함께하며 살아 온 정든 집과 상주들에게 이제 떠남을 알리며 작별하는 소리로 상주와 상여가 절을 올리는 과정의 절차이며 망자가 하직한다고 하여 이 소리를 하직소리라 한다.

하직소리를 할 때에는 상여를 메고 집을 향해 상주들과 마주보고 소리를 하며 상주와 상두꾼들이 맞절을 하게 된다.

상여와 상두꾼의 움직임은 선소리꾼이 메김 소리를 할 때에는 제자리에 있다가 “우”하고 상두꾼들이 뒷소리를 받을 때 대여섯 걸음 걸어 나가며 상여의 앞쪽 앞구짚이들이 한쪽 무릎을 굽혀 상여 앞채를 낮춰 상주와 맞절을 한다.

선소리꾼과 상두꾼의 구슬프고 애달픈 하직소리로 상주와 상여가 절하는 장면에 슬픔이 더욱 북받쳐 상주는 물론 상가의 모든 조문객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바. 상여가는 소리(거리소리)

상여가 하직하고 집을 떠나 다양한 형태의 길을 가며 부르게 되는 상여가는 소리(거리소리)인 행상소리는 메김 소리인 선소리꾼의 앞소리와 상두꾼들의 받음 소리인 뒷소리를 이어 부르게 된다.

상여가 집을 떠나 장지로 가는 길은 주로 망자가 잘 다니던 길이나 전답이 있는 곳을 거쳐 가기도 하며 친인척들의 노제도 지내나 시간 및 연출 상 재현을 생략 하였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 진다 설워마라 명년삼월 돌아오면 너는 다시 피련마는 한 번가는 우리 인생 이제 가면 언제 오나”하는 선소리꾼의 애절한 만가는 죽음을 애달퍼 하며 망자의 떠남을 달래는듯하기도 하다.

상여가는 소리는 앞소리를 받는 상두꾼들의 뒷소리가 상두꾼들의 다양한 음색의 조화로 애절하고 구슬픈 자연적 화음을 이루며 멀리까지 퍼져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하고 명복을 비는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고 한다.

사. 산이나 언덕길 넘어가기

옛 전통장례의 분묘 매장 문화는 근거리 있는 가산의 묘자리를 마다하고 멀리 심산계곡을 찾아서라도 명당을 찾아 조상을 모시기를 원하였다.

상여가 멀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은 흔한 일이었으며 상여가 언덕길을 오르고 내려갈 때 고개를 넘을 때 상두꾼들의 자세와 역할은 위치마다 달라 경험과 요령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여가는 소리인 행상소리는 농요와 노동요처럼 힘을 모으고 일체감으로 상여의 균형을 잡으며 집중력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어떠한 길도 갈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상두꾼들은 강조한다.

상여소리가 없으면 집중력이 분산되고 협동심이 무뎌져 일체감과 균형감을 잃고 상여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따라서 대형소품으로 상여가 산을 넘고 구렁을 지나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험한 길을 재현 연출한 것은 수동골 상여소리의 역할을 확인 강조하려고 구성 재현하였다

아. 외나무다리 건너기

옛 시절에는 마을의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었던 쪽다리나 외나무다리를 상여가 건너가는 장면을 재현 연출하였다.

외나무다리를 건널 때는 무게의 중심을 다리 가운데인 상여틀에 두고 좌우 상두꾼들의 힘과 무게의 균형이 맞아야 하며 좌우 상두꾼들의 자세가 역삼각형 형태로 균형을 유지하며 다리를 건널 수 있다.

외나무다리 건너기는 소리에 발을 맞춰 발을 내딛으며 일체감으로 호흡을 맞춰야 상여가 중심을 잡고 균형을 이루며 이동 할 수 있으며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자. 끊어진 다리 건너기

옛날 전통장례의 상여가는 길은 험하고 다양하여 끊어진 다리, 넓은도랑, 구렁진 곳이 많아 상두꾼들이 발을 물에 적시지 않고 건너가는 장면을 재현·연출하였다.

상여가 끊어진 다리를 건널 때에는 앞구짚이는 뒤로 물러나며 앞 의관만 먼저 상여 앞채 머리에 매달려 건너간 다음 앞의관이 상여 앞채머리를 받쳐주며 1장부터 차례로 상여틀가락에 매달려 건너가게 되는 묘기 같은 힘든 장면이다.

끊어진 다리 건너기는 체력을 바탕으로 요령이 필요하며 상여가는 소리에 동작을 맞춰 일체감으로 상여의 전후좌우의 중심을 잡아 균형을 유지하며 건너가야 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재현하였다.

차. 달회소리

청광자리에 하관을 한 후 관위 횡대목을 깔고 황토마사와 회를 잘 혼합하여 덮을 흙을 다지며 부르는 소리를 달회소리라 한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관위의 흙이 무너지지 않게 황토마사와 회를 섞어 발과 연초대로 잘 다져 관위 횡대목을 덮어 굳게 하는데 필요한 흙을 다지는 과정의 소리이다.

상두꾼들의 뒷소리가 “어허 달회야 하여 달회소리라” 하며 달회소리는 먼저 느린 가락의 긴소리를 세 마

디하고 선소리꾼과 상두꾼이 메기고 받고 하며 빠른 자진모리가락으로 달회소리를 한다.

이 소리는 관 위만 덮은 적은 양의 흙을 다지는 소리로 관이 들어갈 청광자리 옆에서 7~8명 정도만 참여 짧은 시간 동안만 달회소리를 한다.

카. 달구소리

수동골 전통장사에서 상두꾼들의 장사 절차 중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로 묘의 봉분을 쌓아 올리며 하는 소리이다.

봉분을 만들 흙을 덮어 놓고 연초대를 잡고 왼발 오른발 번갈아 가며 달구소리에 맞춰 봉분을 다진다.

달구질은 달구꾼들의 일체감과 정확한 동작으로 발을 맞추며 해야 힘도 덜 들고 능률적이라 한다.

선소리꾼은 달구질꾼들의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더욱 애절하면서도 신명나게 메김 소리를 하면 달구질꾼들도 저절로 신명이 나서 절정에 이르게 되며 두 번 세 번 단계별로 봉분을 쌓아 올리게 된다.

달구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으나 연초대를 좌우 어깨위로 넘겨 흙을 짚어 다지며 왼발 오른발을 연초대에 맞춰 번갈아 밟아가며 다져야하므로 체력과 운동감각이 요구되며 율동성과 일체감으로 연속적인 동작이 필요한 힘든 일로 숙달이 필요하다고 한다.

보통 상두꾼 16명 전원이 참여하나 서툴러 참여 못하는 상두꾼도 있다고 한다.

타. 복 벗기

끝으로 장사의 마지막 절차인 상두꾼들이 건을 벗고 손을 씻어 복을 벗는다는 의미의 복 벗기를 한다.

장지에서 장사일이 끝나면 상두꾼들은 장사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게 된다.

마당 명석자리 가운데 상을 놓고 상위에 물동이와 수건을 준비해 놓으면 상두꾼들은 먼저 건을 벗어 상위에 올려놓고 물동이에 손을 씻는다.

상두꾼들도 건을 쓴 복인으로 장사를 치렀으므로 장사가 모두 끝나 건을 벗어 복을 벗는다하여 복 벗기라고 한다고 한다.

상주는 장사를 잘 지내게 해준 감사의 뜻으로 상두꾼들은 장사지내는 임무가 끝났다는 의미로 상주와 상두꾼들은 감사와 위로의 맞절을 하는 복 벗기 과정을 연출 하였다.

4. 수동골 상여소리 사설

가. 초초소리(초초아림)

- 1) 초초아웁니다(선소리꾼이 고향)
- 2) 초초아웁니다
- 3) 초초아웁니다(삼 세 번)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 (선소리꾼의 메김 앞소리)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 (상두꾼들의 받음 뒷소리)

아~어 등 돌아나니 백발이로다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아~ 어~ 무명 못혈 죽음이오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나. 이초소리

- 1) 이초아웁니다(선소리꾼이 고향)
- 2) 이초아웁니다
- 3) 이초아웁니다(삼 세 번)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 (선소리꾼의 메김 앞소리)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 (상두꾼들의 받음 뒷소리)

아~ 어 가자 가자 찾아가자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아~ 어~ 천하 명산 어디메냐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다. 삼초소리

- 1) 삼초아웁니다(선소리꾼이 고향)
- 2) 삼초아웁니다
- 3) 삼초아웁니다(삼 세 번)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 (선소리꾼의 메김 앞소리)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 (상두꾼들의 받음 뒷소리)

아~ 어~ 한번 가는 우리인생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아~ 어~ 설워마라 설워마라

아~ 어~ 어어~ 미리 미리 타~불

라. 하직소리

아~ 어~ 어어~ 우~ 여~ 어어~ (선소리꾼의 메김 앞소리)

아~ 어~ 어어~ 우~ 여~ 어어~ (상두꾼들의 받음 뒷소리)

아~ 어~ 신 사당에 문안하고 구 사당에 재배하야

아~ 어~ 어어~ 우~ 여~ 어어~

아~ 어~ 하직이요 하직이요 인간 하직 망극하여이다

아~ 어~ 어어~ 우~ 여~ 어어~

마. 상여가는 소리(거리소리)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 설워마라 : (선소리꾼의 메김 앞소리)

어~ 호 어어~ 호호 어이 넘자 어~ 호호:(상두꾼들의 받음 뒷소리)

명년삼월 돌아오면 너는 다시 피련마는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어제는 청춘 오늘은 백발 그 어느덧 늙어간가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여보시오 소년들아 이내말씀 들어보소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젊다고 자랑을마라 다시오기도 어려워라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인제가면 언제오나 월통해서 못가겠네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정월이라 십오일에 망월하는 소년들아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음풍도 보련마는 부모봉양 잊지마라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누덕으로 나왔느냐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삼신산에 불사약을 구하러 보냈더니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소식조차 동결하여 사후련대 저문날에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예산황초 뿐이로다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우리조선 십삼도에 삼신산이 어디메냐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강원도라 이십육관 명승지가 어디메야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금강맥이 비봉하여 명산을 이뤘구나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권자 낙조가 여기로구나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무정소세월 여류하야 어언간에 백발이라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부모은덕 모르리라 부모은공 모르리라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아침나절에 성튼 몸이 저녁 무렵 병이 들어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인간세상 하직이요 인간하직 웬말이냐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실날같은 약한 몸에 태산 같은 병이 드니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부르는 게 부모님이요 찾는 게 냉수로다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인삼녹용 소용없네 효렴이 있을소냐
어~ 호 어어~ 호오 어이 넘자 어~ 호호

바. 달회소리

(긴소리)

※ 아~ 어~ 어어~ 달~ 회~ 여어~ : (선소리꾼의 메김 앞소리)

아~ 어~ 어어~ 달~ 회~ 여어~ : (상두꾼들의 받음 뒷소리)

아~ 어~ 삼사월절 흐르는 물아
아~ 어~ 어어~ 달~ 회~ 여어~

아~ 어~ 산치대로 흘러서 가네
아~ 어~ 어어~ 달~ 회~ 여어~

(선소리꾼의 메김 앞소리) (상두꾼들의 받음 뒷소리)

※ 이팔청춘에 소년들아 아~ 허 달회야
백발보고 웃지 마 아~ 허 달회야

어제는 청춘이요 아~ 허 달회야
오늘은 백발이라 아~ 허 달회야

설악산 제일봉에는 아~ 허 달회야
봉학이 앉아쉬고 아~ 허 달회야

상하월천 흐르는 물은 아~ 허 달회야
화상천으로 흘러가네 아~ 허 달회야

저승길이 얼마나 멀어 아~ 허 달회야
한번 가면 못 오시나 아~ 허 달회야

저승길이 멀다더니 아~ 허 달회야
대문 밖이 저승 일세 아~ 허 달회야

대궐 같은 집을 두고 아~ 히 달회야
문전옥답을 앞에 두고 아~ 히 달회야
슬프도다 우리부모 아~ 히 달회야
북망산천 찾아 가네 아~ 히 달회야

아버님에 뼈를 깎아 아~ 히 달회야
어머님에 살을 붙이니 아~ 히 달회야

부모님 전에 달았으니 아~ 히 달회야
부모은공 못다 말아 아~ 히 달회야

이 세상 하직이요 아~ 히 달회야
슬프도다 우리부모 아~ 히 달회야

원수백발 달려드니 아~ 히 달회야
상고님들 왜 모르나 아~ 히 달회야

삼재팔란 관재구설 아~ 히 달회야
우환질병 근심걱정 아~ 히 달회야

휘몰아다 내버리고 아~ 히 달회야
어화등실 다버리고 아~ 히 달회야

동지선달 설한풍에 아~ 히 달회야
그 자손이 추울세라 아~ 히 달회야

깎아주고 덮어주고 아~ 히 달회야
부모은덕 누가아랴 아~ 히 달회야

통일천하 진시황은 아~ 히 달회야
아방궁을 높이 짓고 아~ 히 달회야

만리장성 쌓은 후에 아~ 히 달회야
육국제후를 조공 받아 아~ 히 달회야

목도마르고 숨도차니 아~ 히 달회야
이만 저만에 그만두세 아~ 히 달회야

사. 달구소리

(긴소리)

※ 아~ 어~ 어어~ 달~ 구~ 여어~ : (선소리꾼의 메김 앞소리)
아~ 어~ 어어~ 달~ 구~ 여어~ : (상두꾼들의 받음 뒷소리)

아~ 어~ 문전을 돌아나니
아~ 어~ 어어~ 달~ 구~ 여어~

아~ 어~ 설위마라 설위마라
아~ 어~ 어어~ 달~ 구~ 여어~

(선소리꾼의 메김 앞소리) (상두꾼들의 받음 뒷소리)

※ 산지조정은 권룡산이요 아~ 히 달구야
물에 조정은 황하수라 아~ 히 달구야

신체발부 사대절골 아~ 히 달구야
부모님께 다 왔으니 아~ 히 달구야

태산 같은 높은 덕과 아~ 히 달구야
하해 같은 깊은 은덕 아~ 히 달구야

인력으로 갚을 소냐 아~ 히 달구야
슬프도다 우리부모 아~ 히 달구야

부모은덕 못 다 갚아 아~ 히 달구야
상고님들 왜 모르나 아~ 히 달구야

연초대 한번 발길질 한번
여러분의 일심받아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등춤이 절로 나네
잘도한다 잘도한다
먼데 사람 듣기 좋게
옆에 사람 보기 좋게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앞구짹이 당겨주고
뒷구짹이 밀어주게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어제는 성 튼 몸이
우는 소리 웬 말인가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청록 같은 우리인생
아차 하는 이 순간에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이 세상을 하직해야
북망산이 웬 말인가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이 세상 오실 적엔
빈손으로 오셨다가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먹고 가나 쓰고 가나
맨손으로 가는 구나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어제 날엔 성 튼 몸이
저녁 날에 병이 들어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바늘 같은 약한 몸에
태산 같은 병이 들어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인간하직 웬 말이나 아~ 히 달구야
원통하고 원통하네 아~ 히 달구야

아 춘수에 만사중하니 아~ 히 달구야
물이 깊어 못 오시나 아~ 히 달구야

손이나 장막이요 아~ 히 달구야
초패왕이 손을 잡고 아~ 히 달구야
해동이면 대한민국 아~ 히 달구야
강원도에는 이십칠관 아~ 히 달구야

양양땅으로 접어드니 아~ 히 달구야
살기좋은 양양일세 아~ 히 달구야

설악점봉에 기봉하고 아~ 히 달구야
동해를 펼쳤구나 아~ 히 달구야

국태민안 시화연풍 아~ 히 달구야
태평연월이 좋을시고 아~ 히 달구야

군으로는 양양군이요 아~ 히 달구야
면으로는 현남이라 아~ 히 달구야

망령재를 돌아내려 아~ 히 달구야
화상천이 발원이라 아~ 히 달구야

수동골 접어들어 아~ 히 달구야
갯바우가 터진했네 아~ 히 달구야

진구곤명 상 씨대주 아~ 히 달구야
곤명에는 동 씨부인 아~ 히 달구야

명산중에 오봉산에
낙산사를 가람하고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살아생전 부모은덕
극락왕생 발원이라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무정세월 여류하여
어언간 백발되니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목도 마르고 숨도차니
이만저만에 그만두세

아~ 히 달구야
아~ 히 달구야

연출 : 최종덕

상복골 농요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

- 일시 : 2010. 10. 11

- 장소 : 충남 공주시, 고마나루
야외무대

- 상복골 동요 : 전국 영상물
심사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가. 상복골 농요

상복골은 강현면에서 두 번째로 큰 마을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상복골 2구는 지금의 속초시 설악동으로 이관되었다. 관내 상복골, 중복골, 하복골을 합해 통칭 복골이라고도 한다. 상복골은 이른 시기부터 농악이 있어왔다. 지금도 농악대가 있고, 마을의 중요 일을 할 때에는 두레 품앗이를 한다. 상복골 농요는 산간지방의 농요로 평야지방의 농요와는 다른 점이 많다. 소하천 주변의 좁은 들이나 골짜기의 다락논에서 불려진 농요다. 가락은 정적이나 사설은 지역의 명소나 명물들이 나오는 토속적이고 해학적이다. 권농을 중심으로 한 충효 애향 근면과 애정 등의 사설내용이 많다. 논에서 일하며 불리는 양양지방의 대표적인 상복골 농요는 일의 과정과 동작에 알맞고 다락논에서 일하기 적합하게 짜여 있으며 향토색이 짙다.

다락논이 많은 산간지방의 특성을 살린 강현면 ‘상복골 농요’가 2010년 7월 한국민속예술축제의 분야 중 하나인 ‘현지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 성군소리

농사철이 다가오면 논밭을 씨레로 간다. 흔히들 논을 삶는다고 하는데, 바로 소를 몰고 논밭을 가는 소리를 이른다. 씨레는 한스레가 있고, 쪽스레가 있다. 한스레는 소 두 마리로 논밭을 가는 것이고, 쪽스레는 소 한 마리로 논밭을 가는 것이다. 스레가 지나가면 바닥을 끌고 주기 위하여 쇠스랑을 든 이가 뒤따르면서 바닥을 끌고 준다. 이때 우측소를 마라소, 안소를 젖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한스레로 갈 때는 항상 우측소가 더 힘이 좋고 요령도 있어야 한다. 이 마을에서는 소를 몰고 쓰레질을 하는 이를 성군이라고 하고, 그 소리를 성군소리라 한다. 우장을 메고 농악에 맞추어 춤을 추며 입장하여 한바탕 흥을 돋운다. 씨레질을 하는 성군이 씨레질 소리를 하며 다른 일꾼들은 모찌기 준비를 한다. 소를 의인화하며 대화하는 형식의 사설과 가락으로 선소리와 뒷소리 없이 성군이 소리한다.

어디야 이 이 큰 암소야
어정거리지 말고야 제곳으로만 차고 들어라
이러이러 이 어 도 어디야 이 이
잔들은 쓸어 뱉기고 붉은 돌은 건너 뛰자
이러이러 이어도 어허디야 이
서산에 해는야 아 올라 섰는데 한눈 팔지 말고 가자
이러이러 이 어허 도 어디야 이
쇠머리에 무춘 흘랑 깎구나 얼릉얼릉 하고 말자
이러이러 이 와 와



● 모찌기소리

성군이 논밭을 갈 때에 모내기꾼은 모를 찌 논에 옮겨 심어야 한다. 이때 모찌는 소리가 있는데, 대부분 타령조다. 나머지 일꾼들은 ‘나간다, 잘한다’ 등의 추임새로 흥을 돋구며 모를 찌다.

걸찢 걸찢 하더니 여기도 또 한 춤
 - 그 소리 멀리 가기 전에 여기도 또 한 춤
 물소리 찰랑찰랑 하더니 여기도 또 한 춤
 - 나간다
 서산에 해 떨어지기 전에 여기도 또 한 춤
 - 너도 한 춤 나도 한 춤 여기도 또 한 춤
 엉덩이 수퐁 할라 여기도 또 한 춤
 - 바짝바짝 당겨를 주게 여기도 또 한 춤
 담배 참이 늦어간다 여기도 또 한 춤
 - 나간다

● 모심기 소리

모찌기가 끝나면 모를 심는다. 농악이 곁들여지고 옮겨놓은 모를 가지고 모를 심는다. 이때 이 소리는 대부분 아리랑 어랑타령 등이 주로 불려진다. 모를 다 찌 후 양손에 모춤을 들고 춤을 추며 논 앞쪽으로 나가서 횡대로 모심는 형태로 선다. 모심기를 시작하면 모 심는 소리를 하게 된다. 소리를 주고받으며 모심기를 하게 된다. 다른 일꾼들은 “잘한다 어허어허” 등의 추임새로 흥을 돋우어 모를 심는다. 모종들은 모를 던지며 모종을 한다. 모를 다 심고 설터로 나오게 한다.

하늘 등천에 뜬 구름은
 비나 졸락 오더지
 운무운무 나선 여자
 누굴 불라고 나섰너
 낙산 선질꾼 실안개 돌고
 우리집 문전에 정든님이 오네
 심어주게 심어주게 또 심어주게
 바다같은 요 논배미 또 심어주게
 좋다가 죽어도 원통한데
 밤낮을 모르고서 일만야 하느냐



나두여 만날적엔 나같이 낫구나
 무스네 팔자로서 고공살이만 하리
 산이야 높어야 골도 깊지
 조꼬만 여자속이 뭐그리나 깊느냐
 올망태 남망태는 뜰가방 삼아 씨구요 고무자리 낫자리 만년필 삼아 쓰니
 소주야 안먹는다구 맹세를 했드니 안주보고 주모보니 또 한잔야 먹겠니

● 술참 좌판놀이

실터로 나온 일꾼들은 앉아서 참을 먹으며 두레패 농악이 흥을 돋우어 주면 모두 흥겨워 어깨춤을 추며 흥겨워한다. 이때 끝머슴은 상머슴에게 잔을 올리고 큰절을 한다. 이렇게 좌판놀이를 하다 흥에 겨워 모두 일어나게 되며 한바탕 흥겹게 논다.

● 김매기소리[미나리소리]

모심기가 끝나면 김을 맨다. 이때도 소리를 하는데 오전에는 상당히 느린 가락으로 소리를 하고 오후에는 좀 빠른 가락으로 창을 한다. 이때 느리게 하는 소리를 미나리소리, 조금 빠르게 하는 소리를 동강소리라 한다. 미나리소리는 상복골농요 중에서 가장 정적이며 구성진 가락이 김매기 소리이다. 이 미나리 소리는 주로 오전에 부르는 김매기 소리로서 사설은 4·4·4·4조로 이루어진 시조형태의 농요이다. 처음에는 일렬 형태로 김을 매다 마지막 논빼미에서 김을 맬 때에는 양쪽 끝에서는 “우겨라”하며 오무리며 원형 형태로 모여 소리한다.

심심하고 얌얌하아언데 심고
 예헤이 홀로 아어 심어주게
 매여주게 매어나주게 손을 세워 매어나 주게
 이 히

산들산들 부는 아 아어 모심저씩 이곳 아어지나
 모심 싹 이뜰은 모주게 썬데 저씩 옛날 아어지나
 이 히

동강소리는 농악소리에 맞추어 다시 김매기 형태로 서게 한다. 동강소리는 오후에 불려지는 김매기소리로 미나리보다 빠르며 가락이 경쾌한 편이어서 김을 빨리 맬 수 있는 민요다. 점심참에 휴식을 취한 뒤이므로 김을 매기 위함이다. 김을 맬 때에는 끝부분을 우겨서 매므로 원형대형이 이루어진다.

동해동창 솟는해는 반공중에 떠서있네



연줄가네 연줄가네 저 산너머 연줄가네
 그계 어찌 연줄이나 우리부모 명줄이지
 해가져서 그늘졌나 산이 높아서 그늘졌지
 질꾼질삼 잘하는여자 울렁바리 실어주소
 질꾼질삼 못하는여자 매어나아어 떼어주소
 이슬아침 낙랑동무 헤어질곳 몇해일새
 우겨라 우겨

이때 '우겨라 우겨라' 하는 것은 논김을 다 매지는 뜻이다. 여름철 한창 피약별 아래에서 일을 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기자는 뜻으로 하는 추임새다. 김매기가 끝나면 벼를 벤다. 한춤, 두춤, 세춤, 네춤씩 묶어서 단을 만들어서 한 단을 만들어서 스무 단씩 세우는 걸 한 베이라고 한다. 한 무지가 열 단이니, 두 무지를 모아 붙여서 이쪽에 열 단, 저쪽에 열 단씩 세운다. 오십 무지를 한 동이라고 하는데, 보통 오십 무지면 화학비료를 쓰기 전에는 쌀 다섯 가마 정도를 생산했다. 이때 벼를 벨 때 하는 소리는 대체로 모찌는소리와 비슷한데, 다만 한춤 대신 한단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다르다. 벼를 다 베어 말린 후 도리깨질을 한다. 이렇게 하여 마뎡이가 끝나면 방아를 찧는다.

● 한바탕놀이

일이 끝나면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함과 일이 끝나면 즐거운 마음으로 한바탕 놀며 흥을 돋운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피로를 상머슴에게 지게 가마에 태워 질꾸내기(질꼬내기, 길군악) 가락에 춤을 추며 귀가한다.

● 모찌기소리

얼른 얼른 하더니 여기도 한춤(나간다)
 걸찢 걸찢 하더니 여기도 또 한춤
 그소리 멀리가기 전에 여기도 또 한춤
 너한춤 나한춤 여기도 한춤
 물소리 찰랑찰랑 여기도 또 한춤
 담배참이 늦어진다 여기도 또 한춤
 궁뎡이 수풍할라 여기도 또 한춤
 얼른얼른 잡아 뎡겼구나 여기도 또 한춤
 눈치보지말고 뎡겨라 여기도 또 한춤
 이모판에 저모판에 여기도 또 한춤
 잘도찢다 잘도찢다 여기도 또 한춤



● 모심는소리

하늘중천에 뜬구름은 비나 줄려고 떴지 골목골목 나선 색시는 누구를 불라고 나섰나
설악산 산지골에 실안개 돌고 우리집 문전에 정든님 오네
심어주게 심어주게 또 심어주게 바다같은 요논빼기 또 심어주게
아들딸 못낳는다고 산제불공 말고 야밤중에 오는 손님 문뻗겨 주세
산이야 높아야 골이나 깊지 조그만 여자속이 얼마나 깊나
놀다가 죽어도 원통한데 밤낮을 모르고 모만 심네
나도야 남클적에 다같이 컸건만 무슨기 팔자로 머슴살이만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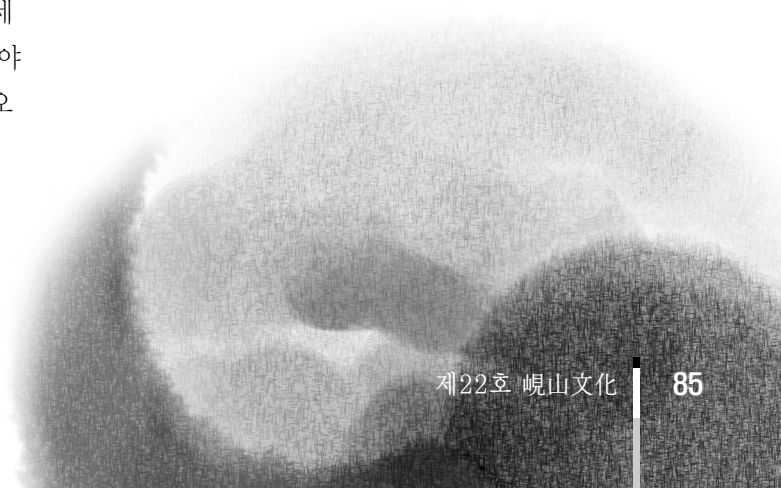
● 김매기 소리

1) 농민아리(미나리소리)

심심하고 양양한데 질꾸레기 불러보세
매여주게 매여주게 손을세워 매여주게
산들산들 부는바람 모시적삼 입고지고
모시적삼 입던몸에 삼베적삼 웬말이나
질꾸질삼 잘한여자 울릉발이 실어주고
상복개울 맑은물에 배차씻는 저처녀야
겉에겉잎 제쳐놓고 속에속잎 나올주오
오늘해는 걷갔는지 골골마다 그늘졌네

● 동강소리

연줄강네 연줄가네 저산넘어 연줄가네
그기어디 연줄이나 우리부모 명줄일세
그늘졌네 그늘졌네 골골마다 그늘졌네
해가져서 그늘졌네 산이높아 그늘졌지
동해동창 솟는해는 반공중에 떠서있네
반공중에 떴는해는 서산마루 넘어가네
이슬아침 만남동무 해질걸음 이별일세
낙산사 의상대 끝에 고기낚는 저 선비야
저기고기 낚지말고 이내몸을 남아주오





연장학습이 가능한 관광지

양양 5일장

영북지방의 가장 큰 시골 전통장으로 매월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에 열린다.

장터 구석구석은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들이 선보이며, 가끔은 희귀한 특산물을 아주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어 오랜 세월의 깊은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주요품목으로는 각종채소, 해산물, 농산물, 버섯류, 농기구류 등이며, 인기품목으로는 무공해 채소류, 산나물, 더덕, 돌김, 미역, 농기구류 등이 있다. 장터토속음식으로는 가시리묵, 장갈국수, 뚜거리탕, 십국, 송천떡 등이 있다.



양양 5일장 전경

송천떡마을

설악산과 점봉산 자락에 묻혀 있는 고향 내음으로 밭길에 머무는 곳 송천떡마을은 한쪽으로는 송천계곡 물줄기가 길게 흐르고 있다. 소나무에 둘러싸인 작고 아담한 마을로 전체 30여 가구 중 15가구가 떡을 만든다. 기계떡이 아니라 찹쌀을 시루에 얹어 장작불로 찌고 떡메로 쳐서 손으로 빚어내는 떡이다. 떡메로 쳐서 만들기 때문에 떡이 쫄깃하고 말랑말랑하다. 쌀은 마을에서 농사지은 것을 사용하는데 농약을 쓰지 않고 오색약수에서 흘러내린 물을 눈물로 이용하므로 품질이 우수하다. 떡을



송천떡마을 체험

반죽할 때는 기름이나 물을 쓰지 않고 꿀을 내리고 난 벌집을 사용한다. 떡은 인절미와 계피떡, 바람떡, 송편, 백설기, 호박고지, 찹쌀떡, 가래떡, 경단 등 다양하게 만든다. 가장 주문을 많이 받는 것은 인절미인데, 반은 흰색 인절미로, 나머지 반은 취나물과 쑥을 섞어 만든다. 20여 년 전부터 떡을 빚어온 마을에서는 떡만 드는 광경을 구경할 수 있으며,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떡빚기 행사도 개최한다. 겨울 설경이 아름다우며 까치구멍이 그대로 보존된 옛날 부엌도 볼 수 있다.

주변에 낙산사, 낙산도립공원, 신흥사, 미천골자연휴양림, 오색약수, 선림원지 등의 관광지가 있으며, 각종 축제나 행사시 현지 판매행사를 실시하여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양양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에 위치한 유적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신석기 시대 유적지 중의 한곳이다. 유적지는 동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석호'라고 불리는 호숫가의 모래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1977년 농경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래언덕을 파서 이 호수를 매립하던 중 발견되어, 1981년부터 6차례에 걸쳐 발굴 작업을 하여 14기의 원형집터와 소할석 및 돌무지 유구, 다양한 석기와 토기를 발굴하였다. 특히 흙으로 만든 인면상은 신석기 시대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상징한 예술품으로 희귀한 예로 일컬어진다. 또한 출토유물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오산리 유적지가 B.C.6000년경의 유적으로 확인되어 우리나라 신석기 유적지 중 중요한 유적지로 평가되어 사적 394호로 지정되었다. 양양군에서는 오산리 신석기 유적들을 소개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26일 선사유적박물관을 개관하였다. 건축면적 3,194㎡이며,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는 크게 도입부와 신석기인의 생활모습을 담은 전시실, 강원도 영동지역의 선사문화를 소개한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도입부에는 종합안내소와 PC를 통하여 박물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정보검색코너, 로비의 전망창을 통하여 야외 습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및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선사시대 유적 관람을 준비하며 현실에서 선사시대로 시간 이동을 유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신석기인의 생활모습을 담은 전시실에는 쌍호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신석기시대 사람들, 그들의 어로생활, 토기를 만드는 모습, 움집 주변에서 어구를 손질하고 사냥한 멧돼지와 어패류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비롯한 주거생활 등이 실물 크기의 디오라마 모형으로 재현되어 있다.

강원영동지역의 선사문화를 담은 전시실은 각종 어로기구와 돌칼, 돌화살, 돌도끼, 토기와 청동기 제작법 등 오산리선사유적을 비롯하여 영동지역의 대표적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주변에 오산해수욕장 · 동호리해수욕장 · 수산항 · 연어생태학교[국립수산과학원 냉수성어류연구센터] · 일현미술관 등의 관광지가 있다.

탁장사마을

아궁이에 장작불을 때고 산나물로 밥을 하고, 고기 잡아 배불리 먹으며, 천년의 송이 향을 만끽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의 눈썰매도 타볼 수 있는 전통테마마을이다.

조선말, 커다란 나무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나무를 가지기로 약속한 두 사람이 있었다. 강릉의 권장사가 실패하고 양양의 탁장사가 이겼다고 한다. 양양으로 나무를 지고 온 탁장사의 후계자를 뽑는 잔치가 열린다하여 탁장사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에서는 통나무자르기 놀이, 지게지기, 목도놀이, 강강술래 등 놀이체험이 가능하다.

주변관광이 산성(山城)을 이룬 듯한 분지형으로 기름진 전답(田畓)수십 만 평이 마을 입구에 있으며 오대산, 응복산에서 흘러내리는 여러 대소 계곡물이 합수되어 평탄한 하상이 넓게 펼쳐져 물고기가 많아 붙여진 어성전리(漁城田里)에 위치해 예로부터 넉넉한 농촌의 인심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매년 마을에서는 축제가 열리는데 많은 도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곤충생태관

낙산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한 곤충박물관으로 건물외벽에 커다란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의 모형이 걸려있어 관광객들 특히,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곳이다. 2층 내부에는 평소엔 보기 힘든 희귀한 곤충의 표본과 색색의 나비들이 어린이들의 눈을 잡아끈다. 1,200여 종의 곤충과 나비표본, 수서곤충, 갑충류 등이 전시되어 있고 살아있는 곤충의 성장과정과 생태도 관찰할 수 있어,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생명체로서의 곤충을 사랑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소이다. 1층은 양양관광의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낙산관광안내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양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09:00부터 18:00까지 연중무휴이며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소인 700원을 받고 있다. 주차는 무료이다.

2008년 10월 1일 개관 이후 2009년 12월말 현재 총 관람객수는 43,478명이며 이중 유료관람객 33,853명, 무료관광객은 9,625명이다.

수산자원사업단 동해지사 양양연어사업소

‘수산자원사업단동해지사양양연어사업소’는 양양군 손양면 송현리 424-1번지에 소재한 연어생태학교이다. 남대천가에 위치해 있어 태평양에서 돌아온 연어를 직접 포획하기도 하고 알을 채란하여 인공수정 및 부화과정까지 이루어지는 곳이며, 성어가 된 연어를 방류하는 곳이다. 전시관에는 연어의 일생과 생태 등이 사진과 그래픽 패널, 연어표본 등을 관람할 수 있고, 10월~11월 연어축제가 개최 될 때에는 인공수정 과정을 직접 견학할 수도 있다. 그 외에 무지개송어, 산천어 등 일반담수어양식장도 있어 어린이들에게 좋은 자연현장체험학습장이 되고 있다. 연어전시실은 연중 견학이 가능하다.



양양양수발전소(양양에너지월드)

‘양양양수발전소’는 2006년 9월 12일에 준공되었다. 양양양수발전소 1~4호기는 국내 최대규모인 설비용량 100만kw(25만kw, 4기)로 연간 약 7억kwh의 전기를 생산 공급한다. (주)삼안이 설계를 두산중공업(주)가 기자재공급, 삼환기업(주), 삼성물산(주)가 시공을 담당하였으며, 1996년 9월에 착공한 이후 총 공사비 1조 1,000억원과 연인원 170만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10년 만에 완공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한 양양양수발전소는 상부댐과 하부댐의 낙차가 819m로 동양 최대를 자랑하며 하부댐에는 대형댐으로는 처음으로 물고기가 상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어도를 설치하여 생태계를 유지·보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기간 중에 양양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마을 종합회관 건립, 농촌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양양중고등학교 학사관 건립 등 각종 지역지원사업에 약 263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양수발전의 원리와 전기의 소중함을 알리고 태양력,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2009년 9월 1일 ‘양양에너지월드’를 개관하게 되었다. 양양에너지월드는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양양양수발전소의 홍보 전시관으로 ‘물로 만드는 빛 이야기 Zone(양수발전소 소개)’, ‘빛의 놀이터 Zone(에너지 체험)’, ‘빛의 중심 Zone(수력원자력 소개)’ 등의 전시관과 600인치 대형 스크린을 갖춘 3D입체영상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밖에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갖춰져 있어 이곳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냉난방의 일부를 충당하기도 한다. ‘양양양수발전소’ 및 ‘양양에너지월드’는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필수 관광코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멕시코문물전시관

서면 오색리에 위치한 오색그린야드호텔 지하 1층에 위치한 ‘멕시코문물전시관’은 2009년 12월 3일 문을 열었다. 멕시코의 다양한 문물이 전시된 박물관은 아메리카 문명의 시원인 올멕(OLMEC),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마야(MAYA), 아메리카 인디언의 고대문명인 아즈텍(AZTEC) 등 크게 3가지 문물 전시관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아메리카 고대 문명 중 가장 오래된 올멕 문물 전시관에는 톨텍 사포텍토문화 문물 등이 전시돼 있으며, 마야문물 전시관은 이집트 피라미드와 유사한 모양의 거대 신전을 건축해 태양의 신과 달의 신을 숭배하는 등 다양한 마야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15세기부터 16세기 초 스페인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중앙아메리카를 지배한 아즈텍 제국의 전시관에는 아즈텍인들의 성 생활관과 성모 발현지 전시관이 따로 마련돼 있는 등 멕시코문물의 이색적인 향기를 설악 오색에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 3번째로 큰 나라로 이 문화들은 AD 100~900년에 올멕·톨텍·마야·아즈텍문화로 꽃피었다. 화려하게 수놓인 면으로 만든



의상, 면이나 모로 만든 솔(rebozos)과 겹옷(serapes), 색색가지의 바구니와 깔개 등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다.

- 올멕(OLMEC)문명(B.C.1200~400년) : 약 3천년전, 중미 해안지방에서 존재했다. 올멕의 뛰어난 문명은 엄청난 예술적 수준의 거석 조각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문명은 수백년간 번성하다 기원전 400년경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 원인은 알 수 없고 고대 폐허로 남아 거대한 의혹을 던지고 있다.
- 마야(MAYA)문명(A.D.100~600년) : 중앙아메리카 케추아족이 세운 고대문명으로 신정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유사한 모양의 거대 신전을 건축하고 태양신과 달의 신을 숭배했다. 천체관측법과 역법이 매우 발달하였고, 마야숫자가 유명하다.
- 아즈텍(AZTEC)문명(A.D.1200~1522년) : 15세기부터 16세기 초 스페인에 의해 멸망 될 때까지 중앙아메리카를 지배하였다. 아즈텍인들은 현재의 세계 이전에 4개의 세계가 있었으며 이번 5번째 세계에서는 태양이 사라지지 않도록 피와 심장을 부단히 공양해야 한다고 믿었다.



레저

(1) 대청봉 등산

설악산 대청봉은 우리나라에서 셋째로 높은 봉으로 천불동 계곡, 가야동계곡 등 설악산 대부분의 계곡이 이곳에서 시작된다. 대청봉은 동해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보기 위한 야간산행과 겨울 눈산행으로 인기가 있다.

※ 등산코스

○ 오색 산행기점 코스

- 1코스(18km, 8시간 소요) : 오색 → 설악폭포 → 대청봉 → 소청봉 → 희운각 → 천불동계곡 → 양폭산장 → 귀면암 → 비선대 → 설악동
- 2코스(21km, 11시간 소요) : 오색 → 설악폭포 → 대청봉 → 소청봉 → 봉정암 → 구곡담계곡 → 수림동대피소 → 영시암 → 백담사 → 백담사 경내버스 승차장

○ 오색령

- 1코스(21km, 11시간 소요) : 오색령 → 서북릉 → 끝칭 → 중칭 → 대청봉 → 희운각 → 양폭산장 → 귀면암 → 비선대 → 설악동
- 2코스(18km, 8시간 소요) : 오색령 → 서북릉 → 끝칭 → 중칭 → 대청봉 → 설악폭포 → 오색약수터

(2) 점봉산 등산

점봉산은 설악산국립공원 중 남설악의 중심이 되는 산으로 설악산의 최고봉인 대청봉을 오르는 시발점이기도 하다. 등산로는 약수터와 온천이 있는 오색에서 시작하고 정상에 오르면 대청봉·가리봉 등 설악산의 영봉과 푸른 동해가 한눈에 들어온다. 산행시간은 6시간 정도이다.

※ 등산코스

- 1코스(6시간 소요) : 오색 → 오색석사 → 용소폭포 → 주전골 → 고개 → 망대암산 → 점봉산 → 홍포수막터 → 안터 → 민박촌
- 2코스(3시간 소요) : 오색약수 → 주전골 → 등선폭포 → 흘림골 → 차도
- 3코스(10시간 소요) : 오색약수 → 주전골 → 십이담계곡 → 망대암산 → 안부 → 망대암산 → 점봉산 → 홍포수막터 → 오색집단 거주지(민박촌)
- 4코스(12시간 소요) : 오색약수 → 망대암산 → 점봉산 → 단목령 → 오색국교
- 5코스(5시간 소요) : 오색약수 → 십이폭포 → 주전폭포 → 등선폭포 → 여신폭포 → 흘림골

※ 점봉산 : 높이 1,424m 인제군과 양양군 서면에 걸쳐있는 산, 오색령을 사이에 두고 설악산 대청봉과 마주보고 있다. 북동쪽에 대청봉(1,708m)이 있고, 북서쪽에 가리봉(1,519m), 남서쪽에 가칠봉(1,165m)등이 솟아 있다. 산의 동쪽 비탈면을 흘러내리는 물은 주전골을 이루어 오색약수를 지나 백암천에 합류한 뒤 양양의 남대천으로 흘러든다. 산자락에 12담계·큰고래골·오색약수터·망월사·오색석사터 등 명소가 많으며, 오색약수를 거쳐 오르는 주전골은 단풍 명소로써 흰암반 위를 흐르는 계곡물과 단풍이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풍경을 빚어낸다. 산일대에 펼쳐진 원시림에는 젓나무가 울창하고, 모데미풀 등 갖가지 희귀식물을 비롯하여 참나무·곰취·곤드레·고비·참취 등 10여 가지 산나물이 자생한다. 특히 한반도 자생식물의 남북방한계선이 맞닿은 곳으로써 한반도 자생종의 20%에 해당하는 8백 54종의 식물이 자라고 있어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3) 망대암산 등산

인제와 양양군 서면과 경계에 있는 산, 높이 1,234m, 북동쪽의 대청봉, 남쪽의 점봉산, 남서쪽의 시선봉으로 둘러싸여 있다. 대청봉 북쪽의 오색령은 남쪽 대관령과 함께 영동·영서간 교통의 요로이며, 북동쪽에는 오색약수·오색온천이 있어 휴양지로 알려져 있다. 산은 정상이 침봉이고 망대암과 금표암 등 기암괴석으로 덮여 있다.

※ 등산코스

- 1코스(6시간 소요) : 오색 → 오색석사 → 용소폭포 → 주전골 → 고개 → 망대암산
→ 점봉산 → 홍포수막터 → 안터 → 민박촌
- 2코스(10시간 소요) : 오색약수 → 주전골 → 십이담계곡 → 망대암산 → 안부 → 망대암산
→ 점봉산 → 홍포수막터 → 오색집단 거주지(민박촌)

(4) 구룡령옛길 걷기

이 길은 양양과 홍천을 연결하는 옛길로 산세가 험한 진부령, 미시령, 오색령보다 산세가 평탄하여 양양, 고성지방 사람들이 한양을 갈 때 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강원도의 영동과 영서를 잇는 중요한 상품 교역로였고 양양, 고성지방 선비들이 과거를 치르러 한양으로 갈 때 명칭에서 유래하듯 용의 영험함을 빗대어 과거 급제를 기원하며 넘나들던 길이라 하며, 구룡령이라는 이름은 ‘아홉 마리 용이 고개를 넘어 가다가 지쳐서 갈천리마을 약수터에서 목을 축이고 고갯길을 넘어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하고 있다. 옛길 입구에는 굽이쳐 흐르는 계곡이 있고, 길의 중간 중간에 길의 위치를 표시하는 횃돌반쟁이, 묘반쟁이, 솔반쟁이 등이 자리하여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옛길 걷기의 흥미를 더해주고 있다.

또한 구룡령옛길에는 옛 철기시대 양양지역에 공급되던 철을 캐던 동굴과 일제시대 일본인들에 의해 개발되어 일대 주민들이 강제 징집되었던 애환의 역사가 서린 철광소, 케이블카가 남아있고, 옛길 길가에는 1989년 경북공 복원 당시 사용되어 밑동만 남아 있는 소나무 거목 흔적이 남아 있는 등 조선시대와 근현대사의 역사가 함께 잔존하여 역사적 가치가 큰 소중한 명승지이다. 옛길 따라 펼쳐진 200~300년 된 희귀한 금강소나무가 장관이며 양양군과 홍천군의 경계를 정할 때 양양의 땅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하려고 달리다가 숨진 청년이 묻혔다는 전설의 묘(명승 제29호)도 있다.

※ 옛길 5km 걷기

- 옛길 들머리 입구(구 갈천분교) → 계곡 → 금강소나무길 → 서림철광소 → 케이블카
→ 구룡령정상 → 홍천군 내면 명개리

(5) 드라이브 · 하이킹

마의태자의 피눈물이 어린 오색령과 바닷가를 따라가는 7번국도는 드라이브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오색령은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시대 때 마의태자가 망국의 한을 안고 피눈물을 흘리며 이 고개를 넘었다고 한다. 고려시대 때는 퇴각하는 거란군을 김취려 장군이 뒤쫓아 이 골짜기에서 섬멸했다고 전해진다. 지금의 오색령은 험하지만 깊고, 아찔하지만 수려하다. 서울에서 국도로 오면 인제에서 양양으로 넘어가면서 좌우로 내설악과 남설악의 진풍을 만날 수 있다. 동해안 드라이브는 산길 드라이브와 해안가 드라이브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 오른쪽으로는 동해의 절경이 펼쳐지고 작은 어촌마을의 소박한 운치, 넘실대는 파도가 정겹다. 왼쪽으로는 멀리 병풍처럼 둘러싼 설악산이 눈에 들어온다. 굽이굽이 고개를 돌 때마다 달리보이는 설악산을 보는 재미가 있다.

양양은 자전거의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지역이다. 그동안 육성한 싸이클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는 커다란 족적을 만들어왔다. 이와 함께 양양의 수려한 산 · 계곡 · 하천 · 해안은 자연스럽게 하이킹하기에 좋은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최근에는 생활여건 변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드라이브 · 하이킹족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 코스

○ 드라이브 코스

- 남쪽 현남IC부터 지경해수욕장 → 원포해수욕장 → 갯마을 해수욕장 → 남해해수욕장
→ 하조대 → 일현미술관 → 오산항 →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 대명솔비치 → 오산해수욕장
→ 남대천하구 → 낙산해수욕장 → 낙산사 → 물치항

○ 자전거 하이킹 코스

- 1코스(해안도로) : 지경해수욕장 → 원포해수욕장 → 갯마을해수욕장 → 남해해수욕장
- 2코스(해안도로) : 하조대 → 일현미술관 → 오산항 →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 대명솔비치
→ 오산해수욕장 → 남대천하구 연어생태박물관
- 3코스(56번국도) : 양양 시내 → 송천떡마을 → 양수발전소 → 서림사지 → 선림원지 → 미천골자연휴양림 → 불바라기약수 → 범수치계곡(면옥치리) → 여성전계곡(명주사입구) → 하조대

(6) 배낚시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이와 맞물려 휴식에 대한 욕구가 증폭되면서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관광 1번지를 지향하는 양양군에서는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확충하게 되었다. 이중 하나가 바다낚시이다. 바다낚시의 매력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 한 척에 몸을 맡긴 채 고기가 입질하는 순간의 짜릿함과 출렁이는 파도와 짹짹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펄펄 뛰는 물고기를 즉석에서 손질해 보고 회를 맛보는 것이다. 배낚시로 낚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어종은 우럭·가자미·광어·꽂치·방어·대구·노래미·조피볼락 등이며, 배낚시가 가능한 양양의 항구는 기사문항·남애항·물치항·수산항·오산항·인구항·낙산항(전진항) 등이다. 배낚시는 1회 약 2시간정도 소요되며, 계절별로 잡히는 어종은, 봄에는 송어·우럭·돔, 여름에는 고등어·돔, 가을에는 우럭·이면수·학꽂치, 겨울에는 돔·황어·놀래미 정도다. 최근에는 배낚시 이외에도 계절별로 갯바위 및 방파제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도 문화학교 학생 수상 및 공연내역

강좌명	수상 & 공연내역
한국화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오미술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 선 : 남궁희, 김영희, 김영숙, 홍선녀, 서영석, 안명자, 주영란 - 특 선 : 김영미
한글서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대한민국 강릉단오서화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상 : 장우인 - 특 선 : 김재옥, 노복현, 심용구, 정계은, 조현조 - 입 선 : 김영복, 이희숙, 김영순 * 대한민국 님의침묵 서예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대작가 : 장우인 - 특 선 : 심용구, 김영순, 노복현 - 입 선 : 이희숙, 김영복, 박귀남, 임하택, 정계은, 윤미진, 조현조 * 제20회 전국공모 강원서예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 선 : 심용구, 장우인, 김재옥, 조현조, 노복현 - 입 선 : 김영순, 이희숙, 임하택, 김영복, 정계은, 박귀남 * 제5회 대한민국 운곡서예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상 : 노복현 - 특 선 : 심용구, 임하택, 김영순, 장우인 - 입 선 : 이희숙, 김영복 * 제13회 대한민국 한글서예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 선 : 장우인, 노복현(2점), 김영순, 김재옥 * 대한민국 탄허 대중사 회호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 선 : 김영순 - 장려상 : 이희숙, 임하택 * 현산문화제 회호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상 : 심용구 - 우수상 : 이희숙, 김영순 - 특선 : 김영복, 임하택, 윤미진 * 방통 전국연합 학예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예부문 대상 : 김재옥(교육과학부장관상)
사물놀이(중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2회 현산문화제 공연(남대천둔치) * 양양독립만세운동재현행사 보조출연 * 노인잔치 공연(양양군체육관)

강좌명	수상 & 공연내역
사물놀이(중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물놀이경연대회 참가(정선문화예술회관) * 송이축제 제례시장 살리기 공연(남대천둔치)
한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협회 제18회 한시백일장(현장백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작 : 양동창 - 장려상 : 김경일, 김주호, 이종우, 정만진, 황재권 * 한시협회 시험풍아 제22호(지상백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 방 : 김경일, 황광수 - 가 작 : 김형래 * 제32회 현산문화제 한시백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원 : 박문희 - 차 상 : 추종삼, 최흥규 - 차 하 : 정만진, 김형래, 함연호 - 참 방 : 김경일, 김주호, 김무풍, 정희명, 이종우, 김구래, 김윤래 * 율곡제 한시백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작 : 추종삼, 김구래 * 영월 샷갯제 한시백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 하 : 김형래
민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회 강원도국악경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 동상(김봉신의 6명) - 개인 : 은상(김봉신) * 매달 양로원 봉사활동
서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북5도민서예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 선 : 김집 * 대한민국서화대상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작가 : 김형래, 손인환 - 은 상 : 양재억 - 특 선 : 윤대석, 최일규, 신동섭 * 남의침묵서예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 선 : 김형래 - 입 선 : 손인환 * 김생서예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 선 : 김형래 * 운곡서예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 선 : 손인환 * 강원서예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 선 : 손인환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2회 현산문화제 공연

題：歡迎(이십개국정상회의)

2010년도 제18회 한시백일장
현장백일장 입선시

佳作 (가작)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16-40
南岡 梁東昌

廿邦頂上訪韓辰
입방정상방한진

이십 개국 정상이 방한하는 날에

盛大歡迎權域民
성대환영근역민

성대히 환영하는 근역의 백성이네

錦繡江山祥寶顯
금수강산상보현

금수 강산은 상보같이 나타나고

京都街路祝旗新
경도가로축기신

서울의 길가에는 축기가 휘날리네

東西指導佳千里
동서지도가천리

동서를 지도하니 천리가 아름답고

世界軒昂泰四隣
세계현양태사린

세계에 우뚝하니 사린이 태평하도다

人類繁榮尤壽與
인류번영우기여

인류의 번영에 더욱 더 기여하고

仁慈聖業宇中伸
인자성업우중신

인자한 그 성업이 천하에 펼치리

獎勵賞(장려상)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4반 136-24
桂堂 金慶一

隆邦二十會談辰
용방이십회담진

용성한 나라 스물이 회담하는 날에

頂上歡迎列列民
정상환영열열민

정상회의를 백성들이 줄지어 환영하네

錦繡江山祥運聳
금수강산상운용

금수강산에는 상운이 솟아나고

京都街路祝旗新
경도가로축기신

서울 거리에는 축기가 새롭구나

東西同化應無境
동서동화응무경

동서가 닮아가니 응당 경계 없어지고

涯角均蒙自作隣
애각균몽자작린

애각이 같아지니 저절로 이웃이되네

靄靄協商佳節夢
애애협상가절몽

애애하게 협상하니 가절의 꿈이요

一天天下願弘伸
일천천하원홍신

한 하늘의 천하에 넓게 퍼기를 원하노라

2010년도 제18회 한시백일장
현장백일장 입선시

獎勵賞(장려상)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2리 1반
石泉 金 甯 昊

歡迎頂上會談辰
환영정상회담진

정상회담 시를 환영합니다.

經濟難題議決民
경제난제의결민

백성의 경제 난제를 의결하고

韓國主催期絕好
한국주최기절호

한국이 주최하니 절호의 기회이다

昊天瑞氣到來新
호천서기도래신

하늘 서기가 새롭게 도래하도다

西洋發展同和件
서양발전동화건

서양이 일치하게 발전하고

亞細繁榮合力隣
아세번영합력린

힘을 합쳐 아세아가 번영하다

世界金融安定願
세계금융안정원

세계 금융의 안정을 원하고

豐饒致富地村神
풍요치부지촌신

지구촌이 부를 이루어 풍요하기 바란다.

獎勵賞(장려상)

강원도 속초시 교동 783 대명 늘푸른A. 101동 804호
月冕 李鍾祐

卅邦頂上訪韓辰
입방정상방한진

이십개국 정상들이 방한의 날에

貌集歡迎萬里民
모집환영만리민

예의 갖추 환영하는 온 나라 백성이네

境內安全嚴重守
경내안전엄중수

경내가 안전하게 엄중히 수비하여

身邊保護會談新
신변보호회담신

신변을 보호하니 회담이 새롭구나

軒昂世界佳千域
현양세계가천역

세계에 우뚝하니 천역이 아름답고

主導東西太四隣
주도동서태사린

동서를 주도하니 사린이 태평해라

經濟危機勞克復
경제위기노극복

경제의 위기를 함께 힘써 극복하고

猷當聖業宇中伸
염당성업우중신

재앙을 미리 막는 성업은 온 천하에 펼치리

2010년도 제18회 한시백일장
현장백일장 입선시

獎勵賞(장려상)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석교리 86번지
淨沼 丁萬鎭

歡迎頂上訪韓辰
환영정상방한진

정상들의 방한을 크게 환영하며

會議成功願總民
회의성공원총민

회의 성공함을 백성이 바라네

世界軒昂千域懿
세계현앙천역의

세계에 우뚝하니 천역이 아름답고

東西主導萬邦新
동서주도만방신

동서를 주도하니 만방이 새롭구나

經濟有餘強大國
경제유여강대국

경제 여유로운 강대국 이루고

金融好轉救比隣
금융호전구비린

금융이 호전되어 이웃을 구제하네

賢明德化天涯及
현명덕화천애급

덕화는 현명하여 하늘가에 미치고

仁慈聖業宇中伸
인자성업우중신

인자한 성업은 천하에 퍼리니

獎勵賞(장려상)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61-67 9통 4반
石井 黃在權

友邦頂上訪韓辰
우방정상방한진

우방의 정상이 방한하는 때를 맞이하여

熱烈歡迎與萬民
열렬환영여만민

열렬한 환영에 온 국민과 함께하네

國勢昇濟機絕好
국세승세기절호

국세가 한단계 올라가는 절호의 기회요

成長經濟起風新
성장경제기풍신

성장하는 경제에 새로운 바람이 일 것이다

東西冷戰希終熄
동서냉전희종식

동서간의 냉전의 종식을 바라마지않으며

世界平和作善隣
세계평화작선린

세계 평화에서 좋은 이웃 사이가 될 것이다

紊亂金融謀正立
문란금융모정립

문란한 금융질서의 정립을 도모한다면

繁榮人類供尤伸
번영인류공우신

인류번영에 이바지하여 더욱 신장하리라

2010년도 한시협회 기관지 제22호
지상백일장 입선시

參榜(참방)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136-24

桂堂 金慶一

榴夏携筇上此樓
류하휴공상차누

여름날 막대 짚고 누각에 오르니

金蘭之座酒香幽
금란계 자리엔 술 향기 그윽하네

금란계 자리엔 술 향기 그윽하네

千杯醉舞搖欄檻
천배취무요난함

천 잔에 취한 춤에 난간이 흔들리고

一曲呼歌載葉舟
일곡호가재엽주

한 곡조 부른 노래 엽주에 띄웠다네

玄鳥簷頭鳴祝賀
현조침두오축하

제비들 처마에서 지저귀는 축하에

黃鶯柳幕答和酬
황앵유막답화수

피꼬리는 유막에서 화답을 보냄이라

優遊盡日皆歡樂
우유진일개환락

종일 호화롭게 노니 모두 즐겁고

妙句吟詩夕照流
묘구음시석조류

묘구의 시 읊으니 석양이 지누나

參榜(참방)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광석리 51
靑山 黃光洙

與朋初夏上高樓
여봉초하상고루

벗들과 초여름 높은 루에 오르니

五月榴花起馥幽
오월류화기복유

오월의 석류화는 그윽한 향기이네

素帶遐山春載雪
소대하산춘재설

먼 산의 흰 띠는 봄에 실은 눈이요

蒼波近海午遊舟
창파근해오유주

근해의 창파에는 낮배가 즐기누나

詩豪尙友通交感
시호상우통교감

시호 현인 벗을 삼아 교감이 통하고

文藻騷人拊唱酬
문조소인변창수

문조의 시인들은 시가 읊은 박수여라

新採肴蔬挑酒味
신채효소도주미

새로 캐낸 산채 안주 술맛을 돋구는데

奈何罷席暮雲流
내하과석모운류

어찌하여 자리 과할 저녁 구름 흐르는가

佳作(가작)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4리 3-58
看山 金亨來

榴花仲夏會吟樓
류화중하회음누

석류꽃 피는 오월 루에 모여 시를 읊으니

熱氣松風夕景幽
열기송풍석경유

여름날 솔바람 불어 저녁 풍경 그윽하네

綠蔭千林雙散鳥
록음천림쌍산조

천림의 푸른 그늘에는 새들 쌍쌍 흩어지고

蒼波萬里一孤舟
창파만리일고주

창파 만리에는 이로운 조각배 한 척

溪村蝶舞多情配
계촌접무다정배

시냇가엔 나비 춤추며 다정하게 짝을 찾고

柳洞蜂飛密愛酬
유동봉비밀애수

버들 골엔 벌 날아 밀애를 주고 받네

玉笛橫吹詩詠樂
옥적횡취시영락

옥피리 횡취에 시영이 즐거웁고

鶯聲曲曲繞清流
앵성곡곡요청류

피꼬리 소리 굽이굽이 맑은 물결 흐르네

2010년도 경로호친문예작품 공모결과

심사평 : 시, 산문부문

김영준(양양중학교 교사)

◎ 초등학교 시 부문

‘효’에 대해 나름대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글들이라 할 수 있으나 천편일률적이라는 느낌 또한 지울 수 없다. 경험과 생각의 폭이 좁기 때문일 텐데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단편적인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시’라는 형식에 얽매어 내용을 끼어 맞추는 듯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정희원 학생(3학년)의 시는 자신의 경험을 매우 솔직하고 꾸밈없이 적어나갔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었다.

◎ 초등학교 산문 부문

학생들의 관심 영역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했으나 응모작의 수에 비해 좋은 작품이 많지 않았다. 대체로 원고 분량이 적었으며 글의 형식 또한 많은 문제를 보였다. 그러나 나름대로 ‘효’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중 오중현 학생(5학년)의 글은 산문 형식을 잘 갖추었을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솔직하고 진지하여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였다.



◎ 중학교 산문 부문

응모작이 적었으나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좋은 글을 썼다. ‘효’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글들이었다. 그러나 산문(수필)보다는 논술 형태의 글을 쓰는 경향이 짙어 진한 아쉬움을 남긴다. 논술을 중시하는 학교 교육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최리라 학생(1학년)의 글은 산문 형식을 잘 취하고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고 잔잔하게 그려내어 감동을 많이 준 글이었다.

◎ 총 평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 점차 잊혀지는 ‘효’에 대해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백일장이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할 수 있겠다. 학교별로 편차가 큰 것은 무작위 응모이거나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응모한 것의 차이일 것이다. 좀 더 큰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특히 배우는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급적 원고지에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게 좋을 듯 싶다.

심사평 : 포스터

김문향(양양여자고등학교 교사)

경로효친 포스터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형식과 틀에 박힌 그림보다 천진스럽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마음으로 효를 알고 실천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림을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

양양지역 학생들의 작품을 심사하다보면 어른들이 아이의 작품에 손을 대고 어른들의 시각으로 채색하거나 형태를 고집하는 그림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언제나 꿈을 갖고 상상력을 펼치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무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양양지역 학생들의 그림이 앞으로 더욱 발전 되도록 전통성이 있으되 창의성이 있도록 지도해 주길 바란다.



입상 현황

■ 초등학교

신문				시				포스터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송포초교 5학년 오종현	양양초교 6학년 성시은	광정초교	양양초교	손양초교 3학년 정희원	양양초교 6학년 김지은	손양초교	강현초교	손양초교 4학년 진채린	현성초교 6학년 김다영	손양초교	현성초교
		6학년	5학년			6학년	6학년			6학년	6학년
	김현수	최형윤	강시은		서희	김덕주	박지은				
	손양초교	손양초교	송포초교		양양초교	강현초교	손양초교				
유진희	6학년	5학년	3학년	광정초교 1학년 허정문	양양초교 5학년 심지은	5학년	6학년	양양초교 5학년 변다정	김원빈	3학년	3학년
		양재영	박종한			고영현	오정은			김원빈	최문경
		양양초교	양양초교			양양초교	광정초교		5학년	강현초교	현성초교
		6학년	6학년			5학년	4학년		2학년	2학년	4학년
		김명수	김정우			이재혁	김영휘		이재혁	윤수연	윤수연

■ 중학교

신문			시			포스터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	우수	장려
현남중 1학년 최리라	현북중 3학년 이이주	현남중 2학년 김다은						



양 보

정희원(손양초등학교 3학년)

양양장에 가려고 버스를 탔다
어, 저기 뒤쪽에 자리가 있네
젼싸게 뛰어가 자리에 앉았다

다음 정류장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 . .
어, 할머니께서 짐을 들고 오르신다.

앞줄을 지나치고
중간줄 지나쳐와도
아무도 양보를 안하네.

드디어
내가 앉은 자리까지 오시는데
일어설까 말까
일어설까 말까 고민이 된다.

에잇, 안 되겠다
벌떡 일어나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자리를 양보했다.

휴~
무거웠던 마음이
솜처럼 가벼워졌다

외할아버지의 생신

오종현(송포초등학교 5학년)

외할아버지의 생신이어서 강릉 외할아버지 댁으로 갔다. 전주에 사시는 큰 이모, 춘천에 있는 셋째 이모, 서울에 있는 작은 외삼촌, 큰 외숙모, 양양에 있는 우리 가족, 강릉에 있는 둘째 이모까지 모두 모였다. 외할아버지께서는 딸들이 다 모여서 너무 좋다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다는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졌다.

그리고 엄마가 말씀해 주셨는데 외할아버지께서는 많이 아프셔서 큰 수술도 여러 번 하셨다고 한다. 10년 전에는 위암 수술을 하셨고, 수술하시고 5년 뒤에 또 대장암에 걸려서 대장암 수술을 하셨다. 수술을 하시고 나서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병들이 왜 나만 두 번 씩이나 걸리냐?”고 속상해 하셨다고 한다. 엄마한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아끼는 총을 가지고 놀다가 넘어져 많이 다쳤는데 총까지 망가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처럼 마음이 아팠다.

요즘에는 구토와 설사를 더 하신다고 외할머니께서 걱정하셨다고 엄마가 말씀하셨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보니 외할아버지께서 방학 때보다 많이 쇠약해지신 것을 알았다. 이번 여름 방학 때 뵈었을 때보다 주름이 하나 더 느신 것 같았고, 별로 힘들지도 않은 일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안 그래도 작은 키가 등이 굽어서인지 더 작아 보이었다.

그 모습을 보니 ‘평소 할아버지를 더 편하게 해 드리고 말동무도 되어 드리고 어깨라도 더 주물러 드릴 걸’ 하고 후회했다. 동생 수현이랑 매일 텔레비전에 나오는 만화 채널만 이리 저리 돌리던 생각이 났다. 나만 생각했지 아프신 할아버지는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제부터는 강릉에 올 때마다 엄마에게 음식은 소화가 잘되는 것으로 가져가자고 말씀드려야겠다. 위암이나 대장암으로 소화를 잘 못 시켜서 고생하시니 꼭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 말씀처럼 힘들지 않은 가까운 곳이라도 자주 놀러가자고 말씀 드려야 되겠다.

다음에는 외할아버지 댁에 갈 때 기타를 들고 가야
겠다. 예전에

“우리 아들. 엄마 지금 슬퍼! 우리 아들이 기타를 쳐
주면 기분이 좋아 질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때 나는 학교에서 방과후 활
동으로 배웠던 곡 〈태양은 가득히〉, 〈라쿠카라차〉, 〈
아빠와 크레파스〉 등을 들려드린다. 그러면 엄마는
기분이 좋아져서 일을 더 잘 하셨다. 그 때처럼 우리
외할아버지께도 내가 잘하는 기타를 쳐드려야겠다.
동생 수현이에게는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고 피아노를 쳐드리게 해야겠다. 그리고 할아버지
댁은 양양에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여서 자주 가서 우리의 얼굴을 자주 보여드려야겠다.

내가 크고 부모님이 늙으시면 엄마와 아빠가 할아버지께 했던 것처럼 나도 부모님을 가쁘게 해
드릴 것이다. 경로효친이라는 것은 ‘윗사람을 아랫사람이 알아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라고 엄
마는 말씀하셨다. 차타고 갈 때 뒷자리에서 동생 수현이랑 자리 서로 넓게 앉으려고 자리다툼 하던
생각이 떠올라 부끄러워지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께서는 동생보고 까불지 말라고도 하
지만 오빠인 나보고 양보하라고 하신다. 그럴 때마다 기분 나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우리 엄마를 사랑하시고 엄마도 우리를 사
랑으로 보살피신다. 나이도 네 살 더 많은 내가 동생에게 더 많이 양보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차안에서 기분이 덜 상하지 않을까?

“할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제가 성당에서 하느님께 기도 드릴게요. 엄마 아빠, 저를 이만
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행동하는 효

최리라(현남중학교 1학년)

할머니와 미용실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주문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의 앞문이 열렸다. 앞문으로 커다란 바구니를 든 할머니께서 버스를 타시려고 하셨다. 나는 도와 드리고 싶었지만 갑자기 고민을 하게 되었다. ‘내가 도와 드린다고 해서 과연 도움이 될까? 도와 드린다는 마음에 도와드린다고 해서 불편해하시지는 않으실까?’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

“다른 짐도 함께 주시고 올라오세요.”

라고 우리할머니께서 말씀하자 그 다음 정류장에도 무거운 짐을 들고 타시려는 할머니가 계시면 우리 할머니가 아닌 다른 분들도 도와주시려고 팔을 걷고 나섰다. 나는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물어보았다.

“할머니 아시는 분이세요?”

하자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알든지 모르든지 누가 돕지 않으면 어떡하겠니?”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하여

“할머니 어른을 공경하면 뭐가 좋아요?”

할머니께서는 그 질문을 할 줄 알았다는 듯이

“무엇보다 너보다 오래 살았으니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겠지.”

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으니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고 하셨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니 할머니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야 웃어른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다. 버스 안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을 생각해보았다. 모르는 분인데도 도움을 주시려는 우리할머니, 공부하

다가 도와주신 고등학생 오빠, 집으로 가던 길에 도와주신 군인 아저씨, 운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도와주신 운전기사 아저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도 여태껏 나는 한번도 남을 도우려하지 않고 내 이익만 추구해왔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다. 할머니와 나는 집으로 왔는데 할머니께서 국수를 하신다고 하셨다. 역시나 할머니의 웃어른 공경은 집에서도 끝나지 않았다. 허리 굽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일을 마치고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 앞집 뒷집 할머니 모두 오시니 넓은 우리 집 마루가 시장처럼 북적거려 발을 디딜 틈도 없었다. 그렇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웃어른 공경을 본받고 싶었다. 앞으로는 깨달은 것을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무엇보다 어른을 뵈면 인사를 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고, 버스좌석을 양보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주문진에 갔다 오는 길 역시 등이 구부정하신 할머니께서 버스에 타셨다. 자리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내가 내려야하는 정류장은 5분은 있어야 도착한다. 그렇지만 나는 모르는 척 할 수 없어서 그냥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다. 양보를 하니 마음 한 쪽이 뿌듯해져 왔다.



내가 도시에서 살 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귀가시간이 늦어서야 들어 왔었다. 그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다. 책에 있는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어서 일상생활에 있는 규칙 지키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쓰레기 줍기, 그 중에서도 웃어른 공경하기, 부모님께 효도하기도 포함되어 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하러 공부해야해?!”

라고는 말하지만 그것마저 이유가 있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에는 나 역시도 포함되어 있었다. 공부만 해왔지 실천하지도, 쓰지도 못하면 필요 없다. 빈껍데기가 된다는 말이 생각났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면서도 실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실천 한다면 어떤 세계가 될까? 지구가 빛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것보다는 나 먼저 실천하고 행동할 것이다.

어른공경 아빠마음,
제가 본받습니다.

진채린(손양초등학교 4학년)



통풍

■ 정의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퓨린(purine)이라는 물질을 인체가 대사하고 남은 산물)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염(요산이 혈액, 체액, 관절액 내에서는 요산염의 형태 존재함) 결정이 관절의 연골, 힘줄, 주위 조직에 침착되는 질병이다. 이러한 현상은 관절의 염증을 유발하여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재발성 발작을 일으키며, 요산염 결정에 의한 통풍결절(tophi)이 침착되면서 관절의 변형과 불구가 발생하게 된다. 관절의 이상 외에도 다양한 신장질환을 일으키고 요산에 의해 콩팥에 돌이 생기는 콩팥돌증(nephrolithiasis, 신석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 원인

통풍은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혈중 요산 농도가 높을수록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산은 음식을 통해 섭취되는 퓨린이라는 물질을 인체가 대사하고 남은 산물로, 혈액, 체액, 관절액 내에서는 요산염의 형태로 존재한다. 혈액 내 요산 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을 넘으면 고요산혈증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을 크게 요산이 과잉 생산되는 경우와 요산의 배설이 감소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다양한 원인 질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체중 증가는 고요산혈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편 통풍은 주로 남성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남성은 콩팥에서의 요산 제거 능력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데 반하여 여성은 폐경 이전까지는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요산 제거 능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 증상

통풍은 1) 무증상 고요산혈증, 2) 급성 통풍성 관절염, 3) 간헐기 통풍, 4) 만성 결절성 통풍 등의 전형적인 4단계를 거친다.

1) 무증상 고요산혈증

혈청 요산의 농도는 증가되어 있지만 관절염 증상, 통풍 결절, 요산 콩팥돌증 등의 증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며, 고요산혈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평생 동안 증상이 없이 지내게 된다.

2) 급성 통풍성 관절염

대개 최소한 20년 동안 지속되는 고요산혈증이 지난 후 첫 번째 통풍발작이 나타나거나 콩팥돌증이 발생한다. 통풍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매우 고통스러운 관절염의 급성 발작이다. 첫 번째 발작은 보통 하나의 관절을 침범하며 전신 증상은 없는 편이지만, 그 후에 발생하는 발작들은 여러 관절을 침범하고 열이 동반된다. 엄지발가락이 가장 흔하게 침범되는 관절이며, 그 외에도 사지관절 어디나 침범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첫 번째 급성 통풍발작은 갑자기 발생하며, 보통 환자가 편안히 잠든 밤에 시작된다. 이후 일부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 첫 걸음을 디딜 때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환자들은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기도 한다. 침범된 관절은 수시간 이내에 뜨거워지고, 붉게 변하며, 부어 오르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다. 가벼운 발작은 몇 시간 이내에 사라지거나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되지만 심할 경우에는 몇 주간 지속될 수 있다.

3) 간헐기 통풍

간헐기 통풍은 통풍발작 사이의 증상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일부 환자들에서는 발작이 다시 나타나지 않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두 번째 발작을 경험하게 된다. 통풍발작의 빈도는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 나중에는 발작이 급성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서서히 나타나게 되고, 여러 관절을 침범하며,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4) 만성 결절성 통풍

통증이 없는 간헐기를 지나 만성 결정성 통풍의 시기가 되면, 통풍은 다른 종류의 관절염과 유사하게 보인다. 통풍결절 형성과 통풍발작은 고요산혈증의 정도와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첫 발작 후 통풍결절이 관찰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평균 10년 정도 걸리고, 20년 후에는 1/4의 환자에게서 결절이 나타난다. 통풍결절은 귓바퀴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며 손가락, 손, 발가락, 발목, 무릎 등에 비대칭적이고 울퉁불퉁한 덩어리를 형성하므로 더 큰 장갑이나 구두가 필요하게 된다. 결절의 형성은 서서히 일어나며, 비록 결절 자체의 통



증은 약하더라도 침범 부위의 관절에 점진적인 뻣뻣함과 지속적인 통증이 종종 발생한다. 결국 관절의 광범위한 손상과 함께 피부 밑에 큰 결절이 생성되어 손과 발이 괴상한 형태로 변해간다.

■ 진단

관절의 윤활액이나 주위 조직을 뽑아내어, 현미경을 통해 백혈구가 탐식하고 있는 바늘 모양의 요산결정을 확인하면 확진이 가능하다. 윤활액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급성 단관절염, 고요산혈증, 콜히친 치료에 대한 극적인 반응 등 세 가지를 만족하면 통풍으로 진단할 수 있다.

■ 검사

통풍의 검사에는 관절 윤활액 검사와 혈청 요산농도 측정이 있다. 1) 관절 윤활액 검사: 통풍이 의심되는 관절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윤활액을 뽑아내어 현미경으로 요산 결정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2) 혈청 요산농도: 혈액검사로 측정하며 보통 7.0mg/dL 이상이면 고요산혈증이라고 한다.

■ 치료

치료는 통풍의 각 단계마다 조금씩 다르다.

1) 무증상 고요산혈증의 치료

고요산혈증이 통풍과 관련된 질환들을 일으키는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통풍성 관절염, 콩팥돌증 등이 동반되지 않은 무증상 고요산혈증을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정해진 원칙보다 의사의 판단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옳으며, 비만, 고지질혈증, 알코올 중독, 고혈압 등과 관련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급성 통풍성 관절염의 치료

증상이 발생한 후에는 안정을 취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급성 통풍발작은 콜히친(colchicine),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에 의해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증상이 호전될 수 있으므로, 통풍발작이 나타나면 즉시 약물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간헐기 동안의 통풍발작의 예방

소량의 콜히친을 매일 복용하면 급성 통풍발작을 매우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3~6개월 간의 예방적



사용 후에 콜히친 복용을 중단할 수 있지만, 이때 급성 통풍발작이 악화될 수 있다. 콜히친의 예방적 사용은 급성 염증반응을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조직 내에 쌓인 요산결정을 제거하지는 못하므로 급성 통증과 같은 경고 증상 없이 연골과 뼈의 파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4) 만성 결절성 통풍의 치료

항고요산혈증 약물을 이용하여 고요산혈증을 조절하면 요산이 조직에 침착되는 것을 예방하고 혈중 요산 농도를 정상화시킬 수 있다. 알로푸리놀(allopurinol), 프로베네시드(probenecid) 등의 요산배설촉진제가 주로 사용된다.

■ 경과 · 합병증

통풍은 1) 무증상 고요산혈증, 2) 급성 통풍성 관절염, 3) 간헐기 통풍, 4) 만성 결절성 통풍 등 전형적인 4 단계를 거친다. 치료하지 않은 통풍 환자는 첫 번째 급성 통풍발작 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두 번째 발작이 발생하며, 이후 재발을 반복하면서 발작이 서서히 시작되고 더 많은 관절을 더욱 심하게 침범하는 양상을 보인다. 통풍결절의 생성은 서서히 일어나며, 그 자체가 통증이 적다 하더라도 침범 부위 관절의 뻣뻣함과 지속적인 통증이 종종 발생하여 결국에는 관절의 광범위한 손상과 손과 발의 기형을 초래하게 된다. 높은 농도의 혈중 요산으로 인하여 콩팥에 돌이 생기기도 하며, 이로 인하여 콩팥산통(콩팥의 결석으로 인한 고통이 아이를 낳을 때의 산통에 비유될 만큼 그 정도가 심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옆구리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통풍 환자의 10~40%는 첫 번째 통풍발작 이전에 한 번 이상의 콩팥산통을 겪게 된다.

■ 예방방법

적절한 약물을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예방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중 조절, 절주, 과식 자제 등은 통풍발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생활 가이드

통풍 환자는 정상 체중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절주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통풍 환자들이 비만인 경우가 많으므로, 규칙적인 열량 제한을 통한 체중 감량이 필수적이다. 체중 감량 프로그램이 실패하면 통풍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는 요산의 농도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술을 갑자기 많이 마시면 술에 취해 있는 동안 일시적인 고젖산혈증이 발생하여 고요산혈증이 악화된다. 장기간 술을 마시는 것 역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다.



■ 식이요법

고단백음식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요산 생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사용 가능한 항고요산혈증 약제의 효과가 매우 좋으므로 통풍 환자에서 특별한 식이요법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열량 제한을 통한 체중 감량과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맨위로

제공: 서울대학교병원

■ 몸에좋은음식

통풍과 영양

퓨린의 대사이상으로 요산이 체내에 과잉 축적되는 질환이므로 퓨린 함량이 적은 식사를 한다. 육류의 내장 부위(심장, 간, 지라, 신장, 뇌, 혀), 육즙, 등푸른 생선류(정어리, 청어, 멸치, 고등어 등)에는 퓨린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주의한다. 소변으로 요산이 잘 배설될 수 있도록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1일 3L 정도). 알코올은 요산의 합성을 촉진시키는 반면 배설을 억제하므로 제한한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통풍 합병증(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일으킬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한다. 지방 섭취가 많은 경우 요산 배설이 방해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기름기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비만한 사람은 통풍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체중조절을 위한 식사조절을 한다.

식생활 실천사항

1. 과식을 피하고 적정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단백질은 두부, 달걀, 우유, 살코기, 흰살 생선 등을 이용하여 섭취한다.
3. 저지방 유제품, 채소류, 과일류를 적절히 섭취한다.
4. 수분 섭취를 늘린다.
5. 알코올의 섭취를 피한다.

음식 & 조리 정보

달걀찜

- 1) 재료 : 달걀 1개, 실파 5g, 우유 1큰술, 소금 약간 (1인분 기준)
- 2) 조리방법



- ① 달걀은 풀어서 체에 내린다.
- ② 실파는 얇게 채썬다.
- ③ 달걀물에 동량의 물, 우유, 소금, 실파를 넣고 그릇에 7부 정도 부은 후 12분간 찐다.

Tip : 스테인레스 그릇을 이용하면 열전도율이 높아 더 쉽게 달걀찜을 완성할 수 있다.
달걀을 풀어서 체에 내리면 더욱 부드러운 달걀찜을 완성할 수 있다.

■ 식단 정보

구분	음식명	재료	분량
아침	토스트	식빵	3쪽
	치즈	치즈	1장
	채소샐러드	양상치, 오이, 당근, 방울토마토, 샐러리, 오리엔탈드레싱	1작은접시
점심	쌀밥	쌀밥	1공기
	연두부찌개	연두부찌개	1그릇
	깻잎나물	들깻잎	1작은접시
	도라지생채	도라지, 오이, 양파	1작은접시
	연근조림	연근	1작은접시
	깍두기	깍두기	1작은접시
저녁	쌀밥	쌀밥	1공기
	미역국	미역국	1그릇
	달걀찜	달걀	1개
	감자채볶음	감자	1작은접시
	호박나물	애호박	1작은접시
	배추김치	배추김치	1작은접시



당뇨병

■ 정의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으로 인하여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된다.

■ 원인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되는데, 제1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라고도 불리며,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2형 당뇨는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외에 특정 유전자의 결함에 의해서도 당뇨병이 생길 수 있으며, 췌장 수술, 감염, 약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 증상

약한 고혈당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모호해서 당뇨병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량이 늘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 또한 체중이 빠지게 된다. 오랜 기간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신체에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망막병증(실명할 수 있음), 신기능장애(신기능 저하로 심할 경우 투석이 필요함), 신경병증(저림, 통증)이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 진단

혈액검사로 진단한다. 증상이 없는 경우 8시간 이상 금식 후에 측정한 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경구 당부하 검사 2시간 후 혈당이 200mg/dL 이상인 경우를 당뇨병이라 한다. 물을 많이 마시거나 소변이 많아지고 체중이 감소하는 동시에 식사와 무관하게 측정한 혈당이 200mg/dL 이상일 때도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 검사

공복 혈당검사는 적어도 8시간 동안 금식한 후 행해져야 한다. 경구 당부하 검사는 75g의 포도당 용액을 마신 후 2시간 후에 채혈하여 포도당을 측정하며, 금식 상태에서 포도당 용액을 복용하게 된다.

■ 치료

제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다. 제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생활 습관 교정을 기본으로 하며 추가로 약물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 먹는 약의 경우 하루 1~3회 복용하며 약의 작용 시간에 따라 먹는 시간이라든지 부작용 등이 조금씩 다르다.

먹는 혈당강화제는 크게 인슐린 분비 촉진제와 인슐린 감수성 개선제로 나뉜다. 인슐린 분비 촉진제는 설폰요소제(sulfonylurea)와 메글리티나이드(meglitinide)계가 있다. 설폰요소제는 흔히 처방되는 약으로, 저혈당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부작용이 없는 편이며, 아마릴(성분: 글리메프라이드 gliclazide), 디아미크롱(성분명: 글리클라자이드 gliclazide), 다오닐(성분명: 글리벤클라마이드 glibenclamide) 등이 이에 속한다.

인슐린 분비 촉진제의 일종인 메글리티나이드계는 약효가 매우 빠른 제제로 식전에 복용하며, 노보넴(성분명: 레파글리나이드 repaglinide), 파스틱(성분명: 나테글리나이드 nateglinide), 글루패스트(성분명: 미티글리나이드 mitiglinide) 등이 있다. 인슐린 감수성 개선제는 단독으로 복용 시 저혈당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바이구아나이드(biguanide) 계열 약물인 메트포르민(metformin)과, 치아졸리딘다이온(thiazolidinedione) 계열의 아반디아(성분명: 로지글리타존 rosiglitazone), 액토스(성분명: 피오글리타존 pioglitazone) 등이 있다. 그 외에 소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키는 글루코바이(성분명: 아카보즈 acarbose), 베이슨(성분명: 보글리보스 voglibose) 등이 있다.



최근 신약으로는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 GLP-1(glucagon-like peptide-1;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의 작용을 이용하여 개발된 GLP-1 작용제(agonist)가 있으며, 익스에나티드(exenatide)와 리라글루티드(liraglutide)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GLP-1을 신속하게 불활성화시키는 효소인 DPP-4(dipeptidyl peptidase-4; 디펩티딜 펩티데이즈-4)의 작용을 억제하는 DPP-4 억제제(inhibitor)도 최근 개발된 신약이며,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 sitagliptin),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 vildagliptin), 삭사글립틴(saxagliptin) 등이 있다.

인슐린은 현재 주사약으로 나와있으며 피하주사로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작용 시간에 따라 투여 방법이 다르다. 먹는 약에 비해서 혈당강하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먹는 약을 쓸 수 없는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으며 용량의 제한도 없지만, 주사침에 대한 거부감, 투여 방법의 어려움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인슐린에 대한 내용도 초속효성, 속효성, 중간형, 지속형등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초속효성(rapid-acting) 인슐린은 투여 후 15분 이내에 대부분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약효는 보통 3~4시간 지속된다. 따라서 식사 직후나 직전에 투여하며, 식후 혈당을 조절하는 데 용이하다. 인슐린 리스프로(lispro), 인슐린 아스파르트(aspart), 인슐린 글루리신(glulisine) 등이 이에 속한다.

속효성 인슐린은 초속효성 인슐린이 나오기 전까지 식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던 인슐린으로 레귤러 인슐린(regular insulin)이 이에 속한다. 보통 투여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효과를 나타내며, 약효는 보통 2~4시간 지속된다.중간형 인슐린(NPH insulin)은 투여 후 1~3시간 후에 효과를 나타내며, 약효는 보통 12~16시간 지속되고 투여 6~8시간에 최고 효과를 나타낸다. 인슐린이 특징적으로 뿌였다.지속형(long-acting) 인슐린에는 인슐린 글라진(glargine)과 인슐린 디테머(detemir) 등이 있으며, 중간형 인슐린보다 작용 시간이 더욱 길다.

■ 경과 · 합병증

갑자기 몸 안에서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급성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급성 합병증은 당뇨병성 케톤산증(diabetic ketoacidosis)과 고혈당성 고삼투압 증후군(hyperglycemic hyperosmolar syndrome)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적절히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이다.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만성 합병증으로는 미세혈관질환 합병증으로 망막병증, 신장병증, 신경병증 등이 있고, 대혈관질환 합병증으로는 관상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등이 있다.

■ 예방방법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체중을 5~7% 줄이게 되면 일부는 제2형 당뇨병의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 100% 예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믿을 만하고 부작용이 없는 방법이므로 적극 권장된다.

■ 생활 가이드

자신이 느끼는 증상만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자가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체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운동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 식이요법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체중을 줄이기 위해 칼로리 제한이 필요하고, 지방을 적게 먹는 것이 좋다. 저지방우유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관련질병

·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당뇨병성 신장 질환, 임신성 당뇨병 맨위로

제공: 서울대학교병원

■ 몸에좋은음식

제1형 당뇨병과 영양

제1형 당뇨병은 대부분 소아 및 청소년기에 나타나므로, 혈당조절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열량 및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한다. 성인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혈당조절과 합병증 예방을 위해 적절한 열량 및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한다. 사용하는 인슐린의 종류 및 용량을 정확히 알고 이에 따라 식사와 간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도록 한다.

- 식사와 간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한다.



- 인슐린 주사의 작용시간, 운동 등에 따라 식사와 간식을 일정하게 배분한다.
- 3끼 식사와 2~3번의 간식으로 나누어 섭취한다.
- 식사와 간식의 간격은 3~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인슐린이 최고로 작용하는 시간에 음식이 이용될 수 있도록 식사나 간식을 섭취한다.
- 추가 간식을 먹을 경우 간식의 열량과 성분을 미리 알아본 다음 식사나 인슐린 용량을 조정하거나 운동량을 늘리도록 한다.
-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 별도의 운동을 할 경우에는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 보충 간식을 섭취한다.

설탕, 꿀, 물엿, 잼 등과 같이 당질이 농축된 식품들 이들 식품은 혈당을 빨리 올리고 혈당조절을 어렵게 하므로 주의한다. 요리 시에 양념으로 조금만 사용한다. 대신 식초, 겨자, 계피, 후추, 생강 등이나 인공감미료 등을 이용한다.

■ 식생활 실천사항

1. 당질이 함유된 식품은 항상 일정하게 섭취한다.
 - 밥, 떡, 감자, 크래커, 과일, 우유 등
2.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고 조리 시에 양념으로 조금만 사용한다. 당질이 농축된 식품들은 혈당을 빨리 올리고 혈당조절을 어렵게 하므로 가능한 피한다.
 - 설탕, 꿀, 매실 엑기스, 물엿, 잼, 초콜릿, 청량음료, 아이스크림, 과즙음료 등
3.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는다. 섬유소는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조절에 도움을 주며 공복감을 덜어주기 때문에 많이 섭취한다.
 - 과일주스보다는 생과일을 섭취한다.
 - 채소즙 보다는 생채소나 나물반찬으로 먹는다.
 - 도정되지 않은 곡류나 잡곡 등을 많이 사용한다.
 - 고기나 생선 요리 시 채소를 함께 사용한다.
4.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은 가급적 적게 먹는다. 육류의 기름기, 껍질 및 내장, 버터 등은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가급적 적게 먹는다. 대신 생선이나 콩 및 두부, 식물성기름 등을 이용한다.





양양문화원 이모저모

1. 신년인사회

[포토뉴스]양양군 2010년 신년인사회 [강원일보 2010.01.06(수)]

2. 양양군지

양양문화원 20년 만에 양양군지(上·下) 발간 [강원일보 2010.12.17(금)]

양양의 역사와 문화가 이 한권의 책속에... [강원일보 2010.12.21(화)]

양양군지 출판기념회 [강원도민일보 2010.12.21(화)]

3. 옛사진 공모전

‘양양의 옛 사진’ 찾습니다 : 양양문화원 3월 12일까지...공모 [설악신문 2010.02.08(월)]

양양군 ‘양양의 옛 사진’ 공모전 [데일리안 사회 2010.02.16(화)]

“양양 옛 모습을 찾습니다” [도민일보 2010.02.17(수)]

“양양의 발자취가 담긴 사진을 찾습니다” [강원일보 2010.02.17(수)]

내달 12일까지 양양 옛사진 공모전 [강원일보 2010.2.22(월)]

4. 양양독립만세운동재현행사

91년 전 그날의 함성 되새긴다 [도민일보 2010.03.01(월)]

양양 물치장터 만세 함성 퍼진다 [도민일보 2010.04.10(토)]

“91년 전 4월 10일 물치장날 기억하자” [강원일보 2010.04.12(월)]

5. 현산문화제

- 양양군 '제32회 현산문화제' 일정 확정 [데일리안 사회 2010.03.12(금)]
- 현산문화제 일정 확정 [강원일보 2010.03.13(토)]
- 제32회 양양현산문화제 23일 광파르 [설악신문 2010.06.15(화)]
- 양양군 '제32회 현산문화제 및 제42회 군민체육대회' [데일리안 사회 2010.06.20(일)]
- 양양 현산문화제 23일 막 오른다 [강원일보 2010.06.21(월)]
- 6.2지선 갈등 털고 현산문화제로 화합하자 [강원일보 2010.06.24(목)]
- 선거로 갈린 마음 현산문화제로 모았다 [강원일보 2010.06.26(토)]
- 양양군 '제32회 현산문화제' 성료 [데일리안 사회 2010.06.26(토)]

6. 양양문화원

- 양동창 양양문화원장 재추대 [강원일보 2010.04.24(토)]
- 양동창 양양문화원장 연임... "지역문화 발전 헌신" [설악신문 2010.05.04(화)]
- [포토뉴스]제10대 양양문화원장 취임식 [강원일보 2010.07.02(금)]
- 제15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강원일보 2010.07.05(월)]

7. 어르신 문화학교

- 양양문화원 어르신 문화학교 [강원일보 2010.05.03(월)]
- 양양 어르신 38선 길 해설사 교육 [도민일보 2010.06.25(금)]
- [포토뉴스] 양양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2010.08.21(토)]
- "해방 직후, 밤에 몰래 38선 넘기도 했지" [조선일보 2010.11.23(화)]

8. 양양 지명유래 조사

- 양양군-중국 후베이성 양양구, 지명연관성 조사 [연합뉴스 2010.09.05(일)]

9. 양주지 발간준비

- <강원소식>양양군, 예산절약해 일자리 창출 [연합뉴스 2010.02.16(화)]



[포토뉴스] 양양군 2010년 신년인사회

양양군 신년인사회가 5일 낙산비치호텔에서 양양문화원(원장:양동창) 주관으로 이진호 군수, 김준식 군의장, 김사웅 속초경찰서장, 이상집 속초양양교육장, 최창삼 속초해양경찰서장, 이진형 노인회장, 양순자 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양문화원, 양양 옛 사진 공모

강원 양양문화원이 양양군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지역의 발전상을 담은 새로운 군지(郡志) 발간을 앞두고, '양양의 옛 사진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분야는 옛 양양군의 자연환경, 문화유적, 생활상, 건조물, 가재도구, 기타 양양을 배경으로 추억을 담은 사진 등이다.

오는 3월 12일까지 공모하며 출품작에 대해서는 5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역사성, 가치성, 보존상태 등을 고려해 모두 14점의 입상작(금상 1점 100만원, 은상 1점 70만원, 동상 2점 각 50만원, 입선 10점 각 5만원 등)을 선정하고,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출품작은 고화질 스캔해 심사위원 심사 후 출품자에게 반환되고, 특히 입상작은 사진자료집 발간과 함께 전시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1990년 발간된 양양지역의 양주지(襄州誌)는 올해로 20년이 흘렀다. 이에 따라 그 동안의 변화와 발전상, 역사를 담아내지 못해 새롭게 발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돼 양양군은 지역 역사, 문화, 행정, 경제 예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집대성한 새로운 군지를 발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양문화원을 발간기관으로 한 60인의 집필, 편찬, 편집위원 등 양양군지편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올해 말 군지 발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양동창 양양문화원장은 “현재 양양군지는 총 44개 분야중 34개 분야의 집필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소중한 사진들이 온 군민들이 영구 공감할 수 있는 공공의 사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이번 공모전에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강원=고석동 기자]



제91주년 3·1절을 맞아 도내는 물론 전국 60개 지역에서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가 펼쳐진다.

국가보훈처는 3·1정신을 민족정신으로 계승하기 위해 오는 6월초까지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천안 병천에서 열리는 ‘아우내 봉화제’ 등을 시작으로 영월군 주천면, 삼척 죽서루 등지에서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기획,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지역별로 만세운동이 전개된 의거 일을 전후해 4개월 동안 문화원, 기념 사업회 등의 민간단체 주관으로 진행된다.

도내에서 열리는 재현행사는 △영월 3·1만세운동재현행사 △삼척3·1만세운동재현행사 △제2회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 △양양독립만세운동재현행사 등이다.

3월 1일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 독립만세운동상에서 열리는 ‘영월3·1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주천면 금마리 마을회 주관으로 만세운동재현행사와 3·1절 기념식이 열리며 ‘삼척3·1만세운동재현행사’의 경우 죽서루와 삼척초교에서 삼척보통학교 4·15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마련한 만세운동 가두행진 재현행사와 기념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4월 1일에는 ‘제2회 물치만세운동 기념행사’가 양양군 강현면 물치항 주차장에서 기념식 및 진혼무 등 기념행사로 열리며 이어 6월 1일은 양양문화원이 주관하는 ‘양양독립만세운동재현행사’가 양양 시내 일원에서 기미만세운동 재현행사를 비롯해 가두행진, 만세운동 재현연극, 순국선열 추모백일장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내 각 지역에서도 당시 의거를 사실적으로 재현함은 물론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타종, 공연 및 전시, 태극기 탁본, 마라톤대회 같은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문화축제 형식으로 개최된다.

국가보훈처 김홍남 사무관은 “재현행사는 그동안 범국민적인 축제행사로 발전, 우리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을 이어가는 대규모 독립기념행사로 국민들에게 나라사랑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3·1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는 80주년인 지난 99년 전국 15개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윤수용 ysy@kado.net



▲ 지난해 열린 삼척 3·1만세운동 재현행사.



▲ 양양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양양]양동창 양양문화원장 만장일치 재추대

【양양】양동창 양양문화원장(사진)이 재추대됐다. 양양문화원은 23일 일출예식장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문화원장 선임에 있어 단독출마한 양원장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양원장은 지난 2006년 7월에 취임해 4년 동안 1990년 발간된 '양주지'를 새롭게 '양양군지'로 이름을 바꾸어 올해 발간 작업 마무리를 계획하는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왔다. 양원장은 “양양과 관련한 옛 자료, 사진 및 문헌을 발굴, 전통문화 관광을 접목, 문화체험, 현장답사를 강화해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관광자원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웅기자 kwlee@

[양양]6.2 지선 갈등 털고 현산문화제로 화합하자

양양 현산문화제 전야제 시작으로 막올라 ... 체육대회 · 전시회 등 행사 다채

◇현산문화제 고치물제 및 장군 성향제

【양양】양양군 현산문화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이 주관하는 양양지역 향토문화축제 제32회 현산문화제가 23일 고치물제와 장군서낭제, 화려한 전야제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축제는 이날 오후 4시 근행리 고치물에서 장군서낭제와 고치물제를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어 양양 고밴드, 영신농악행렬, 제등행렬 등 시가행진이 펼쳐지고 오후 8시30분부터 남대천 둔치 특설무대에서 군민노래자랑이 열렸다.

25일까지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는 현산문화제에는 학생, 주민, 각급 기관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24일에는 남대천 궁도장에서 제2회 양양군수기 도내 남녀궁도대회 '를 비롯 25일까지 양양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제42회 양양군민체육대회가 함께 열린다. 읍·면별로 육상, 축구, 배구, 족구, 테니스, 게이트볼, 마라톤, 수영 등 총 13개 종목에 1,0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겨룬다. 축제 기간 행사장에서는 영신굿, 추성판소리, 민요경창, 수동골 상여소리등 문화공연과 읍면농악경연, 어린이 농악경연, 청소년국악사물놀이경연, 한시백일장 등 전통문화 경연, 분재·공예품 시낭송회, 휘호대회, 야생화 전시회, 농특산물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펼쳐진다. 고용달 현산문화제위원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후 열리는 현산문화제를 계기로 진정한 군민화합을 이루고 양양인의 높은 기상과 애국 애향심 진작, 향토애를 고취하는 군민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이경웅기자 kwlee@kwnews.co.kr

양양군-중국 후베이성 양양구, 지명연관성 조사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도 양양군이 자매교류 도시인 중국 후베이성 양양구와 지명 연관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5일 양양군에 따르면 12년째 교류를 해오는 후베이성의 양양구는 같은 한자인 양양(襄陽)을 지명으로 쓰고 있다.

이에따라 양양군은 한국의 양양군이 중국의 양양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명유래에 대한 연관성을 밝히고자 사료와 문헌을 토대로 한 기초조사를 마친 데 이어 문화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4명의 조사단을 중국 현지에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군청 관계자는 “지명에 대한 연관성을 규명해 타당성이 검증되면 이를 군지(郡誌)에 게재,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양양구와의 문화교류 등을 한층 확대해 나가는 계기로도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momo@yna.co.kr

“해방 직후, 밤에 몰래 38선 넘기도 했지”

양양 할아버지들이 들려주는 전쟁... 청소년과 함께 걸으며 해설
“1·4 후퇴 때 피란갔다 오니 마을 전체가 불타 사라져...
우리가 겪은 이야기 듣고 아이들이 역사 바로 알길”
“해방 직후엔 이 길을 따라 밤에 몰래 38선을 넘었고, 소련군을
피해 북에 있는 외가에 다녀오기도 했단다.”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 앞골산을 오르던 칠순의 이명우씨가 해방 직후의 38선 상황을 설명하자, 양양중학교 학생들이 “할아버지도 북한 가보셨어요?”라고 물었다. “그럼, 나도 일곱 살 땐 아버지·어머니·누이 손 잡고 이 길로 외가에 자주 갔었지. 지금은 못 가지만...”

▲ 양양 38선 휴게소에서 ‘38선 길 해설사’ 손찬호씨가 중학생들에게 해방직후 38선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양양=김지환 객원기자 nrd1944@chosun.com 1945년 해방 후 양양군은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군이 점령했다. 6·25 전쟁 때는 국군과 인민군 간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 중 하나다. 낮에는 국군, 밤에는 인민군이 점령하는 일이 많아 주민들은 항상 불안했다.

양양군은 이처럼 ‘독특한 전쟁’이 가져온 애환과 참상을 알리기 위해 서면 서림리에서 잔교리 38선휴게소에 이르는 38km를 ‘38선 길’로 만들었다. 그리고 전쟁을 겪은 노인 20명을 ‘38선 길 해설사’로 모집,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교육받게 했다. 지난 6일 이명우(71)·이상한(69)·손찬호(60)씨가 양양중학생 45명을 상대로 첫 해설에 나섰다.

장한무(13)군이 “38선 위쪽은 북한 땅 아닌가요? 헛갈려요”라고 하자, 이명우씨가 웃으며 “너희가 휴전선과 38선을 구분하지 못하는구나”라며 해방과 동시에 생긴 38선과 6·25 전쟁이 끝나고 생긴 휴전선의 차이를 설명했다. 1950년 6·25 때 11살이었던 이씨는 1·4 후퇴 때 주문진 남쪽으로 피란 갔다가 돌아오니 마을이 불에 타 집 한 채도 없이 사라져 움막을 짓고 생활했다고 한다. 피란 도중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누이와 셋만 남았다. 그는 “날이 새면 국군이 다시 올 게 뻔한데도 당장 죽을까 봐 ‘북으로 가자’는 인민군을 따라 셋이 집에서 11km 떨어진 강현면 산속까지 끌려갔었다”고 했다. 이씨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때 새벽에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지금 북한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지 상상도 하기 싫다”고 했다.

이상한씨는 “당시 양양에 인민학교 소년단이 조직됐는데, 나는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광산 감독원이어서 ‘불순자 자식’이라며 밤낮 억압당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겪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줘 아이들이 역사를 바로 알고 안보의식도 다지도록 돕고 싶어 38선 길 해설가로 나섰다”고 했다.

6·25 피란동이인 손씨는 한자로 ‘정중동(靜中動)’이라고 쓴 종이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손씨가 “이 말은 ‘조용한 가운데도 움직임이 있다’는 뜻인데 지금 우리 현실과 닮았다.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을 뿐이지”라고 하자, 아이들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양양=한수연 기자 sue@chosun.com

[양양]양양의 역사와 문화가 이 한권의 책속에...

양양군지 출판기념회 성황

양양문화원 20년 만에 발간

양양문화원이 20년 만에 발간한 양양군지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군지 출판기념회는 20일 오후2시 일출예식장에서 이계동부군수 김일수군의회부의장 이상집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양동창문화원장을 비롯 편찬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양양군지는 지난 1990년에 발간한 양주지가 군지 역할을 해 왔으나 사회 전반의 급변과 수차례 수해와 산불 등 많은 변화로 새롭게 증보해야 할 시기고 양양의 역사,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를 집대성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며 군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 발간하게 됐다.

이번 군지편찬사업은 총 3억5,000만원을 들여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44명의 집필위원이 1년간 집필하고 6명의 편집위원이 1년간 편집 수정을 거쳐 마무리됐다.

이날 기념회에서는 양동창양양군지편찬위원장이 공로패, 이종우편집위원장과 이규환 김재환위원이 감사패를 받았다.

양동창편찬위원장은 “양주지를 증보한 20년 만의 양양군의 역사,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양양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어주는 종합 역사서로서 모든 군민과 늘 함께하며 사랑받는 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양양=이경웅기자



양양군지 출판기념회가 20일 오후2시 일출예식장에서 이계동부군수, 김일수 군의회부의장, 김양수도의원, 이상집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양동창 문화원장을 비롯한 내빈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양문화원 임직원

번호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1	원장	양동창	양양읍 남문3리4반 16-40	671-2460	010-2868-0236
2	부원장	김호열	서면 상평리 469	672-2987	011-203-2954
3	이사	남용희	양양읍 거마리 87-1	672-9244	011-365-8233
4	"	박용근	양양읍 구교리 아트빌라403호	673-0600	010-9021-4610
5	"	최낙민	양양읍 포월리 71-23	672-3457	017-371-3459
6	"	최종한	양양읍 서문2길12-3	672-3346	010-4311-3346
7	"	이철규	서면 수상리 40-4	672-3816	011-379-5247
8	"	김남규	손양면 동호리 141-3	672-2272	011-374-2271
9	"	이종우	손양면 수여리 58	671-8793	011-9947-8793
10	"	이근천	현북면 명지리270-2	672-1161	010-9479-6310
11	"	이치우	현북면 상광정리 503	672-3322	011-9057-3325
12	"	이재훈	현남면 인구리 636-1	671-2451	010-5371-3458
13	"	임용식	현남면 입암리 76-1	671-7447	011-375-8255
14	"	손인환	강현면 물치리 149	671-1995	010-5376-0069
15	"	안광혁	강현면 상복리 557	671-5668	011-373-5661
16	감사	이찬수	양양읍 남문1리 135-2	672-2279	010-3765-2279
17	"	추금엽	양양읍 남문3리2반15-8	671-3248	010-2770-3248
18	사무국장	김광영	양양읍 거마리294	672-5295	018-335-5295
19	간사	최선미	양양읍 서문리 서문로알빌라2차101호	070-7740-7489	010-2478-7489
20	직원	이정미	강현면 주청리 1반 99-36	671-5406	010-3886-5406
21	직원	김진형	양양읍 연창리 연창로알빌라1차 202호	671-4137	010-4512-1548

편집후기

분주함 속에 어느덧 辛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에도 문화가족 모두의 성원으로 한해를 잘 마무리 하게 되어 감사 합니다.

지난해 양양문화원은 그 어느 해보다 바쁘고 뜻깊은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1990년 발간된 양주지를 중, 보하여 20년 만에 양양군지로 이름을 바꾸어 새롭게 발간하여 출판기념회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양양군지는 2년간 각 분야별 교수와 전문가 등 44명의 집필진을 구성하여 상,하권 2,300 여쪽 분량으로 편성하였으며, 표지도 고풍스럽게 꾸미고 과거 사진도 많이 넣어 읽는데 지루함이 없도록 편집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양양군지 편찬사업을 하며 양양의 옛 사진도 공모하였고 많은 분들께서 고자료를 기증 또는 협조해 주셨으므로 알찬 양양군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군민과 늘 함께하며 사랑받는 양양군지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고자료 등 향토자료의 발굴과 수집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므로 문화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양양문화원의 눈부신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신묘년 새해에는 용궁에서 탈출한 토끼처럼 만사 지혜롭고 건강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매섭게도 추운 새해 아침에, 교정을 마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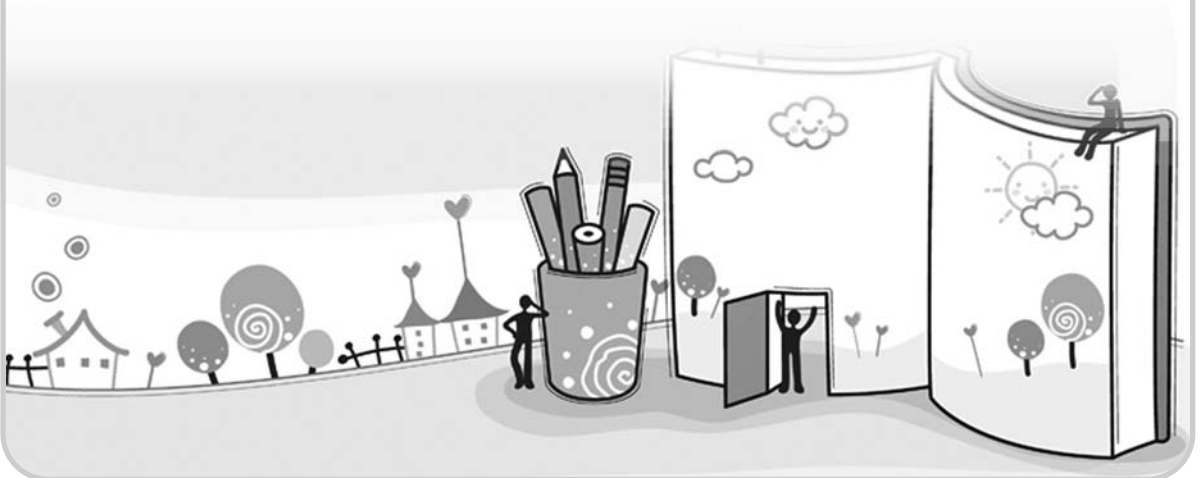
襄陽文化院 事務局長 金 光 泳



MEMO



MEMO





현산문화 제22호

2011年 1月 31日*印刷

2011年 1月 31日 發行

발행인 : 양 동 창

편집인 : 김 광 영

발행처 : 襄陽文化院

인쇄처 : 대양프리컴



앙앙8경



1경 연어들의 고향, 남대천



남대천은 총 길이가 54km되는 하천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역이다. 봄에는 황어, 7~8월에는 은어, 10~11월엔 북태평양에서 3~5년 동안 자란 연어떼가 돌아오는 곳이다. 또한 이곳은 타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두거리, 민물참게 등 희귀 민물 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물과 구룡령에서 발원한 물이 만나 큰 하천을 이루어 동해로 흘러가는 앙앙 남대천은 연어들의 모친인 '어머니의 강'으로 불리며, 매년 연어축제가 열리고 있어 연어들의 힘찬 몸부림을 직접 만나 볼 수 있다.



5경 허름과 조준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하조대



백사장 규모가 크고, 모래가 부드러우며, 경사가 완만하여 가족단위의 피서지로 적합하다. 1976년 처음 개장한 이래 매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2,722㎡의 야영장과 더불어 해수욕장으로 운영되며, 위락시설이 많지 않아 주변의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조용하다. 담수가 흐르며 남쪽에 기암괴석과 바위섬이 있어 낚시하기에 좋은 곳이다.



2경 태고의 웅비를 간직한, 대청봉



일출과 낙조로 유명하며, 기상변화가 심하고 강한 바람과 낮은 온도 때문에 눈자나무 군락이 웅단처럼 낮게 자라 국립공원 전체와 동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다. 늦가을부터 늦봄까지 눈으로 덮여 있고, 6월~7월이면 진달래, 철쭉, 벚꽃으로 뒤덮이며, '오산오수'라는 글귀가 새겨진 바위와 대청봉 표지석이 있다. 정상까지 오색방면, 백담사방면, 설악동 방면, 한계령 방면의 코스가 있는데, 오색에서 설악 폭포를 거쳐 정상에 오르는 6km(약 4시간 소요)가 최단거리 코스이다.



6경 파도소리와 죽향이 가득한, 죽도정



죽도정은 죽도 정상에 있는 정자로 1965년 5월에 세워졌다. 죽도는 인구리 해변에 있는 둘레 1km, 높이 53m의 섬으로 송죽이 사철 울창하다. 죽도정에 오르면 파도가 깎아 만든 여러 모양의 바위와 해양풍경을 한 눈에 바라 볼 수 있으며, 죽도 북쪽 기슭에는 죽도암이란 작은 암자가 소박하게 자리잡고 있어 신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3경 자연도 함께 쉬어가는 신비로운, 오색령



해발고도 1,004m인 오색령(한계령)은 내설악과 남설악을 잇는 44번 국도이며 애환을 통고동락한 고개이다. 인생을 닮은 듯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따라 달리면 남설악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특히 설악의 운무가 펼쳐지는 장관은 한계령에서만 볼 수 있다.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다보면 강원도 지역에서 여섯개의 령을 손꼽았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이 오색령(한계령)이었다.



7경 강원도의 베네치아, 남애항



아름다운 미항 남애항은 386세대에게는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고래사냥의 활영지이다. 그 시절 그들이 정말 원했던 삶은 무엇이었는지...고래사냥 노래의 "술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라는 가사가 기억에 남는다. 남애항 양쪽에는 서로 마주보는 있는 빨간색과 하얀색의 등대는 남애항의 운치를 더해주며 낚시배를 예약하면 바다에 나가서 직접 고기를 잡을 수 있다.



4경 시원한 폭포와 가을단풍이 아름다운, 오색주전골



설악산국립공원 남쪽에 있는 오색약수터에서 선녀탕을 거쳐 점봉산(1,424m) 동북쪽비탈에 이르는 계곡이다. 남설악의 큰 골 가운데 가장 수려한 계곡으로 계곡미와 가을단풍으로 유명하다. 골이 깊어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끼며 고래바위·상투바위·새눈바위·여심바위·부부바위·오색석사·선녀탕·심이폭포·웅소폭포 등 곳곳에 기암괴석과 폭포가 이어져 풍광이 빼어나다.



8경 일출이 아름다운, 낙산사의상대



낙산사의상대는 낙산사 창간자인 의상대사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정자로, 낙산사의 동쪽 100m 거리의 바닷가 절벽 위에 세워져 있다. 앞으로는 끝없이 맑고 푸른 동해바다를 마주하고, 오른쪽 절벽 아래로는 낙산해수욕장과 인접하여 있으며, 뒤로는 유서 깊은 낙산사와 울창한 소나무숲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주위 경관이 빼어나다.

낙산사복지재단은 양양지역 아동과 청소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함께 가꾸어 갑니다.



무산지역아동센터 전경



아동센터 내부(프로그램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

어린이작은도서관 의상도서관 내부

무산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의 초·중등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설로 120여명의 학습실, 프로그램실, 도서관 등 최신시설을 갖추고 학습지도, 문화예술프로그램과 전문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 운영시간 : 09:00 ~18:00(방학중), 10:00 ~19:00(학기중)
- 대 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관내 초, 중등학생(저소득층 아동 무료이용)
-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166번지
- 연 락 처 : 033)671-0889

의상도서관(무산지역아동센터 부설 어린이 작은도서관)

70여명의 아름다운 문화교육 공간으로 지역의 아동청소년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열린도서관인 의상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문화적 소외를 극복하고 꿈과 희망을 키우게 하는 곳입니다.

- 운영시간 : 10:00~19:00
- 대 상 : 관내 아동청소년, 지역주민 누구나(회원증 발급해드립니다)
-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166번지
- 연 락 처 : 033)671-0889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복지재단**

